

정책자료 2016-0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이삼식 · 최효진

【책임연구자】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저서】

출산을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공저)

【공동 연구진】

최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2016-0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발 행 일 2016년 12월 31일

저 자 이 삼 식

발 행 인 김 상 호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가 격 비매품

발간사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01년 처음으로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출산율이 1.2~1.3명 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더라도 합계출산율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 구조가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영향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업에서는 지역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출산율 영향 요인 및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보건복지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모니터링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임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상 호

목 차

제1부 도 입 부	1
제1장 서 론	3
제1절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7
제2장 지자체 출산 수준 기초분석	9
제1절 지역 간 출산 수준 차이	11
제2절 지역구분 내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	16
제3절 모니터링 대상 기초지자체 선정	21
제2부 기초지자체 출산 관련 모니터링	23
제3장 대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25
제1절 저출산 대도시 지역	27
제2절 고출산 대도시 지역	54
제4장 중소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93
제1절 저출산 중소도시 지역	95
제2절 고출산 중소도시 지역	134

제5장 농촌 지역 출산 관련 모니터링 169

제1절 저출산 농촌 지역 171

제2절 고출산 농촌 지역 201

제6장 모니터링 결과 종합 241

제1절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의 특징 24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47

제3부 기초지자체 저출산 대응 체계 모니터링 249

제7장 기초지자체 저출산 대응 체계 모니터링 251

제1절 저출산 대응 조직 체계 253

제2절 저출산 대응 인력 258

제3절 저출산 대응 예산 262

제4절 저출산 대응 법제적 노력 263

제5절 저출산 대응 교육·홍보 264

제6절 저출산 대응 관련 장애 요인 265

제7절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제언 266

참고문헌 271

부록 275

표 목차

〈표 1- 1〉 기초지자체 조사 응답 현황	8
〈표 2- 1〉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015	12
〈표 2- 2〉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 평균	14
〈표 2- 3〉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및 가임여성 비율의 기초지자체 평균, 2015	16
〈표 2- 4〉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수준, 2015	17
〈표 2- 5〉 지역별 합계출산율 최저 10위 및 최고 10위 기초지자체, 2015	20
〈표 3-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29
〈표 3-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30
〈표 3-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31
〈표 3-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구주 연령별 1인 가구의 비율, 2015	32
〈표 3- 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토지 및 건물 용도 현황, 2016	33
〈표 3- 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33
〈표 3-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거처 종류, 2015	34
〈표 3- 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36
〈표 3- 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39
〈표 3-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주(야간)주간 인구(12세 이상), 2010	40
〈표 3-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거처 유형, 2015	43
〈표 3-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44
〈표 3-13〉 부산광역시 동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47
〈표 3-14〉 부산광역시 동구의 거처 유형, 2015	52
〈표 3-15〉 부산광역시 동구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53
〈표 3-16〉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및 가임 여성 비율, 2015	56
〈표 3-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58
〈표 3-18〉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연도별 아파트 건립 규모, 2009~2014	60
〈표 3-19〉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61
〈표 3-2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61

〈표 3-2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2014	62
〈표 3-2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산업단지 구성, 2014	62
〈표 3-2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63
〈표 3-24〉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66
〈표 3-25〉 울산광역시 북구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68
〈표 3-26〉 울산광역시 북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68
〈표 3-27〉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파트 건립 동향, 2009~2014	71
〈표 3-28〉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택 유형, 2014	71
〈표 3-29〉 울산광역시 북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71
〈표 3-30〉 울산광역시 북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72
〈표 3-3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75
〈표 3-3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77
〈표 3-3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택 유형, 2016년 6월	79
〈표 3-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79
〈표 3-3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출산 대책, 2015	81
〈표 3-3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83
〈표 3-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85
〈표 3-38〉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86
〈표 3-3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택 유형, 2014	90
〈표 3-40〉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90
〈표 3-4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91
〈표 4- 1〉 경기도 부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97
〈표 4- 2〉 경기도 부천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99
〈표 4- 3〉 경기도 부천시의 경기도 내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99
〈표 4- 4〉 경기도 부천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00
〈표 4- 5〉 경기도 부천시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101
〈표 4- 6〉 경기도 부천시의 주택 현황, 2014년	103
〈표 4- 7〉 경기도 부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05

〈표 4- 8〉 경기도 의정부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08
〈표 4- 9〉 경기도 의정부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3	110
〈표 4-10〉 경기도 의정부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5	112
〈표 4-11〉 경기도 의정부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2013	113
〈표 4-12〉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 건립 현황	113
〈표 4-13〉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113
〈표 4-14〉 경기도 의정부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14
〈표 4-15〉 충청남도 공주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17
〈표 4-16〉 충청남도 공주시의 순이동자(전입자-전출자) 규모 추이	117
〈표 4-17〉 충청남도 공주시의 인구 전출 및 전입 현황, 2015	118
〈표 4-18〉 충청남도 공주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19
〈표 4-19〉 충청남도 공주시의 노인인구 규모 및 비율 추이, 2008~2015	121
〈표 4-20〉 충청남도 공주시의 주택 현황, 2013	122
〈표 4-21〉 충청남도 공주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23
〈표 4-22〉 강원도 춘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26
〈표 4-23〉 강원도 춘천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128
〈표 4-24〉 강원도 춘천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29
〈표 4-25〉 강원도 춘천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5	130
〈표 4-26〉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단지 현황, 2014	132
〈표 4-27〉 강원도 춘천시의 주택 현황, 2014	132
〈표 4-28〉 강원도 춘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133
〈표 4-29〉 충청남도 당진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35
〈표 4-30〉 충청남도 당진시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37
〈표 4-31〉 충청남도 당진시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140
〈표 4-32〉 충청남도 당진시의 거처 종류, 2015	140
〈표 4-33〉 충청남도 당진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41
〈표 4-34〉 경상남도 거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43
〈표 4-35〉 경상남도 거제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45

〈표 4-36〉 경상남도 거제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14	148
〈표 4-37〉 경상남도 거제시의 아파트 건립 현황, 2008~2014	148
〈표 4-38〉 경상남도 거제시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148
〈표 4-39〉 경상남도 거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49
〈표 4-40〉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52
〈표 4-41〉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54
〈표 4-42〉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처 현황, 2015	157
〈표 4-43〉 세종특별자치시의 아파트 건립 동향, 2012~2014	157
〈표 4-44〉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현황, 2015	158
〈표 4-45〉 전라남도 광양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61
〈표 4-46〉 전라남도 광양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163
〈표 4-47〉 전라남도 광양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64
〈표 4-48〉 전라남도 광양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2015	165
〈표 4-49〉 전라남도 광양시의 거처 종류, 2015	166
〈표 4-50〉 전라남도 광양시의 아파트 건립 추이, 2010~2014	166
〈표 4-51〉 전라남도 광양시의 저출산대책 현황(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167
〈표 5- 1〉 경상남도 합천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73
〈표 5- 2〉 경상남도 합천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75
〈표 5- 3〉 경상남도 합천군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176
〈표 5- 4〉 경상남도 합천군의 직업별 취업자, 2014 하반기	177
〈표 5- 5〉 경상남도 합천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4	178
〈표 5- 6〉 경상남도 합천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78
〈표 5- 7〉 충청북도 괴산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82
〈표 5- 8〉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184
〈표 5- 9〉 충청북도 괴산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85
〈표 5-10〉 충청북도 괴산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4	188
〈표 5-11〉 충청북도 괴산군 거처의 종류별 가구, 2015	188
〈표 5-12〉 충청북도 괴산군의 아파트 건립 동향	188

〈표 5-13〉 충청북도 괴산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90
〈표 5-14〉 경상북도 청도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193
〈표 5-15〉 경상북도 청도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195
〈표 5-16〉 경상북도 청도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196
〈표 5-17〉 경상북도 청도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198
〈표 5-18〉 경상북도 청도군의 아파트 건립 동향	198
〈표 5-19〉 경상북도 청도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199
〈표 5-20〉 전라남도 해남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203
〈표 5-21〉 전라남도 해남군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4
〈표 5-22〉 전라남도 해남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206
〈표 5-23〉 전라남도 해남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9
〈표 5-24〉 전라남도 해남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210
〈표 5-25〉 강원도 인제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214
〈표 5-26〉 강원도 인제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216
〈표 5-27〉 강원도 인제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년	218
〈표 5-28〉 강원도 인제군의 주택 점유 형태, 2010	218
〈표 5-29〉 강원도 인제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219
〈표 5-30〉 전라남도 영암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223
〈표 5-31〉 전라남도 영암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225
〈표 5-32〉 전라남도 영암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225
〈표 5-33〉 전라남도 영암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5	228
〈표 5-34〉 전라남도 영암군의 아파트 건립 현황	228
〈표 5-35〉 전라남도 영암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229
〈표 5-36〉 전라남도 장성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233
〈표 5-37〉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235
〈표 5-38〉 전라남도 장성군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235
〈표 5-39〉 전라남도 장성군의 산업단지 현황, 2014	238
〈표 5-40〉 전라남도 장성군의 사업체 규모 현황, 2014	238

〈표 5-41〉 전라남도 장성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5	238
〈표 7- 1〉 저출산대책 관련 총괄부서 여부	253
〈표 7- 2〉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54
〈표 7- 3〉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소속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254
〈표 7- 4〉 이상적인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소속에 대한 인식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255
〈표 7- 5〉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단위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256
〈표 7- 6〉 이상적인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단위에 대한 인식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256
〈표 7- 7〉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인력 규모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257
〈표 7- 8〉 이상적인 총괄부서의 규모에 대한 인식(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	257
〈표 7- 9〉 저출산대책 관련 정례 전문가 자문회의/협의체 운영 현황, 2015년	258
〈표 7-10〉 저출산대책 담당자의 전체 업무 중 저출산대책 업무의 비율	259
〈표 7-11〉 저출산대책 업무량 대비 투입 인력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현황)	259
〈표 7-12〉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260
〈표 7-13〉 2016. 1. 1.~ 5. 30. 동안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횟수	260
〈표 7-14〉 저출산대책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61
〈표 7-15〉 적합한 저출산대책 교육·훈련 주관 기관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261
〈표 7-16〉 적합한 저출산대책 교육·훈련 주기에 대한 인식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262
〈표 7-17〉 저출산대책 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263
〈표 7-18〉 저출산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	263
〈표 7-19〉 2015년 지역사회 자원(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횟수	264
〈표 7-20〉 2015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횟수 ..	265
〈표 7-21〉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의 장애요인(1순위)	265

그림 목차

[그림 2- 1] 전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15	11
[그림 2- 2]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 2015	13
[그림 2- 3] 지역 내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분포	18
[그림 3-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8
[그림 3-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2000, 2015	28
[그림 3- 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29
[그림 3-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38
[그림 3-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39
[그림 3-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40
[그림 3- 7] 부산광역시 동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46
[그림 3- 8]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2011, 2015	47
[그림 3- 9] 부산광역시 동구의 순이동 인구 추이, 2000~2015	48
[그림 3-10]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48
[그림 3-11]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아파트 매매가격, 2016년 9월 기준	52
[그림 3-12] 부산광역시 강서구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55
[그림 3-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연령별 출산율, 2015	56
[그림 3-1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57
[그림 3-15]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1, 2015	58
[그림 3-16] 울산광역시 북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65
[그림 3-17] 울산광역시 북구의 연령별 출산율, 2002, 2015	65
[그림 3-18] 울산광역시 북구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67
[그림 3-19] 울산광역시 북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8, 2012, 2015	67
[그림 3-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74
[그림 3-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5	74
[그림 3-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75
[그림 3-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6, 2015	76

[그림 3-2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82
[그림 3-2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연령별 출산율, 2015	83
[그림 3-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령별 순이동자 규모, 2000~2015	84
[그림 3-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9, 2015	84
[그림 3-28]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임기 여성의 연령 분포, 2001~2015	87
[그림 4- 1] 경기도 부천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96
[그림 4- 2] 경기도 부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3, 2015	96
[그림 4- 3] 경기도 부천시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97
[그림 4- 4] 경기도 부천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98
[그림 4- 5]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m2당)	104
[그림 4- 6] 경기도 의정부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107
[그림 4- 7] 경기도 의정부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5	107
[그림 4- 8] 경기도 의정부시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109
[그림 4- 9] 경기도 의정부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0, 2015	109
[그림 4-10] 충청남도 공주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116
[그림 4-11] 충청남도 공주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2, 2015	116
[그림 4-12] 충청남도 공주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119
[그림 4-13] 충청남도 공주시의 인구 규모 추이, 2008~2015	120
[그림 4-14] 강원도 춘천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125
[그림 4-15] 강원도 춘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1, 2015	125
[그림 4-16] 강원도 춘천시의 순이동자 추이, 2001~2015	126
[그림 4-17] 강원도 춘천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8, 2012, 2015	127
[그림 4-18] 강원도 춘천시의 인구 변동 추이, 1997~2015	129
[그림 4-19] 충청남도 당진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134
[그림 4-20] 충청남도 당진시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2012, 2015	135
[그림 4-21] 충청남도 당진시의 순이동자수 추이, 2012~2015	136
[그림 4-22] 충청남도 당진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2, 2015	136
[그림 4-23] 충청남도 당진시 지리적 위치	139

[그림 4-24]	경상남도 거제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142
[그림 4-25]	경상남도 거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143
[그림 4-26]	경상남도 거제시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144
[그림 4-27]	경상남도 거제시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144
[그림 4-28]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12~2015	151
[그림 4-29]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4, 2015	151
[그림 4-30]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2~2015	153
[그림 4-3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적 위치	155
[그림 4-32]	전라남도 광양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160
[그림 4-33]	전라남도 광양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2, 2015	161
[그림 4-34]	전라남도 광양시의 순이동자수 추이, 2000~2015	162
[그림 4-35]	전라남도 광양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1, 2015	163
[그림 5- 1]	경상남도 합천군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172
[그림 5- 2]	경상남도 합천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1, 2015	172
[그림 5- 3]	경상남도 합천군의 순이동자수 추이, 2000~2015	173
[그림 5- 4]	경상남도 합천군 연령별 순이동률, 2003, 2015	174
[그림 5- 5]	충청북도 괴산군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2000~2015	180
[그림 5- 6]	충청북도 괴산군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181
[그림 5- 7]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2, 2015	182
[그림 5- 8]	충청북도 괴산군의 인구 순이동 추이, 2001~2015	183
[그림 5- 9]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1, 2015	184
[그림 5-10]	경상북도 청도군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000~2015	192
[그림 5-11]	경상북도 청도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7, 2015	193
[그림 5-12]	경상북도 청도군 순이동자 추이, 2001~2015	194
[그림 5-13]	경상북도 청도군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2004, 2015	195
[그림 5-14]	경상북도 청도군의 지리적 위치	197
[그림 5-15]	전라남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201
[그림 5-16]	전라남도 해남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4, 2015	202

[그림 5-17] 전라남도 해남군 인근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204
[그림 5-18] 전라남도 해남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2, 2012, 2015	205
[그림 5-19] 전라남도 해남군의 총인구 변동 추이, 1997~2015	206
[그림 5-20] 전라남도 해남군과 인근 기초지자체의 여성 인구 추이	207
[그림 5-21] 전라남도 해남군의 지리적 특성	208
[그림 5-22] 강원도 인제군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213
[그림 5-23] 강원도 인제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4, 2015	213
[그림 5-24] 강원도 인제군의 순이동자 추이, 2000~2015	215
[그림 5-25] 강원도 인제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2001, 2015	215
[그림 5-26] 전라남도 영암군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000~2015	222
[그림 5-27] 전라남도 영암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222
[그림 5-28] 전라남도 영암군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223
[그림 5-29] 전라남도 영암군 연령별 순이동률, 2003, 2015	224
[그림 5-30] 전라남도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	227
[그림 5-31] 전라남도 장성군의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231
[그림 5-32]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6, 2015	232
[그림 5-33] 전라남도 장성군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233
[그림 5-34]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2, 2015	234
[그림 5-35] 전라남도 장성군의 지리적 특성	237

제 1 부 도입부

제 1 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제1절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에 도달한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처음으로 1.3명 미만(초저출산 현상)으로 감소하였음.
 -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낮아졌으나 이후에 다소 상승하였음.
 - 그러나 초저출산 현상이 시작된 이래 출산율은 1.2명 내외의 수준에서 지속되어 초저출산 현상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001년 이래 현재까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결혼, 출산 및 양육에 불리한 거시적인 사회구조와 미시적인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취업 곤란 및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어 고학력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교육-직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주거의 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 또한 가부장적인 고용 문화와 가족 문화의 지속 등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 및 문화가 결혼과 출산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
 -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개인(부부)이 고용 및 소득 불안정, 주택 마련 비용 부담, 양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출산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출산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됨.

- 한편, 합계출산율은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도시화 정도에 따라서는 대도시 1.108명, 중소도시 1.343명, 농촌 1.493명으로 최대 약 0.4명의 차이가 나타남.
 - 기초지자체별로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강남구(0.813명)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해남군(2.464명) 간 차이가 1.65명에 이름.
-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미시적인 원인 구조가 한국 사회 전반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지역(기초지자체) 간 차이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에 따른 영향(부분적일지라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저출산 및 고출산 기초지자체들을 선정하여 지역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지역의 출산율 영향 요인 및 메커니즘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됨.

제2절 연구 내용

- 이 보고서는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됨.
 - 제1부 도입부에서는 서론에 해당되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이어서 모니터링 이전에 사전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출산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기초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선정함.

- 제2부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출산을 영향 요인(메커니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 대도시(자치구), 중소도시, 농촌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을 다시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으로 구분함.
 -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지자체(각 3~4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과 출산 수준(저출산, 고출산)을 통합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함.
- 제3부에서는 기초지자체들의 저출산 대응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함.
 - 세부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조직, 인력, 예산, 법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됨.

제3절 연구 방법

-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생 통계를 이용하여 지역의 출산 수준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전국,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기초지자체별 합계출산율 분석
- 기초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연구진이 해당 기초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지역의 생태계 등을 관찰함.
 - 이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방문 목적(필요 시 문의사항 리스트 송부)을 이 해시키고, 방문 일자 등을 협의함.

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해당 기초지자체에서는 담당 과의 과장, 계장, 실무자 등이 인터뷰에 응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기간: 2016. 5. 30.~2016. 6. 10.

○ 조사 방법

- 시·군·구 저출산대책 담당자가 구조화된 설문지에 직접 응답 기입

○ 조사 응답

-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는 총 116개(응답률 51.3%)

- 자치구 35개 지역, 시(중소도시) 40개 지역, 군(농어촌) 41개 지역 등

〈표 1-1〉 기초지자체 조사 응답 현황

(단위: 개, %)

	전국	자치구	중소도시	군
조사 대상	226	75	82	69
회수 지자체	116	35	40	41
응답률	51.3	46.7	48.8	59.4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 2 장

지자체 출산 수준 기초분석

제1절 지역 간 출산 수준 차이

제2절 지역구분 내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

제3절 모니터링 대상 기초지자체 선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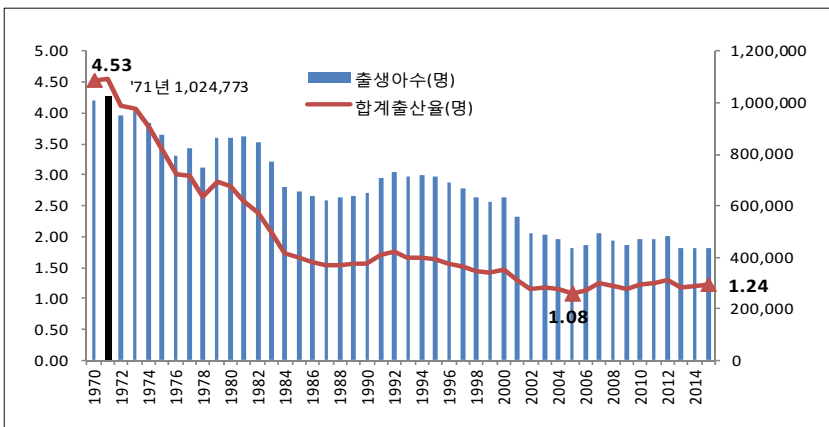
지자체 출산 수준 기초분석 <<

제1절 지역 간 출산 수준 차이

1. 지역별 합계출산율

- 전국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5명, 1983년 2.06명, 2005년 1.0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2015년 1.24명).
- 2001년 1.3명 미만으로 감소한 이래 최근까지 1.2명 내외 유지.
- 출생아수는 1971년 102만 4,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3만 5,031명으로 최저점에 도달.
- 2013년부터는 43만 명대에서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음.

[그림 2-1] 전국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197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 <http://kosis.kr>

□ 합계출산율은 농촌(이하에서는 광역시와 도의 ‘군’을 모두 포함한 지역을 의미함), 중소도시(이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사와 9개 도의 ‘시’¹⁾를 의미함), 대도시(이하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를 의미함)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을 기준으로 대도시 1.108명, 중소도시 1.343명, 농촌 1.493명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와 농촌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대도시와 농촌 간 합계출산율 차이는 0.385명인 반면, 중소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는 0.150명으로 줄어듦.

〈표 2-1〉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2015

(단위: 명)

	합계 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여성 1명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전국	1.239	0.001	0.013	0.063	0.117	0.048	0.006	0.000
대도시	1.108	0.001	0.009	0.049	0.108	0.048	0.006	0.000
중소도시	1.343	0.001	0.015	0.075	0.124	0.048	0.006	0.000
농촌	1.493	0.002	0.022	0.088	0.130	0.050	0.006	0.000

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지역별로 모의 연령별로 출생아수 합계와 주민등록여성인구 합계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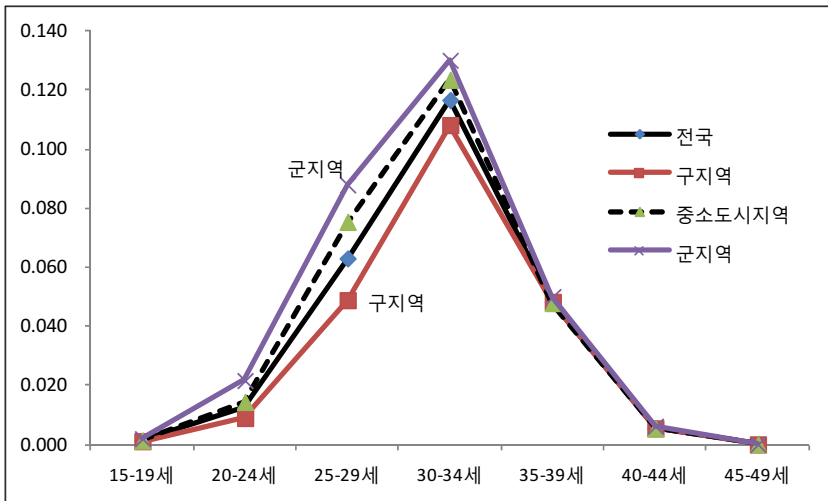
- 연령별 출산율 패턴은 지역 간 큰 차이 없이 30~34세, 25~29세, 35~39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30~34세, 25~29세, 20~24세의 출산율은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 간 차이는 30~34세 출산율보다 25~29세 출산율에서 상대적으로

1) 중소도시에는 도농통합시도 포함함.

더 크게 나타남.

- 대도시의 경우 30~34세와 25~29세 출산율 간 차이가 거의 없음.
- 15~19세, 35~39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지역 간 출산율 차이는 아주 미세하게 나타남.
- 결국, 지역 간 출산율 차이는 주로 30~34세와 25~29세 출산율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2-2] 지역별 연령별 출산율, 2015



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정(지역별로 모의 연령별로 출생아수 합계와 주민등록여성인구 합계를 이용하여 산출).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2.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평균

□ 전국 지자체(2015년 기준 229개)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33명으로 산정됨.

- 2015년 기준 군(농촌) 평균이 1.47명으로 시(중소도시) 평균(1.39명)과

1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자치구(대도시) 평균(1.13명)보다 각각 0.08명과 0.34명 높게 나타남.

- 군 평균과 구 평균 간 차이는 2000년 0.30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 0.43명을 정점으로 2015년 0.34명으로 감소함.
- 저출산 현상의 보편화로 지자체 간 차이가 좁혀지고 있음을 의미함.

〈표 2-2〉 기초지자체 합계출산율 평균

(단위: 개, 명)

	지자체수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국 수준	-	1.467	1.076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전국 평균	229	1.53	1.14	1.33	1.35	1.41	1.28	1.30	1.33
구 평균	69	1.33	0.96	1.09	1.11	1.17	1.07	1.10	1.13
시 평균	78	1.62	1.19	1.39	1.40	1.46	1.33	1.35	1.39
군 평균	82	1.63	1.28	1.52	1.54	1.59	1.45	1.46	1.47
차이(군-구)	-	0.30	0.32	0.43	0.43	0.42	0.38	0.36	0.34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이상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모두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평균도 군(농촌), 시(중소도시), 자치구(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 간 합계출산율 평균의 차이가 점차 좁혀져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결국 어느 지역에서도 출산 수준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자치구)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을 낮추는 데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

3. 출산순위별 비율

□ 기초지자체 구분별 출산 관련 지표들의 평균 수준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은 첫째아 49.5%, 둘째아 38.2%, 셋째아 이상 12.3%로 각각 나타남(전국 수준은 첫째아 52.3%, 둘째아 38.0%, 셋째아 이상 9.7%).
 - 첫째아의 경우, 구 평균 54.9%, 시 평균 49.0%, 군 평균 45.5% 등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둘째아 비율은 구 평균 36.7%, 시 평균 39.2%, 군 평균 38.3% 등 중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군, 구 순으로 나타남.
 - 셋째아 이상 비율은 구 평균 8.3%, 시 평균 11.8%, 군 평균 16.1% 등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남.
- 총인구 중 가임기 여성(15~49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이 21.9%(전국 수준은 25.1%)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 구분별로는 구 평균 25.5%, 시 평균 23.7%, 군 평균 17.1% 등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가임기 여성(15~49세) 중 25~29세 비율은 구 평균이 12.7%로 상대적으로 높고, 시 평균과 군 평균은 10%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30~34세 비율도 구 평균 15.1%, 시 평균 13.8%, 군 평균 1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및 가임여성 비율의 기초지자체 평균,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 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가임기(15~49세) 여성 중 비율		총인구 중 가임기 여성 (15~49세)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5~29세	30~34세	
전국 수준	-	52.3	38.0	9.7	11.7	14.5	25.1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11.3	13.9	21.9
구 평균	69	54.9	36.7	8.3	12.7	15.1	25.5
시 평균	78	49.0	39.2	11.8	10.6	13.8	23.7
군 평균	82	45.5	38.3	16.1	10.9	12.9	17.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제2절 지역구분 내 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

□ 전국 기초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전국 수준(1.24명)보다 낮은 지자체는 89개(38.9%)로 나타나며, 인구대체수준(2.1명) 이상인 지자체는 4개(1.7%)에 불과함.

-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18개(7.9%)이며, 1.0~1.1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32개(14.0%)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인 지자체는 55개(24.0%)로 나타남.
 - 1.8~2.0명 미만인 지자체는 9개(3.9%), 2.0명(2.1명) 이상인 지자체는 4개(1.7%)로 나타남.
- 기초지자체 간 출산 수준의 차이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분포가 다소 상이할지라도 유사하게 나타남.

〈표 2-4〉 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수준, 2015

합계출산율 (명)	대도시(자치구)		중소도시		군		전체(시·군·구)	
	개	%	개	%	개	%	개	%
1.0 미만	16	23.2	0	0.0	2	2.4	18	7.9
1.0~1.1 미만	24	34.8	3	3.8	5	6.1	32	14.0
1.1~1.24 미만	13	18.8	11	14.1	15	18.3	39	17.0
1.24~1.5 미만	13	18.8	50	64.1	22	26.8	85	37.1
1.5~1.8 미만	2	2.9	10	12.8	30	36.6	42	18.3
1.8~2.0 미만	1	1.4	4	5.1	4	4.9	9	3.9
2.0 이상	0	0.0	0	0.0	4	4.9	4	1.7
계	69	100.0	78	100.0	82	100.0	229	100.0

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대도시(자치구)에서 전국 합계출산율(1.24명)을 초과한 지자체는 16개(23.1%)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16개(23.2%)이며, 1.0~1.1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24개(34.8%)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이 1.5명 이상인 지자체는 3개(4.3%)에 불과하고, 2.0명 이상인 지자체는 없는 실정.

□ 중소도시의 경우, 전국 합계출산율(1.24명) 미만인 지자체는 14개(17.9%)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없으나, 1.0~1.1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3개(3.8%)로 나타남.
- 1.5명 이상인 지자체는 14개(17.9%)이나, 2.0명 이상인 지자체는 없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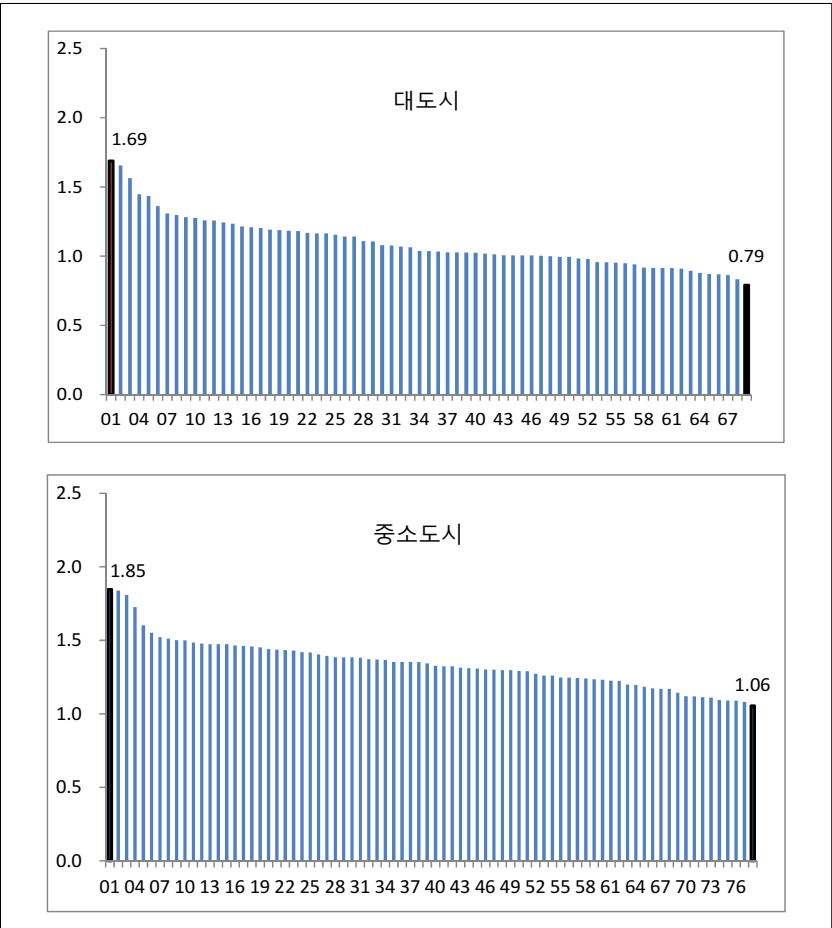
□ 군의 경우 전국 합계출산율(1.24)보다 낮은 군은 22개로 4분의 1(26.8%)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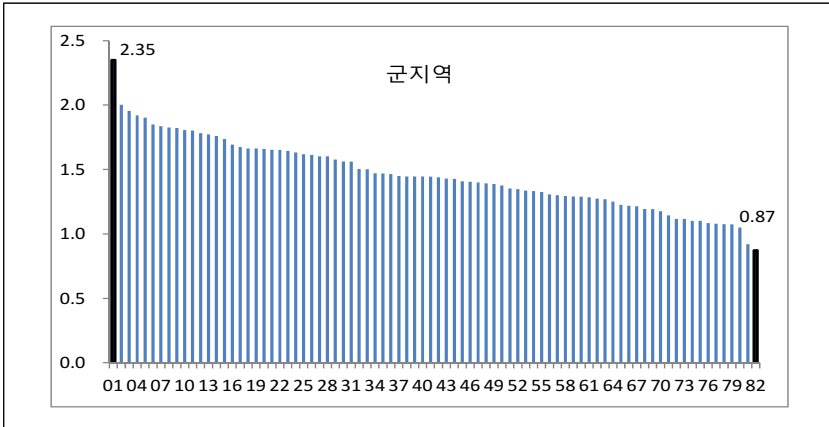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2개(2.4%)이며, 1.0~1.1명 미

- 만인 기초지자체는 5개(6.1%)로 나타남.
- 1.5명 이상인 지자체는 38개(46.4%)로 나타남.
 - 1.8~2.0명 미만인 지자체는 4개(4.9%), 2.0명(2.1명) 이상인 지자체는 4개(4.9%)로 나타남.

[그림 2-3] 지역 내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분포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015년 기준으로 각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 기초지자체들과 가장 높은 10개 기초지자체를 살펴본 결과, 최저 지자체와 최고 지자체 간 큰 차이가 나타남.

- 대도시의 경우 최저인 서울 종로구(0.813명)와 최고인 부산 강서구(1.982명) 간 차이가 1.169명으로 나타남.
 - 대도시 최고인 부산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은 중소도시 최고인 충청남도 당진시의 합계출산율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대도시 최고 지자체일지라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넘지 못하는 실정임.
- 중소도시의 경우 최저인 경기도 부천시(1.072명)와 최고인 충청남도 당진시(1.949명) 간 차이가 0.877명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 최고 지자체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을 넘지 못함.
 - 그러나 중소도시 최저 지자체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으로 나타남.
- 군의 경우 최저인 경상남도 합천군(0.980명)과 최고인 전라남도 해남군

(2.464명) 간 차이가 1.484명으로 나타남.

- 군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기초지자체가 2개(2.4%)이며, 1.0~1.1명 미만인 기초지자체도 5개(6.1%)로 나타남.
- 군 지역 내 최고 4위까지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상회.

〈표 2-5〉 지역별 합계출산율 최저 10위 및 최고 10위 기초지자체, 2015

(단위: 명)

지역	저출산 지역		고출산 지역	
	지자체	합계출산율	지자체	합계출산율
대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0.813	부산광역시 강서구	1.982
	서울특별시 관악구	0.833	울산광역시 북구	1.695
	서울특별시 강남구	0.857	울산광역시 동구	1.599
	부산광역시 영도구	0.899	대전광역시 유성구	1.463
	부산광역시 서구	0.899	광주광역시 광산구	1.427
	서울특별시 광진구	0.903	울산광역시 남구	1.3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0.913	인천광역시 서구	1.350
	서울특별시 강북구	0.922	대구광역시 북구	1.349
	부산광역시 중구	0.925	울산광역시 중구	1.327
	부산광역시 동구	0.929	인천광역시 동구	1.325
중소도시 (시)	경기도 부천시	1.072	충청남도 당진시	1.949
	경기도 하남시	1.076	경상남도 거제시	1.911
	경기도 과천시	1.099	세종특별자치시	1.893
	경기도 의정부시	1.104	전라남도 광양시	1.835
	충청남도 공주시	1.147	충청남도 서산시	1.752
	경기도 구리시	1.159	경기도 화성시	1.555
	경기도 성남시	1.159	충청남도 아산시	1.692
	경기도 고양시	1.161	전라남도 나주시	1.639
	경기도 안양시	1.177	경상북도 안동시	1.619
	강원도 춘천시	1.202	경상북도 문경시	1.571
농촌 (군)	경상남도 합천군	0.980	전라남도 해남군	2.464
	충청북도 괴산군	0.980	강원도 인제군	2.161
	경상북도 청도군	1.081	전라남도 영암군	2.107
	인천광역시 강화군	1.081	전라남도 장성군	2.101
	전라남도 고흥군	1.091	강원도 화천군	1.926
	강원도 영월군	1.092	전라남도 완도군	1.767
	강원도 정선군	1.097	경상남도 산청군	1.888
	강원도 평창군	1.120	충청북도 증평군	1.832
	충청남도 예산군	1.160	전라북도 진안군	1.821
	경상북도 울릉군	1.164	부산광역시 기장군	1.77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출산 수준은 전체 또는 평균 모두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나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이는 전체 통합적인 출산 수준이나 지자체의 평균 출산 수준을 통해 일률적으로 지역 간 출산 수준을 확정할 경우 개별 기초지자체의 출산 수준 및 그 원인을 간과할 수도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 내에서 출산율이 낮은 기초지자체와 높은 기초지자체들 간 비교의 관점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는 지역별 정책 실행에서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제3절 모니터링 대상 기초지자체 선정

□ 기본 원칙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별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최저 및 최고인 기초지자체들을 선정.

□ 선정 기준

-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의 특성과 개별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출산 수준(저, 고)의 6개 조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를 선정함.
- 6개 조합 각각에서 1개씩 기초지자체를 선정할 경우 지나치게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함.
- 광역지자체 간 안배 고려.
 - 동일한 시도 등 지리적인 특성 등이 유사한 기초지자체들이 동시에 선정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과거 순위, 시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함.

-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로 2015년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3~4개 기초지자체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3~4개 기초지자체를 각각 선정함.
- 일부 조합에서 고순위의 기초지자체들이 지나치게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3개 기초지자체만을 설정함.

□ 선정 결과

- 대도시(광역시 이상의 자치구)
 - 저출산 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 강남구, 부산 동구 포함.
 - 고출산 지역으로 부산 강서구, 울산 북구,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 포함.
- 중소도시(시)
 - 저출산 지역으로 경기 부천시, 경기 의정부시, 충남 공주시, 강원 춘천시 포함.
 - 경기도 하남시와 과천시 2~3위이나 모두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여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제외하고, 1위인 부천시(경기도 남부)와 4위인 의정부시(경기도 북부) 선정.
 - 저출산 6~9위 지역 모두 경기도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강원 춘천시(10위)를 분석 대상에 포함.
 - 고출산 지역으로 충남 당진시, 경남 거제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광양시 등 출산율이 가장 높은 1~4순위의 지자체를 선정.
- 농촌(군)
 - 저출산 지역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경남 합천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 포함.
 - 고출산 지역으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순으로 전남 해남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 선정.

제 2 부

기초지자체 출산 관련 모니터링

제 3 장

대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 대도시 지역

제2절 고출산 대도시 지역

3

대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

제1절 저출산 대도시 지역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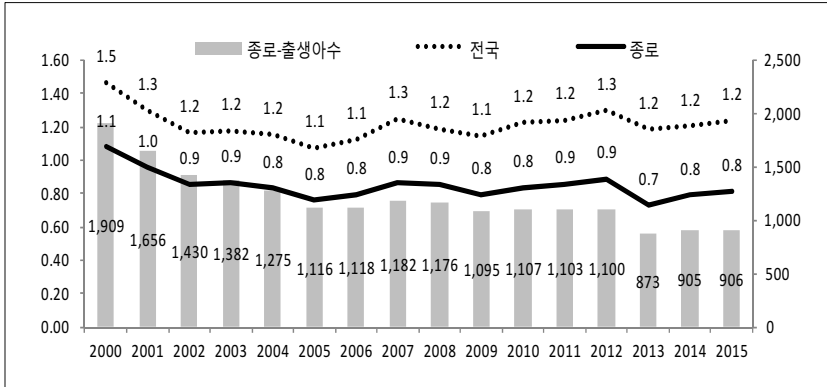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2015년 기준 5.3‰(전국 5.9‰)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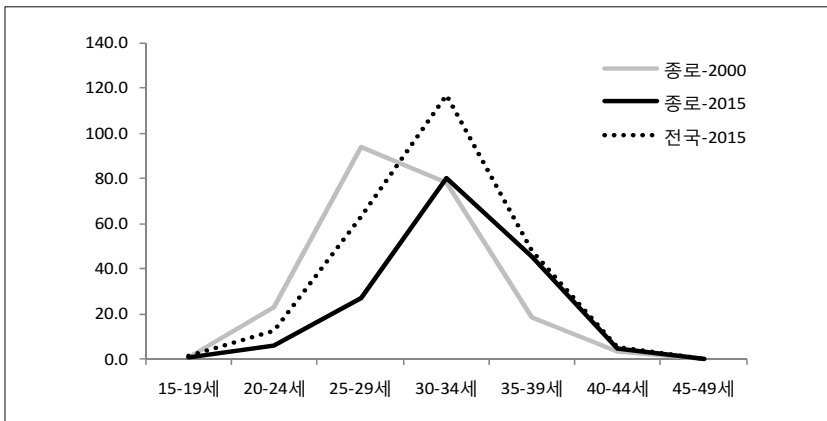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은 2015년 0.81명으로 대도시 자치구 중에서는 물론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의 추세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음.
 - 출생아수가 2013년 급격히 감소한 이래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25~29세 26.8(전국 기준 63.1), 30~34세 79.9(전국 기준 116.7)로 아주 낮은 수준(통계청, 2016b).
 - 25~29세에서 출산율이 아주 낮은 것은 동 연령대에서 미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30~34세의 낮은 출산율은 유배우율도 낮고 다출산 경향이 낮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림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그림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2000,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 비율은 6.8%로 전국 수준(9.7%),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자치구 평균(8.3%) 등에 비해 낮은 수준(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도 33.6%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자치구 평균(36.7%) 등에 비해 낮은 수준(통계청, 2016b).

〈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서울 종로구	-	59.6	33.6	6.8

주: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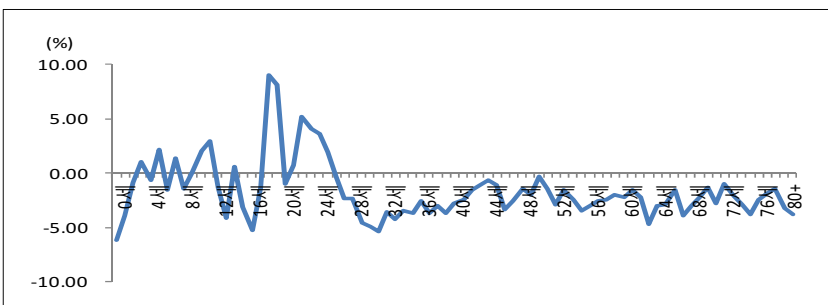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순이동 인구(전입자-전출자)는 마이너스(전입 초과 유출)이며, 순이동률은 -1.7%로 종로구를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c).
- 인구 유출이 상대적으로 큰 연령층은 20대 중반~40대 중반 가임기 인구로 나타남.

〈그림 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종로구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238.7로 높은 수준으로 인구공동화 현상이 우려됨(통계청, 2011).
- 타 지역의 인구들이 상업, 행정 등의 목적으로 주간에 활동을 하고, 야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8.1%로, 전국(3.4%)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은 외국인 근로자 21.5%, 재외동포 26.2%, 유학생 18.9%,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8.2% 등으로 정주 외국인보다 근로,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음.

〈표 3-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56,993	12,711	8.1	605	2,636	3,207	2,309	2,797	393	290	474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기준 15만 5,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인구증가율 -0.92%)(행정자치부, 2016b).
- 종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가 20만 명이 되지 않는 지역 중 하나이며, 두 번째로 총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에 해당함.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2015년 기준으로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은 감소 추세로 전국, 기초 지자체 평균, 자치구 평균 등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15~49세 여성 중 25~29세 비중은 전국,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
- 반면, 30~34세 여성 비중은 전국,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
- 2015년 25~29세 및 30~34세 여성의 기혼 비율은 10.0%와 39.7%로 전국이나 자치구 전체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e).

〈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단위: %)

구분	총인구 중 15~49세 비율	15~49세 중 비율			기혼 비율	
		25~29세	30~34세		25~29세	30~34세
전국 수준	25.1	11.7	14.5	전국	22.7	62.5
전국 평균	21.9	11.3	13.9	-	-	-
구 평균	25.5	12.7	15.1	자치구	18.1	47.9
서울 종로구	26.3	14.4	14.3	종로구	10.0	39.7

자료: 1) 여성 연령 구조는 통계청(2016d). 2015 주민등록연앙인구.

2) 결혼율은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편.

□ 인구고령화

-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기준 15.1%로 전국 수준(12.9%) 상회(통계청, 2016d)함.
- 중위연령은 42.5세로 서울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서울특별시, 2016)임.

□ 가구

- 주로 직업 요인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종로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서

울특별시, 2016).

- 반대로 1인 가구의 비율은 37.0%(서울시 기준 29.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임(서울특별시, 2016).
- 특히, 종로구의 경우 젊은 층에서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이나 서울특별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학교나 직장을 이유로 머무는 미혼 인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구주 연령별 1인 가구의 비율, 2015

	전체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27.2		91.9	79.3	63.0	36.2	23.3	19.5	17.8
서울시	29.5		95.0	82.3	71.1	45.2	29.0	22.7	18.8
종로구	37.0		95.4	84.6	76.6	57.1	37.7	28.0	24.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인구총조사-전수부문. <http://kosis.kr>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종로구의 총면적은 23.91km²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1번째로 넓은 지역임.²⁾
- 이들 중 상당한 면적은 산지(삼각산, 백악산, 인왕산, 낙산 등)가 차지하고, 문화유산, 주요 공공기관 및 여러 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실제 도심의 활동 면적은 6km²에 불과.³⁾
- 토지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토지 중 7.4%가 주거용, 10.8%는 영업용 그리고 81.8%가 비과세에 해당(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b).

2)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토지 및 기후 편. <http://stat.seoul.go.kr>에서 2016. 10. 9. 인출.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로 편. <http://encykorea.aks.ac.kr>에서 2016. 10. 9. 인출.

〈표 3-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토지 및 건물 용도 현황, 2016

(단위: 건수, 천m², %)

	토지			건물		
	건수	면적	구성비	건수	면적	구성비
계	125,311	23,909	100.0	93,591	20,665	100.0
주거용	47,334	1,785	7.4	48,873	6,118	29.6
영업용	52,882	2,573	10.8	40,221	9,944	48.1
비과세	25,095	19,551	81.8	4,497	4,603	22.3

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2016b). 2016년 구정현황. p.48.

- 종로구는 지하철 1, 3, 4, 5, 6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도심 중앙부라는 입지 여건으로 외곽 유출입 통행량이 많음.⁴⁾

□ 주택

-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9.5%, 아파트 21.9%, 다세대주택 17.2%, 연립주택 10.1% 등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아파트 비율은 낮고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의 비율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a).
- 주택보급률은 91.1%로 나타남.

〈표 3-6〉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단위: 가구, 호, %)

	일반 가구 수	전체	종류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다가구주택					
2014	60,684	55,275	27,355	17,654	9,486	12,113	5,592	729	91.1
비율	-	100.0	49.5	-	17.2	21.9	10.1	1.3	

자료: 서울특별시 종로구(2016a). 2016통계연보.

- 종로구 가구의 43.1%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아파트 19.8%, 다세대주택 17.4% 등의 순(통계청, 2016e).

4) 종로구청 홈페이지. 구정정보-중장기 기본계획.

<http://www.jongno.go.kr/Main.do?menuId=388342&menuNo=388342>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8.3%(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종로구								
가구	61,580	56,440	26,512	12,219	5,057	10,708	1,944	5,140
구성비	100.0	91.7	43.1	19.8	8.2	17.4	3.2	8.3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 돈의동 일대와 동대문 인근 창신동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함.⁵⁾
- 종로구민의 종로구 거주 이유(중복 응답)는 ‘옛날부터 살아와서(32.7%)’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업상 또는 직장 때문에(29.7%)’, ‘교통이 편리해서(23.4%)’ 등의 순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종로구, 2012).

□ 산업 및 직업

- 종로구 관내 사업체는 4만 923개, 여기에 총 24만 5,69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⁶⁾
- 300인 이상 기업은 92개에 불과하나 이들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8만 1,55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3.2%를 차지함.
-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72.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자영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15.7%, 임시 및 일용근로자 9.0%, 기타 종사자가 3.3% 등으로 나타남.

5) 종로구청 홈페이지. 구정정보-증장기 기본계획.

<http://www.jongno.go.kr/Main.do?menuId=388342&menuNo=388342>

6)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population-change>

-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73.5%, 여성이 53.7%로 나타남(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 소득 수준

- 2012년 기준 종로구 구민의 소득 분포를 보면, 300만~400만 원 미만이 28.0%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00만~500만 원 미만(21.3%), 200만~300만 원 미만(19.1%)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500만 원 이상의 가구 소득이 있는 비율은 15.2%로 나타남(서울특별시 종로구, 2012).

□ 인프라

- 관내에 대학교 3개, 전문대학 2개가 있음(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a).
 - 대학(교)는 미혼층의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마. 정책적 요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등으로 구분됨.
 - 출산장려금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셋째아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5년간 10년 보장으로 지원하고 있음.
 - 사회환경 조성(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종로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실시

〈표 3-8〉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 둘째 이상 모든 출생자녀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둘째아 50만 원 - 셋째아 이상 100만 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 셋째 이상 모든 출생자녀 *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 2016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부모(10개월 미거주 시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지원)	- 보험료 5년간 지원, 10년간 보장(*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보장내역: 재해(상해), 질병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수술비, 위로금 등
종로 가족사랑 어울림 한마당	종로구민, 다문화가족 등 일반시민	- 2015. 9. 19.(토) 11:00~16:00 - 종로 대학로 대명거리 - 출산장려 캠페인, 가족애 체험마당, 본행사(모두가족봉사단, MVP, 외부공연팀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일부 내용은 종로구청. 출산장려지원. <http://www.jongno.go.kr>에서 참고함.

바. 함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도심지역으로서 면적의 대부분을 문화유산, 공공기관, 대학, 상업지역 등이 차지하고, 주택가 등 생활 활동의 면적은 넓지 않음.

□ 총인구 중 15~49세 여성의 비중이 높고, 이들 중 25~29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관내 대학교들이 소재하여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인구가 많고, 대기업 사업체가 많은 등 직장 등을 이유로 젊은 층이 유입한 데 기인함.

- 이들의 경우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이나 서울특별시 전체에 비해서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젊은 층의 비중이 높는데 이들의 기혼 비율이 낮고, 20대 후반~30대

연령층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종로구의 경우 학교나 직장을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며 거주하나, 이후 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임.
- 예로 젊은 부부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많지 않고 일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신규로 젊은 층이 유입하여 정주하거나 기존의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기에 부족함.
 - * 종로구민 중 78.1%가 향후 10년 후에도 종로구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비율은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리고 고학력계층으로 갈수록 낮게 나타남(서울특별시 종로구, 2012).
- 종로구의 지리적 특성상 면적의 대부분이 관광지이거나 사업체, 상업시설로 활용되어 생활을 위한 활동 면적이 좁은 것도 정주 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종로구의 주간인구지수가 매우 높은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결과 종로구의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 수준이 높고 출산 수준도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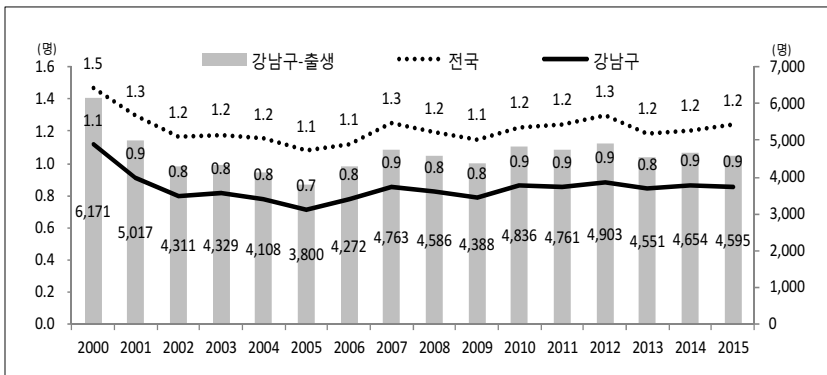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5.9%으로 전국(5.9%)과 동일(통계청, 2016a).
-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28세, 여성 31.13세로 전국(남성 32.57세, 여성 29.96세)에 비해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 6,171명에서 2005년 3,800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5년에는 4,600명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0.86명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의 추세는 2000년 이래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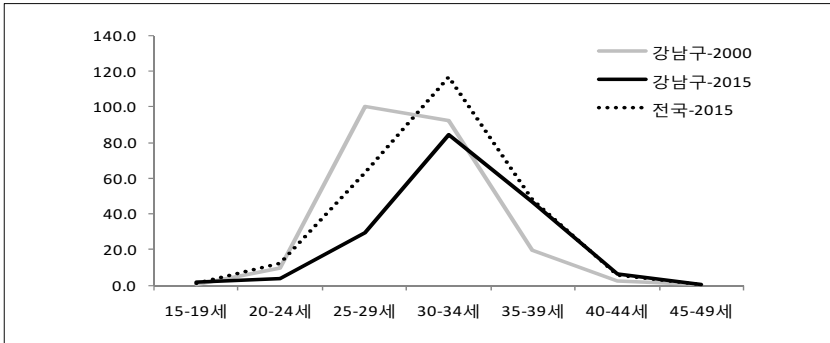
[그림 3-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29.5(전국 기준 63.1), 30~34세 84.6(전국 기준 116.7)으로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6.5%로 전국 수준(9.7%),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자치구 평균(8.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도 33.5%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자치구 평균(36.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림 3-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표 3-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서울 강남구	-	60.0	33.5	6.5

주: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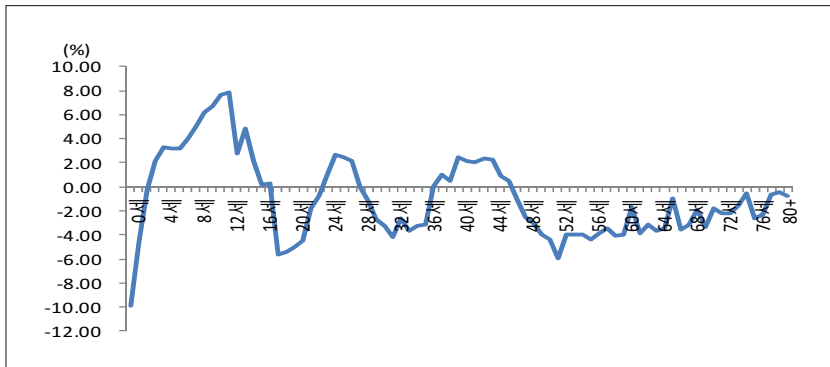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학령기, 20대 중반, 30대 후반~40대 전반 등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있는 반면, 10대 후반~20대 초반, 20대 후반~30대 중반, 40대 후반~60대에 서는 순유출로 전환
- 자녀교육을 위하여 어린 자녀(고등학교까지)와 그 부모(30대 후반~40대 전반) 세대가 순유입하나, 자녀교육이 완료된 후에는 자녀세대(10대 후반~20대 초반)와 부모 세대(40대 후반 이상)가 유출하기 때문임.

- 20대 중반은 직업으로 인해 순유입을 하나, 주된 결혼 계층인 20대 후반~30대 중반은 주택 가격 부담 등으로 순유출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 3-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강남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83.9로 나타나, 상주하는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1).

〈표 3-10〉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상주(야간)·주간 인구(12세 이상), 2010

(단위: 명, %)

	상주 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 인구	주간인구 지수
		계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인구	517,933	556,006	531,342	24,664	121,329	96,639	24,690	952,610	18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강남구(2015a).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2%(전국 3.4%)로 높지 않은 수준임(행자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는 제외)은 외국국적 동포 51.2%, 외국인 근로자 20.4%,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 8.9%로 구성되어 있음(행자부, 2016a).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2015년 기준 총인구는 57만 6,000명이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대체 적으로 200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전체 인구 중 15~49세 여성의 비중(30.1%) 및 이들 중 25~29세(13.8%)와 30~34세 비중(16.8%)은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기혼 비율은 25~29세 여성 11.9%, 30~34세 여성 41.6%로 전국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e).

□ 인구고령화

-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10.0%(전국 12.9%)로 고령화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통계청, 2016d).
- 중위연령은 39.6세로 나타남(서울특별시, 2016).

□ 가구

- 2015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49명이고, 1인 가구의 비율은 29.3%로 서울시 평균(29.5%) 수준에 해당(서울특별시, 2016).
- 주로 결혼(순유출)과 자녀 교육(순유입, 순유출) 등을 이유로 이동을 함으로써 평균 가구원 수가 아주 적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됨.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강남구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으로 남부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직교상의 넓은 가로망이 발달되어 있음(두산백과).
- 전체 면적의 68.1%가 평탄한 지역임(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b).

□ 교육 수준

- 강남구민 중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전국이나 서울특별시에 비해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1).
 - 특히 30대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 및 직업

- 강남구민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6%, 사무종사자 22.4%, 판매종사자 11.8%, 서비스종사자 10.7% 등의 순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1).

□ 소득 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5년 기준 500만~1,000만 원 미만이 38.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0만~400만 원 미만 20.2%, 400만~500만 원 미만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남(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 주택

- 2014년 기준 주택 유형은 아파트 61.9%, 단독주택 25.5%, 다세대주택 8.9%, 연립주택 3.1%, 비거주용 내 주택 0.7% 등으로 아파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a).

- 가구의 거주 유형은 아파트가 59.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19.0%), 다세대주택(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5.5%(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1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거주 유형,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강남구								
가구	211,357	199,724	40,201	126,293	5,433	22,909	4,888	11,633
구성비	100.0	94.5	19.0	59.8	2.6	10.8	2.3	5.5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부문(전수).

-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34.0%, 전세 33.7%, 월세 31.3%, 무상 1.1% 등의 순으로 전·월세 비율이 65%에 달함(통계청, 2011).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6년 9월 기준 1,254만 원,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49만 원으로 높은 매우 수준임(국민은행, 2016).

마. 정책적 요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구분됨.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 보육료(어린이집) 차액 지원, 손주 돌보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하고 있음.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4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임신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임신부 건강관리, 출산준비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3-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출산양육 지원금	- (대상아)둘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 (거주요건)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 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둘째 자녀 50만 원 - 셋째 100만 원 - 넷째 이상 300만 원
보육료 (어린이집) 차액지원	- 강남구 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 용하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3~5세반 유아	- 강남구 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하 는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차액 지원(만 3세: 43,000원/만 4~5세: 33,000원)
손주 돌보미 지원	- 막내가 3~15개월인 두 자녀 이상의 맞벌이 가정	- 막내가 만 3~15개월인 두 자녀 이 상의 맞벌이 가정의 손주를 직접 돌 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월 최대 24 만 원 활동지원금 지급
임산부 건강관리	- 임신부(풍진 및 기형아검사는 강남 구민만 해당)	- 예비부부 건강검진 : 풍진 및 B형간 염 등 24개 항목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선 검사 - 임신부 산전건강관리 : 임신부 등록 관리 및 모성검사, 취약계층 임신부 영양제 지급
출산준비 교실운영	- 관내 임신부, 남편, 예비 할머니 등	- 정상분만 과정 이해, 라마즈분만법 과 순산체조, 모유수유, 산후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 등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일부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gangnam.go.kr>에서 참고함.

바. 함의

-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지역으로 좋은 학군으로 유
명하고 주택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음.

- 높은 주택 가격은 관내 주민이나 근로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도 정주가 어렵고, 외부에서도 신혼부부의 유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가구)는 대부분 교육기 자녀를 둔 가구로 출산이 거의 완료되는 고연령층이어서 추가 출산을 기대하기 곤란함.
 - * 높은 전·월세 비율은 교육, 직업 등을 목적으로 전입한 인구(가구)가 많은 것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 실로 강남구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취업 시기인 20대 중반, 자녀 교육기인 30대 후반~40대 초반과 3~15세 인구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나, 주된 결혼층인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20대 후반~30대 전반의 순유출에 더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연령대는 기혼 비율이 낮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강남구에서 결혼하여 정주하면서 출산하는 데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한편, 강남구민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높고 가구소득 수준도 높은 실정.
 - 일-가정양립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구민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결혼 및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출산을 기피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임.
 - 여기에 더해 고학력층,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자 등의 비율이 높은 특성도 만혼 및 소자녀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실제 강남구의 둘째아 이상 추가 출산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3. 부산광역시 동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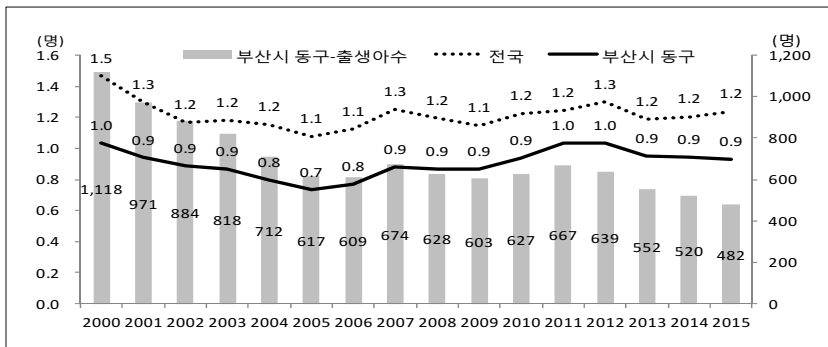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4.6%(전국 5.9%)으로 낮고,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4세, 여성 31.1세로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11년 이래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82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0.929명으로 1명 미만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2000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

[그림 3-7] 부산광역시 동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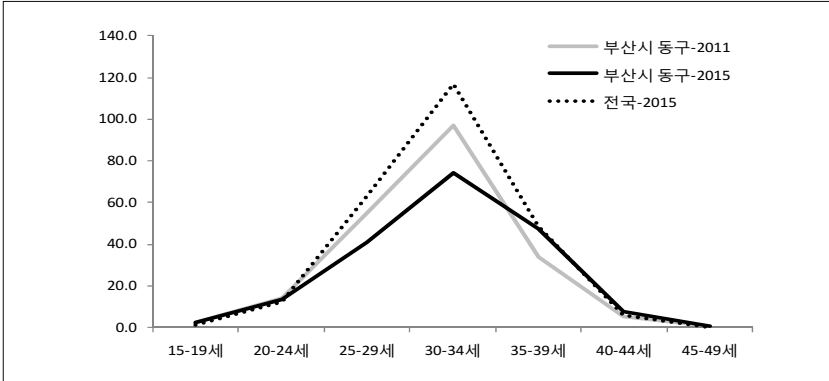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연령별 출산율은 25~29세 41.0(전국 63.1), 30~34세 74.4(전국 116.7), 35~39세 47.2(전국 48.3) 등으로 출산율이 낮은 수준임(통

계청, 2016b).

[그림 3-8]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별 출산율 변동 추이, 2011,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전체 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0.6%로 전국 수준(9.7%), 자치구 평균(8.3%) 등에 비해 높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서는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34.4%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자치구 평균(36.7%)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3-13〉 부산광역시 동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부산 동구	-	55.0	34.4	10.6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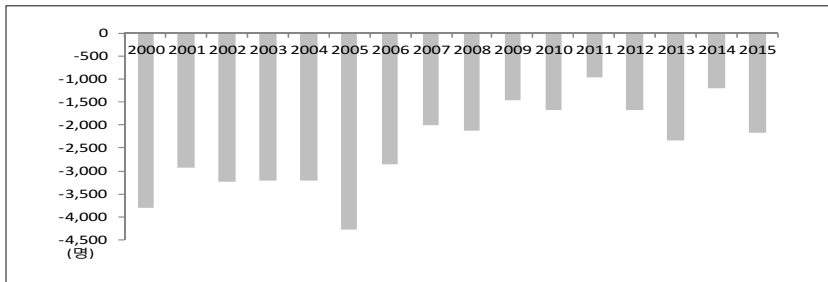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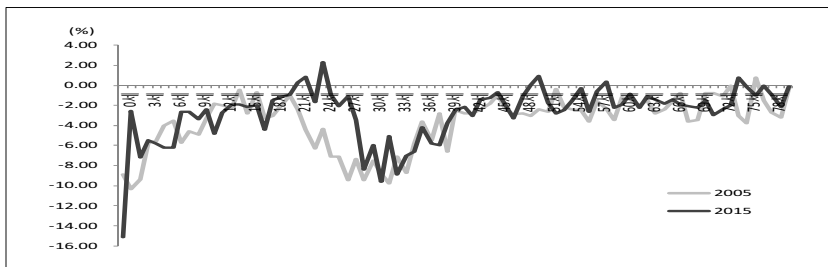
- 동구로 유입하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 매년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순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거의 전 연령대에서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 특히 핵심 가임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30대 중반에서 유출 규모가 큼.
-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핵심 가임계층에서의 유출 규모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

[그림 3-9] 부산광역시 동구의 순이동 인구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그림 3-10]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4%(전국 3.4%)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높지 않음(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는 제외) 중 외국인 근로자는 25.7%,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는 21.5%를 차지하고 있음.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부산광역시 동구의 인구는 과거 1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12년 9만 8,000명 수준으로 감소한 뒤 매년 2만 명 정도씩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총인구는 9만 2,000명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0.5%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3.0%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4.3%로 전국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14.6%, 30~34세 40.4%로 전국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기준 21.0%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함(통계청, 2016d).

□ 가구

- 동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8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14.8%로 전국(10.8%)보다는 다소 높고, 2세대 가구(부부+자녀 등)의 비율은 56.5%로 전국(64.1%)에 비해 낮은 수준(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동구는 부산의 중심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세가 해안을 끼고 있는 배산 임해의 지형을 형성하며 대부분 경사 지대임.⁷⁾
 - 산지의 과다와 좁은 평지로 구성되어 가용 면적이 제한적이어서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등 대부분의 주거지가 수정산과 구봉산의 산기슭 등 고지대에 형성.⁸⁾
- 토지의 용도는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녹지 26.7%, 주거 21.7%, 상업 21.6%, 미지정 15.3%, 공업 14.7% 등의 순임.⁹⁾
- 최근 북항 재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의 도시개발계획을 추진 중임(부산광역시 동구, 2015).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15년), 북항 재개발, 도시재생선도사업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는 2014년 기준 1만 4,311개이며 총 7만 1,335명의 근로자

7)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개-일반현황-위치. www.bsdongguo.go.kr

8)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개-일반현황-지형. www.bsdongguo.go.kr

9)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동구소개-일반현황-지형. www.bsdongguo.go.kr

가 종사하고 있음(부산광역시 동구, 2015).

- 종사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18개이며, 이들 직장에 약 8,500명이 종사하고 있음(부산광역시 동구, 2015).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39.4%를 차지함(부산광역시 동구, 2015).

□ 소득 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가구주)은 100만 원 미만 34.7%, 100만~200만 원 미만 24.4%, 200만~300만 원 미만 16.6%, 300만~400만 원 미만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부산광역시 동구, 2016).

□ 주택

- 동구의 경우 625전쟁을 전후로 한 피난민의 임시 주거지가 주거 지역으로 정착되었고, 유입된 인구의 무분별한 정착 등으로 주된 주거 지역은 대지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부산광역시 동구, 2006).
-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65.6%가 단독주택(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59.4%), 아파트 20.8%, 다세대주택 9.7% 등으로 구성됨(부산광역시 동구, 2015).
- 이는 주거 지역이 수정산·구봉산의 경사지에 입지하여 재개발 등 아파트 개발 사업이 어렵고, 개발이 용이한 평지에는 대부분 향만, 철도, 상업시설 등이 입주하여 주거지로서의 이용이 낮기 때문임.
- 동구 가구의 58.9%가 단독주택에, 그다음으로 아파트 21.5%, 다세대주택 10.0% 등의 순으로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처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5.1%(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14〉 부산광역시 동구의 거처 유형, 2015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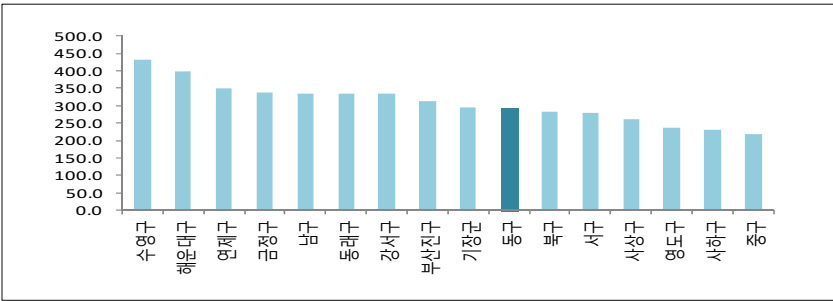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동구								
가구	37,865	35,920	22,302	8,127	893	3,769	829	1,945
구성비	100.0	94.9	58.9	21.5	2.4	10.0	2.2	5.1

자료: 통계청(2016f).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전수).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93만 3,000원으로 부산 지역 내 중
간 수준에 해당(국민은행, 2016).

[그림 3-11] 부산광역시 기초지자체의 아파트 매매가격, 2016년 9월 기준

(단위: 만 원)



자료: 국민은행. (월간)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2016년 9월 기준).

마. 정책적 요소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으로는 보
건의료사업,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지역사회 분위기 조
성 사업 등으로 구분됨.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모아건강 플러스사업, 모유수유 클리닉, 임산부 건

강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둘째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는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구민합동 전통결혼식, 출산가정 방문 가사 서비스 지원, 다자녀 행복마을 조성 우대제 협약사업, 다자녀 모범가정상 시상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3-15〉 부산광역시 동구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정책명	대상	내용
구민합동 전통결혼식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 전통혼례식, 신혼여행(5쌍)
모아건강 플러스사업	가임여성	- 무료 임신반응검사
	신혼여성 및 임신 초기 여성	- 무료 산전검사 및 임신 초기 검사, 빈혈검사
	임신부	- 12주 이내의 임신부에게 12주까지 엽산제 지원(최대 2개월분) - 16주 이후의 임신부에게 40주까지 철분제 지원(최대 5개월분)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 3개월 이내 여성	-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임산부 건강교실	임신부	- 2015년 5, 10월 - 영재태교, 모유수유 교육, 임산부 체조,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산후우울증 교육 등 출산축하선물 제공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동구 1개월 전 주소)	- 10만 원씩 12회(시 지원), 20만 원씩 10회(구 지원)
둘째 출산지원금	둘째 출생아 가정(동구 1개월 전 주소)	- 20만 원 1회(시 지원), 20만 원 1회(구 지원)
셋째 이후 출산축하선물	셋째 출생아 가정(동구 1개월 전 주소)	- 미역, 기저귀
출산가정 방문 가사서비스 지원	출산가정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가정 방문 청소, 빨래 등 가사서비스 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등 병원, 보건소 동행 건강관리 지원 등
다자녀 행복마을 조성 우대제 협약사업	다자녀 가정	- 출산축하선물(기저귀, 미역) 지원 - 저소득 다자녀가정 선정 월 5만 원씩 1년간 지원(2가정) - 저소득 다자녀가정 선정 상품권 지급(4가정)
다자녀 모범가정상 시상	다자녀가정	- 추천일 현재 동구에 2년 이상 거주자로서 모범이 되는 화목한 가정에 상패 수여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일부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출산장려정책, <http://woman.bsdonggu.go.kr>에서 참고함.

바. 합의

-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 도심 지역으로서 지세가 해안을 끼는 배산 임해의 지형을 형성하며 대부분 경사지대로 가용 면적이 제한적임.
 - 대부분의 주거지(단독주택 중심)가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이 집단화되어 있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비해 주택 가격은 저렴하지 않은 실정임.
- 구 도심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가 미흡하여 젊은 층이 결혼하여 정주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음.
 - 실제 동구 주민은 젊은 층의 결혼을 통한 정주보다는 오래 전에 출산이 완료된 중장년 이상 연령계층의 비중이 높은 편임.
 - 30대와 이들의 자녀세대로서 영유아의 유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활발
 - 거주하고 있는 젊은 층의 경우에도 기혼 비율이 다소 낮음.

제2절 고출산 대도시 지역

1. 부산광역시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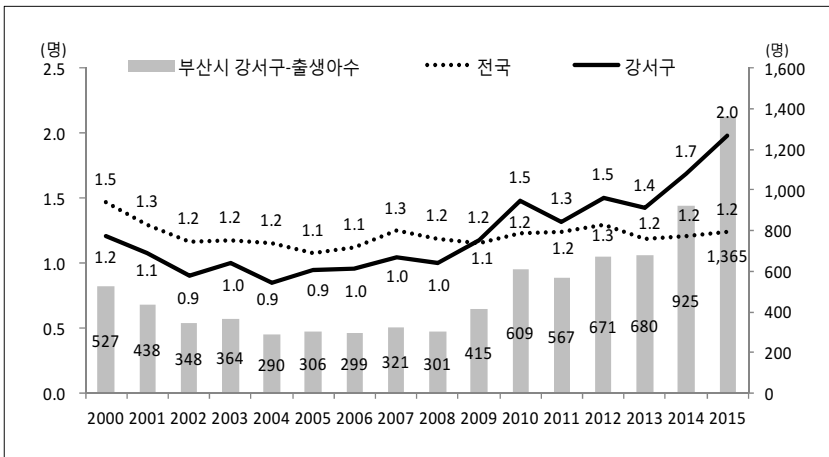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8.1%로 전국 수준(5.9%)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합계출산율은 1.98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근접함(통계청, 2016b).
 - 2004년 0.85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명에 근접함.
 - 특히, 2013년 1.2명에서 2014년 1.7명, 2015년 2.0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함.
- * 이는 부산 강서구가 2013년 아파트 건립이 크게 증가한 시기와도 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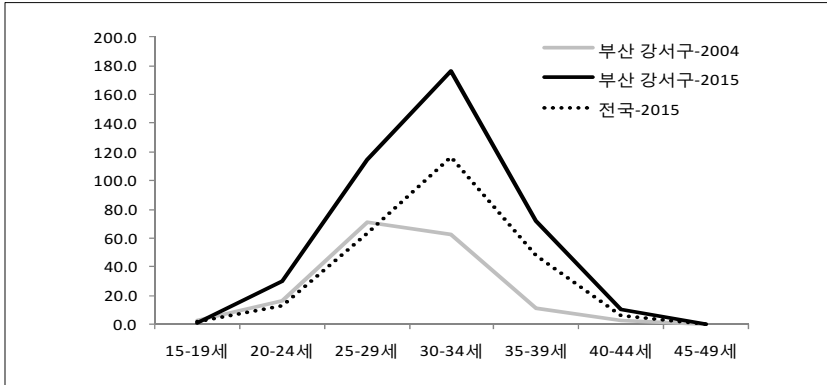
[그림 3-12] 부산광역시 강서구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이 114.9로 전국 수준(63.1)보다 높고, 30~34세 출산율(176.1)도 전국 수준(116.7)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b).

[그림 3-1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연령별 출산율,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7.9%로 전국 수준(9.7%),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자치구 평균(8.3%) 등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임 (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37.9%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에 비해 다소 낮으나, 자치구 평균(3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경우 다출산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젊은 층에서의 결혼과 출산이 활발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출산율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16〉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및 가임 여성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부산 강서구	-	54.2	37.9	7.9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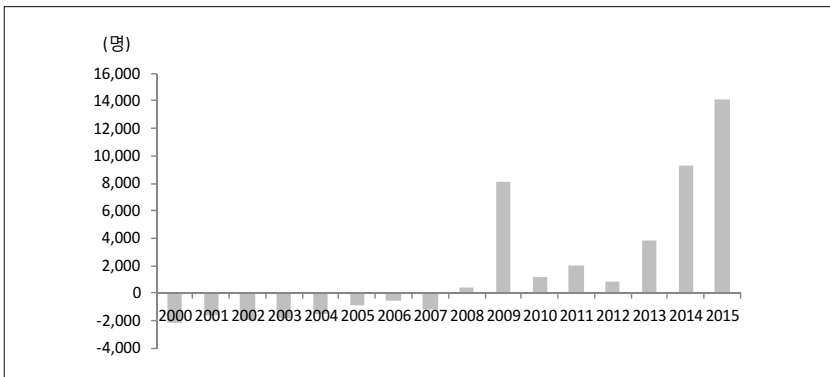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지는 강서구로 유입하는 인구보다 유출하는 인구가 많았으나, 2008년부터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순유입 인구 규모는 빠르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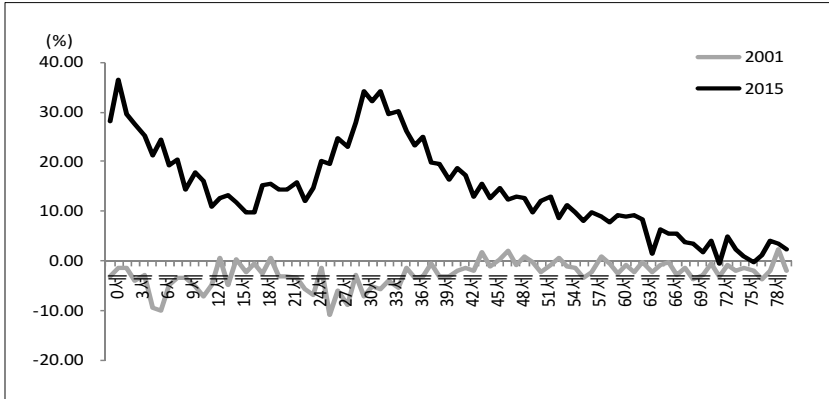
[그림 3-1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2001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유입보다 유출인구가 많았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최근 20대 중반~30대 중반 가임계층과 이들의 자녀세대(영유아 인구)의 순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1,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외국인 주민은 강서구 주민의 7.9%로 전국 수준(3.4%)보다 높게 나타남 (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83.8%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5.6%로 나타남.
 - 산업단지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와 혼인 및 귀화자는 전체 주민의 0.4%로 나타남.

〈표 3-17〉 부산광역시 강서구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79,619	6,281	7.9	212	5,001	354	12	252	121	15	314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부산시 강서구의 총인구는 2005년만 하더라도 5만 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2~3년간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기준 9만 4,000명임(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2.4%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2.3%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으나,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는 낮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21.7%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42.4%, 30~34세 80.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2.5%로 인구구조는 비교적 젊은 편(전국 12.9%)에 속함(통계청, 2016d).

□ 가구

- 강서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전국(2.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1인 가구는 23.6%로 전국(27.2%)에 비해 낮은 수준(통계청, 2016e).
 - 1인 가구의 51.4%는 50세 이상의 연령층으로 구성됨.

* 이는 부산 강서구가 농촌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임.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강서구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기장군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연결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부산광역시 강서구청, 2015b).
- 또한 신항만, 경제자유구역,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계된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부산광역시 강서구청, 2015b).

□ 주택

- 산업단지 인근의 명지동과 녹산동 지역에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음.

〈표 3-18〉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연도별 아파트 건립 규모, 2009~2014

(단위: 동, 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94	94	102	146	217	303
가구 수	5,783	5,783	6,744	7,785	10,972	16,922

자료: 부산광역시 강서구(2015). 2015년 강서구 통계 연보.

- 주택은 아파트가 53.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 45.2%로 나타났다.

〈표 3-19〉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단위: 호, %)

	전체	종류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4	31,814	14,381	5,100	89	16,922	130	292	152
비율	100.0	45.2	-	0.3	53.2	0.4	0.9	

자료: 부산광역시 강서구(2015a). 2015년 강서구 통계 연보.

- 강서구 가구의 절반(52.1%)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41.6%는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4.4%(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2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강서구								
가구	32,797	31,352	13,649	17,095	65	152	391	1,445
구성비	100.0	95.6	41.6	52.1	0.2	0.5	1.2	4.4

자료: 통계청(2016f).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전수)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3만 1,000원으로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함(국민은행, 2016).

□ 산업 및 직업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기업체는 총 3,382개가 있으며 근로자는 5만 4,432명(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b)

〈표 3-2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2014

(단위: 개, 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남	여
2014	12,852	107,978	81,659	26,319

자료: 부산광역시 강서구(2015b). 2015 구정백서.

- 강서구는 부산 최대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부산항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가덕도 종합개발 등 개발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음(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a).

〈표 3-2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 산업단지 구성, 2014

(단위: 개, %)

	면적	2014년 입주업체	2014년 가동업체	가동률
계	18,105천m ²	2,214	1,992	87.6
녹산국가산업단지	6,972천m ²	1,396	1,308	93.7
신호일반산업단지	3,121천m ²	77	74	96.1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1,996천m ²	179	170	95.0
화전일반산업단지	2,448천m ²	305	295	96.7
미음일반산업단지	3,598천m ²	257	145	56.4

자료: 부산광역시 강서구(2015a). 2015 구정백서. p.250.

□ 소득 수준

-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25.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00만~300만 원 미만 18.5%, 100만~200만 원 미만 15.5%, 300만~400만 원 미만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부산광역시 강서구, 2016).
- 500만 원 이상의 가구는 전체의 15.1%로 나타남.

마. 정책적 요소

□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출산지원금을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거주 조건 충족 시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그 외 건강 관련 사업들 시행 중

- 출산준비교실 및 이유식 교육, 출생아 건강보험 등 보건의사업 실시
- 출산용품(브라운 체온계) 지원

〈표 3-23〉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출산축하용품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 3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내의, 짚구베개, 속싸개)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12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	- 셋째 20만 원, 넷째 30만 원, 다섯째 이상은 50만 원 지원
모유수유활성화 사업(유축기대여)	- 출산한 관내 주민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하여 모유수유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2개월간 유축기 대여
태아 기형아 검사	- 임신 16~18주 임산부	- 임신 중 태아의 기형아 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출산 유도하고 기형아 출산을 감소하기 위하여 기형아 검사 실시
혼인 전 건강검진 및 임신 전후 풍진검사	- 출산 준비하는 여성	-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혼인 전 건강검진과 임신 전후의 풍진검사 실시
임신성 당뇨병검사	- 임신 24~28주의 임산부	- 임산부의 적절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신 24~28주의 임산부 대상으로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최근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일자리가 풍부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특성을 가짐.
 - 명지, 녹산동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택 가격도 부산 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임.
- 이러한 지역 개발로 인하여 젊은 층의 유입이 증가하여 결혼과 출산이 보다 활발해짐.
 - 실제 순유입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입은 거의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후반~30대 젊은 층과 영유아 인구(이는 지역의 추가 출산 정도가 높아질 것임을 시사)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인구의 기혼율이 높고, 1인 가구도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한편, 다자녀 출산 비율은 낮은 편이나, 이는 출산이 진행 중인 젊은 층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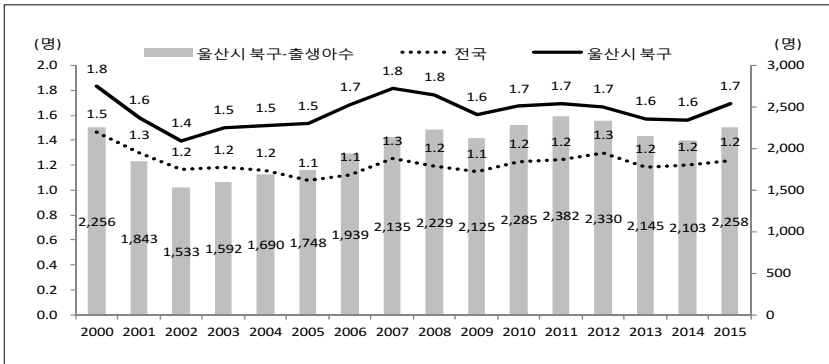
2. 울산광역시 북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6.6%으로 전국(5.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합계출산율은 1.7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통계청, 2016b).

- 최근에는 1.6~1.7명 사이에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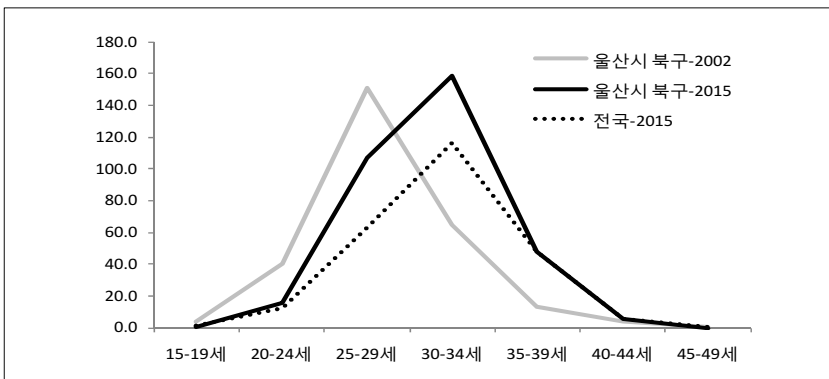
[그림 3-16] 울산광역시 북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산율은 25~29세, 30~34세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5~29세 출산율은 107.0(전국 63.1), 30~34세 출산율은 158.3(전국 116.7)로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통계청, 2016b).

[그림 3-17] 울산광역시 북구의 연령별 출산율, 2002,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8.9%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낮으나, 자치구 평균(8.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42.0%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자치구 평균(3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24〉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울산 북구	-	49.1	42.0	8.9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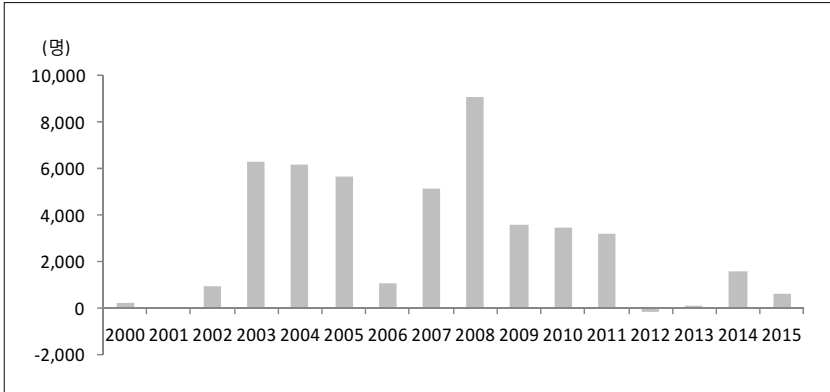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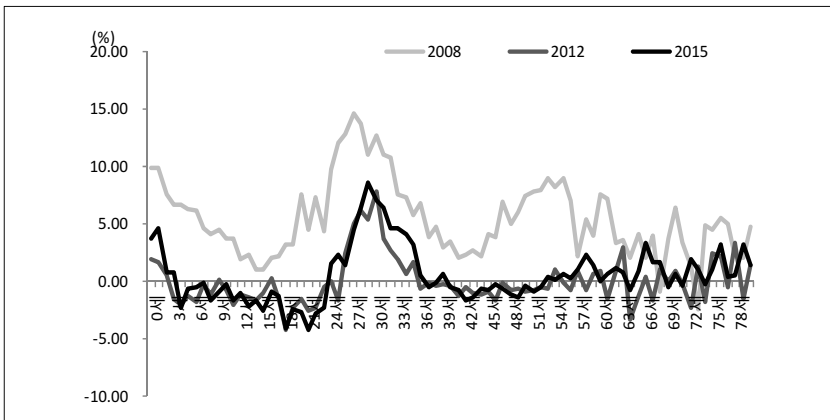
-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유입되는 인구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음.
-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30대 초반 핵심 가임층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동률이 감소하고 있음.
 - 이들 연령층의 이동은 자녀 세대가 되는 영유아 인구의 유입도 동반하는데, 과거에는 영유아기, 학령기 아동 전체에서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영아기에서 일부 순유입이 있을 뿐 유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3-18] 울산광역시 북구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그림 3-19] 울산광역시 북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8, 2012,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유입자 중 31.5%는 타 시·도에서 유입(울산시 북구청, 2016a)

〈표 3-25〉 울산광역시 북구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북구)	전출지별 인구이동 (북구→타 시·도)	순이동
계	27,115	25,574	+
서울	696	811	-
부산	1,605	1,479	+
대구	718	536	+
인천	164	146	+
광주	67	61	+
대전	135	102	+
울산	18,587	17,832	+
세종	10	42	-
경기	737	783	-
강원	171	124	+
충북	175	126	+
충남	228	233	-
전북	230	264	-
전남	110	110	0
경북	2,187	1,815	+
경남	1,231	1,049	+
제주	64	61	+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청(2016a). 2015년 통계연보.

□ 국제 이동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2%(전국 평균 3.4%)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행정자치부, 2016a).
- 관내에 산업단지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49.1%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의 경우 24.9%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결혼이민자와 혼인 및 귀화자는 전체 주민의 0.4%로 나타남.

〈표 3-26〉 울산광역시 북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88,733	4,099	2.2	440	1,594	372	5	420	370	46	852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19만 1,000명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b).
- 도심의 배후 지역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대규모 아파트 준공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 지역의 새로운 베드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울산광역시 북구,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중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7.4%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9.3%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4.5%로 전국과 기초지자체에 비해서는 높으나,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5.0%, 30~34세 82.8%로 전국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2%(전국 수준 12.9%)로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었음(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전국(2.5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18.3%(전국 27.2%)이며, 이들의 60%

는 가임기 연령층에 해당(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북구는 동천을 주변으로 신흥 개발되는 광역 배후도시로서 편리한 교통 환경과 도농의 요소가 잘 조화된 풍요롭고 쾌적한 주거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울산광역시 북구, 2016b).
- 북구는 주거, 공단, 해양관광지의 3개 권역으로 분리된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울산광역시 북구, 2016b).
 - 효문공단과 신개발공단지역인 달천농공단지는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 단지로 조성되었음.
 - 양정·염포 지역의 미포국가공업단지 내에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 등 대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음.
 - 강동 지역은 해안 자연경관과 잘 조화된 관광휴양, 해양공원도시가 형성되어 있음.

□ 주택

- 울산광역시 북구에는 2010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이루어져 왔음.
 - 매곡동은 신흥주거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울산시 북구, 2016b).
 - 송정동도 송정택지개발을 추진 중이며, 인구 2만 명의 미니시티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임.¹⁰⁾

10) 경상일보(2017. 1. 12.). 송정지구 개교 지연으로 통학대란 불가피. 사회면.

〈표 3-27〉 울산광역시 북구의 아파트 건립 동향, 2009~2014

(단위: 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	24	537	538	562	40
가구 수	-	2,035	44,251	44,251	45,243	3,984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16a). 2015년 통계연보.

- 주택 유형으로는 아파트가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다가구주택이 19.6%를 차지.

〈표 3-28〉 울산광역시 북구의 주택 유형, 2014

(단위: 호, %)

	전체	종류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014	66,531	4,841	13,061	46,587	701	1,341	100.1
비율	100.0	7.3	19.6	70.0	1.1	2.0	

자료: 울산광역시 북구(2016a). 2015년 통계연보.

- 북구 가구의 71.9%는 아파트에, 22.7%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2%(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29〉 울산광역시 북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북구								
가구	64,037	63,275	14,516	46,039	397	1,593	730	762
구성비	100.0	98.8	22.7	71.9	0.6	2.5	1.1	1.2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82만 4,000원으로 중구(324만 9,000원), 남구(353만 1,000원), 동구(319만 5,000원)에 비해서 낮은 편(국민은행, 2016).

□ 산업 및 직업

- 2014년 기준 관내 사업체는 1만 315개이며, 종사자는 8만 9,199명으로 나타남(울산광역시 북구, 2016a).
 - 종사자의 30.2%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산업 및 농공단지는 4개가 있으며, 입주업체는 242개이며 가동업체는 181개, 종업원은 5,641명임(울산광역시 북구, 2016a).

마. 정책적 요소

- 지자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표 3-30〉 울산광역시 북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거주 - 장애인가정 1~6급	- 출생 후 1~2급 100만 원, 3~4급 80만 원, 5~6급 60만 원 1회 지급
출산장려금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울산광역시 북구는 관내에 대기업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흥 개발지역으로서 공단, 주거지, 관광지 등이 들어서고 있음.
 - 택지 개발 등으로 강동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증가하였으며,

농소 지역은 인접한 경주 외동 지역 산업단지의 주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¹¹⁾

- 신규 아파트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하고 있음.

- 젊은 층 중 결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지역 혼인율이 아주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혼인 후 가족 단위로 직장이나 주거를 이유로 관내에 유입하는 인구가 많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3분의 1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소득이나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혼·출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실제 울산광역시 북구의 25~29세와 30~34세 출산으로 전체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출산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은 이제 출산이 시작된 젊은 층의 유입이 많기 때문일 것임.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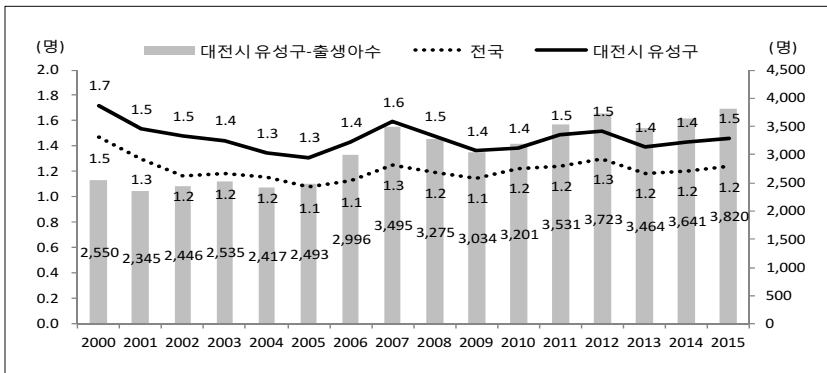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6.9%으로 전국 수준(5.9%)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a).

11) 경상일보(2016. 9. 28.).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한다: 인구·직장의 교외화, 울주군·북구 등 부도심 육성해야. 경성기획특집.

□ 출산 동향

- 합계출산율은 1.46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그러나 출생아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3,800명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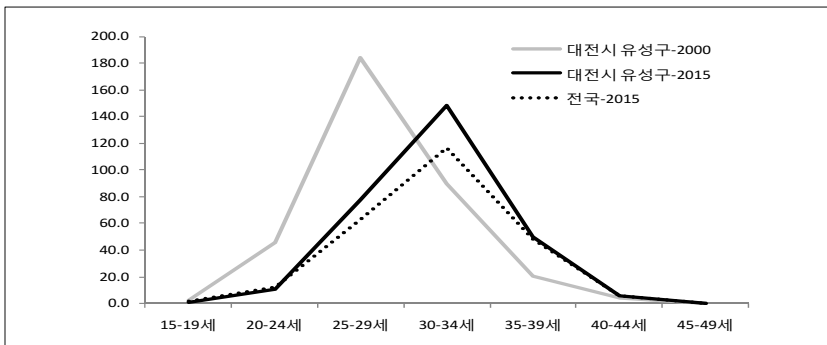
[그림 3-2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77.6(전국 기준 63.1), 30~34세 출산율은 148.4 (116.7)로 전국 기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통계청, 2016b).

[그림 3-2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9.6%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낮으나, 자치구 평균(8.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38.2%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에 유사하며, 자치구 평균(3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3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대전 유성구	-	52.2	38.2	9.6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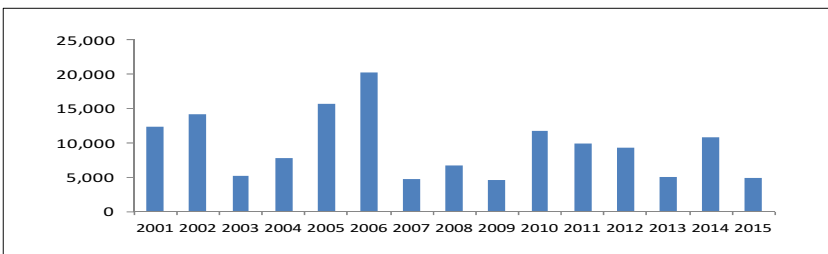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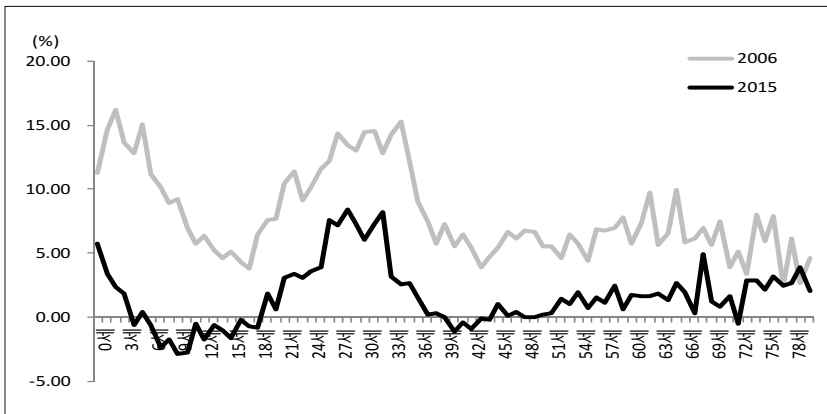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경우 2000년 이래 순이동률은 정(+)의 방향으로 유출하는 인구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음.

[그림 3-22]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별 순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연령대에서만 유출이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고, 특히 20~35대 중반 연령층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다만, 이러한 핵심 가임 계층의 유입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영유아 연령층의 유입 규모도 감소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림 3-23] 대전광역시 유성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6,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유성구 주민의 2.3%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3.4%)에 비해 낮은 수준(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의 40.7%는 유학생이며, 그 외 외국인 근로자 16.7%,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1.6% 등으로 구성됨.

- 유성구 내 연구단지 등의 영향으로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
- 결혼이민자와 혼인 및 귀화자는 전체 주민의 0.2%로 나타남.

〈표 3-3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327,461	7,451	2.3	589	1,110	956	2,483	1,100	179	219	815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33만 5,00명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7.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5.1%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높으나, 자치구 평균과는 동일.
- 기혼 비율은 25~29세 26.8%, 30~34세 72.2%로 전국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7.0%(전국 12.9%)(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으로 전국(2.5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9.5%로 전국(27.2%)에 비해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유성구는 도농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그린벨트가 63.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관광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관광도시에 속함(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 전체 토지 중 농경지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함.
- 1973년 5월 시작된 대덕연구단지가 2004년 12월 2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음(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 2011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확정됨(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 주택

- 유성구의 경우 2002년 노은1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2~4지구사업도 개발하였고 그 외에도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학하덕명지구, 도안지구 등에서 도시개발사업들이 진행되었음.
-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건설되었거나 건설할 계획에 있음.
-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66.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29.8%)등으로 나타남.

〈표 3-3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주택 유형, 2016년 6월

(단위: 호, %)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호	132,371	39,488	88,348	1,160	3,375
구성비	100.0	29.8	66.7	0.9	2.5

주: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대전광역시 유성구(2016). 대전 살아있는 유성구 통계 도시분야편.

- 유성구 가구의 거처는 아파트 64.8%, 단독주택 27.4% 순(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3.3%(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3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유성구								
가구	126,231	122,056	34,621	81,818	1,332	2,534	1,751	4,175
구성비	100.0	96.7	27.4	64.8	1.1	2.0	1.4	3.3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유성구의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6만 7,000원으로 대전광역시 내에서 가장 높음(국민은행, 2016).
- 동구 226만 1,000원, 중구 232만만 원, 서구 264만 5,000원, 대덕구 218만 5,000원

□ 교육

- 유성구의 경우 전국이나 대전광역시 다른 구에 비해서 대학(교) 졸업 이 상자의 비율이나, 석·박사(졸업, 재학, 수료, 중퇴 포함)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는 2만 308개이며, 종사자 수는 13만 9,248명임(대전시 유성구청, 2016).
- 종사자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19.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제조업(13.6%), 교육서비스업(12.0%), 도매 및 소매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 근로자들의 71.2%는 상용근로자이며, 그다음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1%, 자영업자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 기타

- 유성구 관내에는 3군 통합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인 자운대가 있음.
- 자운대 지역에는 육군 소속 부대와 국방부 직할 부대 등 17개 부대가 위치하고 있으며,¹²⁾ 군인아파트,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유성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등 일부 경제적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12) 大田투데이(2016. 2. 1.). 자운대 17개 부대 대상 통합 근무지원 부대 탄생.

〈표 3-3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출산 대책, 2015

정책명	대상	정책 내용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사업	출생신고 현재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유아용 손자수 턱받이 + 손싸개, 다용도 손자수 겹싸개 지원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신생아의 모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1회)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5만 원을 출산 이후 12개월간 지급
꿈나무 사랑카드	12세 이하 3자녀 이상 가정	물품구매, 시설 이용 시 할인 등 혜택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도농 복합지역이면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군부대 시설도 위치하고 있는 등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연구개발특구, 군부대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 이들의 거주와 관련, 2002년 노은1지구 택지개발 사업 이후, 2~4지구 개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학하덕명지구, 도안지구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생아수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율은 과거보다 낮은 1.4~1.5명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산율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나 절대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 젊은 층이 집중되고 이들 중 결혼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으나, 출산율이 그만큼 높지 않은 것은 유성구민들의 학력 수준이나 직종(전문직)을 고려할 때, 기회비용 및 자녀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농촌 및 군부대의 영향으로 다출산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체 출산율을 현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4.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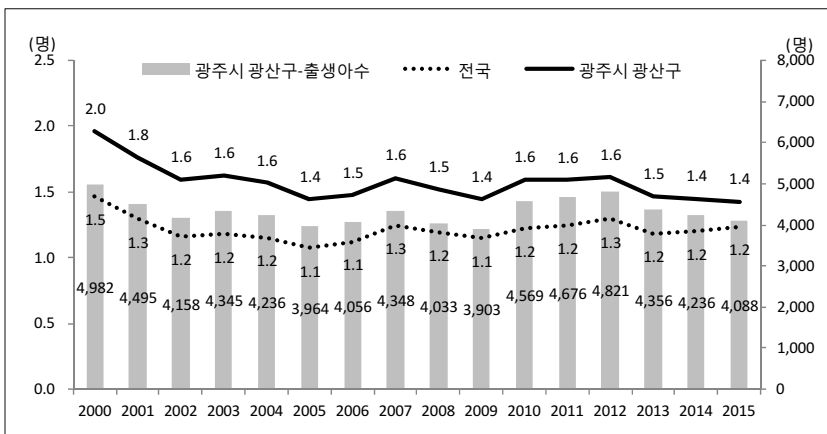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5.9%로 전국 수준(5.9%)과 동일하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합계출산율은 1.427명으로 구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나,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통계청, 2016b).
- 출생아수는 5,000명 수준에서 최근 4,000명 수준까지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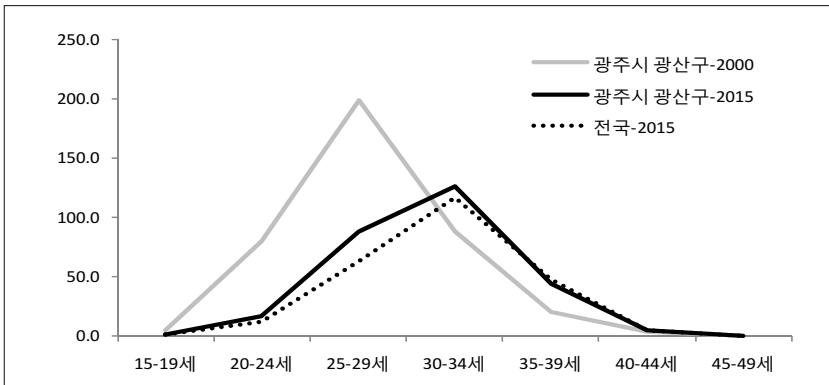
[그림 3-2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88.0(전국 기준 63.1), 30~34세 출산율은 126.9(116.7)로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통계청, 2016b).

[그림 3-25]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연령별 출산율,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2.5%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자치구 평균(8.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40.3%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자치구 평균(36.7%)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36〉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구 평균	69	54.9	36.7	8.3
광주 광산구	-	47.2	40.3	12.5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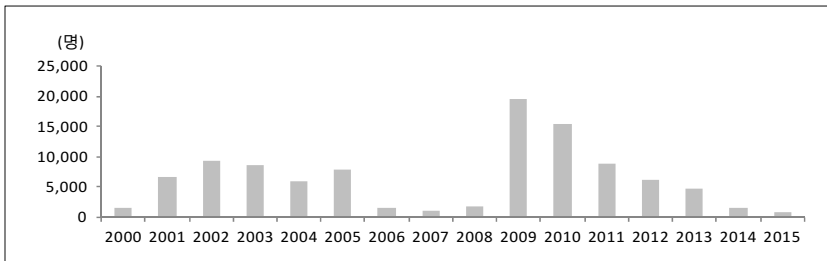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인구는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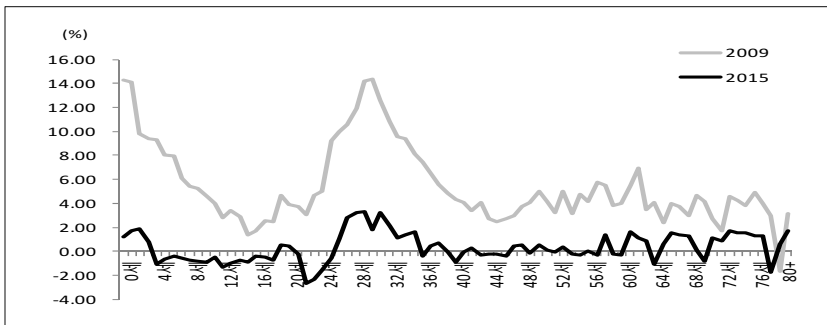
[그림 3-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령별 순이동자 규모,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연령별로는 20~30대와 이들의 자녀 세대인 영유아의 유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발한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음.

[그림 3-27]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령별 순이동률, 2009,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광산구는 지리학적으로 전라남도 함평군, 장성군, 나주시와 인접하여 있는데, 광주광역시를 제외하면 전라남도에서의 순유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광산구)	전출지별 인구이동 (광산구→타 시·도)	순이동
계	65,151	63,543	+
서울	2,140	2,350	-
부산	446	383	+
대구	289	194	+
인천	635	559	+
광주	44,224	42,553	+
대전	331	447	-
울산	119	139	-
세종	61	193	-
경기	3,058	3,539	-
강원	244	305	-
충북	248	258	-
충남	529	606	-
전북	1,877	1,653	+
전남	10,069	9,319	+
경북	290	309	-
경남	424	471	-
제주	167	265	-

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2015). 제25회 광산구 통계연보.

□ 국제 이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3.2%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3.4%)에 유사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의 49.9%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그 외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19.0%, 유학생 1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 산업단지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많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이 남아 있

어 결혼 이주여성도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와 혼인 및 귀화자는 전체 주민의 0.5% 수준으로 나타남.

〈표 3-38〉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397,281	12,712	3.2	1,165	5,370	1,001	1,102	1,135	879	114	1,946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40만 명을 상회함(행정자치부, 2016b).
- 첨단과학산업단지, 신가운남수완지역 택지 개발에 따라 본격적 입주시기였던 2000년 말 인구에 비해 27% 증가하였고, 수완지구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인구증가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¹³⁾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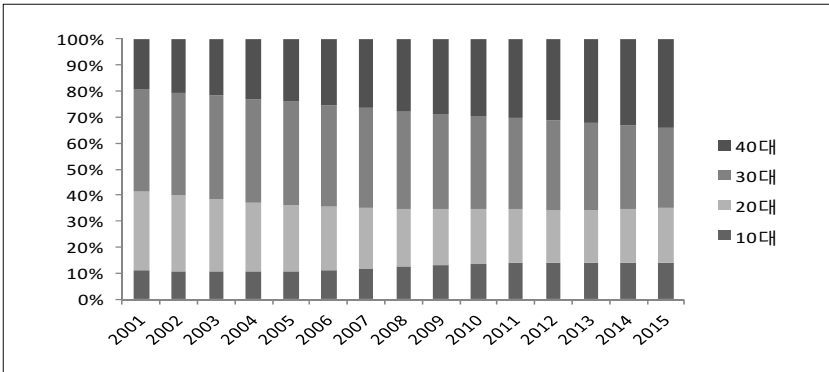
- 젊은 층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광산구의 평균 연령은 32.8세로 전국에서도 제일 젊은 도시에 해당됨(통계청, 2016d).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8.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9.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

1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 광산구소개-주요구정-장기종합발전계획.
<http://www.gwangsan.go.kr>

균에 비해 낮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4.0%로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하며, 전국이나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3.5%, 30~34세 73.7%로 전국 및 자치구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가임기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40대 고연령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과거 광산구에 거주하였던 가임기 여성이 계속 머무르는 반면, 신규로 유입하는 가임기 여성의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임. 즉, 광산구의 경우 가임기 여성의 고령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음.

[그림 3-28]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임기 여성의 연령 분포, 2001~201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5년 기준 7.6%(전국 12.9%)로 광산구 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음(통계청, 2016d).

□ 가구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5.5%로 전국(27.2%)에 비해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전국 수준(2.5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광산구는 당초 전라남도 관할 광산군이었으나, 1988년 1월 광주광역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구로 됨.
 - 전형적으로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공단, 기업 유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현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광산구의 전체 면적은 광주광역시의 44.5%로 넓은 수준이나, 이 중 55.9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 개발이 제한됨.¹⁴⁾
 - 광산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농촌 지역이며,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광주광역시 광산구, 2014).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산업단지가 5개 정도(소촌일반, 소촌농공, 평동1·2·3차, 하남, 빛그린 내년 예정)인데 이는 광주시 산업단지의 42%에 해당(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14)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 광산구소개-주요구정-장기종합발전계획.
<http://www.gwangsan.go.kr>

- 하남, 소촌, 소촌농공, 평동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1,4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여 자동차전자부품, 섬유·화학제품, 타이어, 식료품, 가죽 제품 등 생산.
- 구 내 사업체는 2014년 기준 2만 5,608개이며 종사자는 14만 1,713명으로 나타남(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 사업체 구성비는 도소매업(25.4%), 숙박·음식점업(16.7%), 제조업(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영세업체(1~4명)가 78.9%, 소규모업체(5~99명) 20.6%, 중규모업체(100~299명) 0.4%,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가 0.1%를 차지하고 있음(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 종사자들의 26.6%는 1~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21.5%는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남성은 71.0%, 여성은 50.4%로 나타남(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 주택

- 광산구 내 수안지구의 경우 명품도시를 내세워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짐.
-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높게 설정되어 있음.
- 최근에는 평동 2, 3차 산업단지 인근 선운지구에 택지 개발이 시작.
-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가 71.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다가구주택 18.1%, 단독주택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남(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표 3-39〉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주택 유형, 2014

(단위: 호, %)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구성	154,296	15,429	27,954	109,968	567	378	103
비율	100.0	10.0	18.1	71.3	0.4	0.2	

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2015). 제25회 통계연보.

- 광산구 가구의 72.7%는 아파트, 23.8%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5%(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3-40〉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구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광산구								
가구	144,574	142,475	34,352	105,091	1,617	409	1,006	2,099
구성비	100.0	98.5	23.8	72.7	1.1	0.3	0.7	1.5

자료: 통계청(2016f).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전수).

□ 교육

- 관내에 대학(교)이 3개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주요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출산장려금은 광주시 5개 구에서 제일 많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유소년 인구가 시·군·구 중 많은 편에 속함.
 - 이에 저출산대책보다는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음.

〈표 3-4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저출산 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사업명	대상	내용
출산축하금	- 광산구에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세대 - 출생아 부모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생아수에 관계없이 지급	- 둘째아 10만 원 - 셋째아 이상 50만 원 - 쌍둥이 50만 원 - 세 쌍둥이 이상 100만 원 - 여성 장애인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출생아수에 관계없이 중증(1~3급) 100만 원, 경증(4급 이상) 50만 원
출산장려금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 셋째아 20만 원 - 넷째아 100만 원 - 다섯째아 300만 원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	- 시에 거주하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70%이하 세대로서 24개월 이하 둘째아 이상	- 병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급여 부분) •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제도'에 의해 본인 부담 환급금 수령 세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받은 세대 등 정부 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 - 2년간 100만 원(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 원, 그 후 1년간 50만 원 한도)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일부 내용은 광산구청, <http://www.gwangsan.go.kr>에서 참고함.

바. 함의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전라남도 농촌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로부터 인구의 순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규모 산업단지(광주광역시 전체 산업단지의 42%)가 조성되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그 영향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그 결과 광산구에는 젊은 층 인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낮은 결혼율과 낮은 1인 가구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광산구로의 유입은 젊은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9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 젊은 부부들의 증가로 합계출산율(2015년 기준 1.427명)이 대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출산 경향도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제 4 장

중소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 중소도시 지역

제2절 고출산 중소도시 지역

4

중소도시 출산 관련 모니터링 <<

제1절 저출산 중소도시 지역

1. 경기도 부천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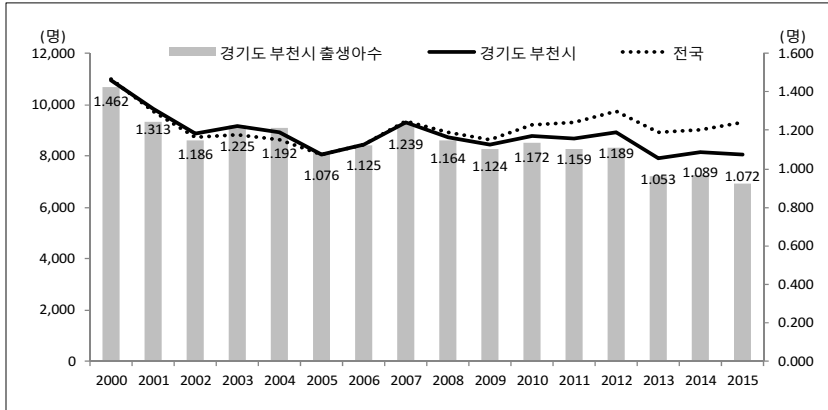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5.9%로 전국 평균 수준(5.9%)와 동일하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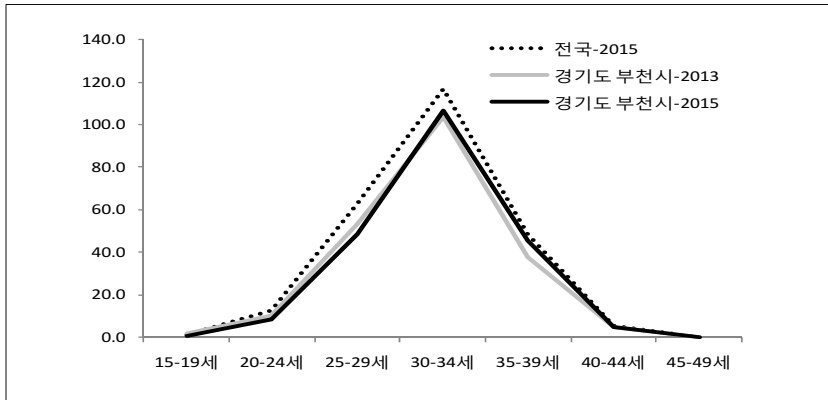
- 출생아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년에는 1,053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함.
- 합계출산율은 1.072명으로 중소도시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2001년 이래 1.2~1.3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 수록 전국 수준과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음.
- 25~29세 출산율은 48.6(전국 63.1), 30~34세 출산율은 106.7(전국 116.7)로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그림 4-1] 경기도 부천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그림 4-2] 경기도 부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3,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7.2%로 전국 수준(9.7%), 중소도시 평균(11.8%) 및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둘째아 비율도 37.1%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38.2%) 및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4-1〉 경기도 부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경기 부천시	-	55.7	37.1	7.2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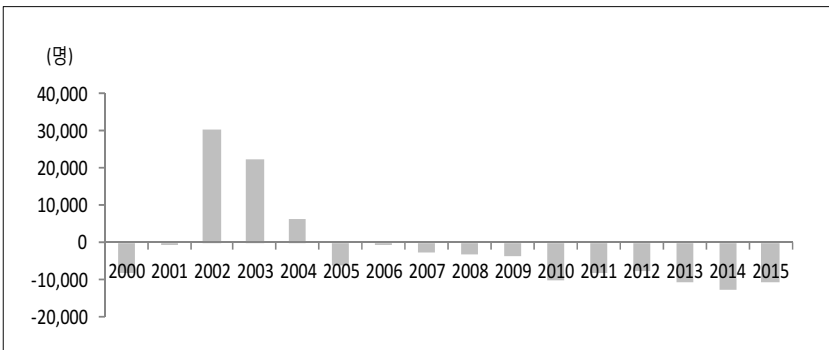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2002~2004년을 제외하고는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은 약 1만 명 정도가 매년 빠져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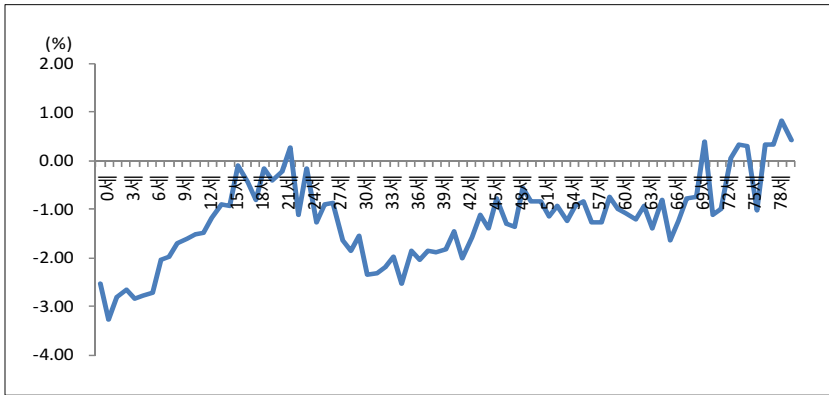
[그림 4-3] 경기도 부천시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일부 고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영유아, 초등학교 재학 아동과 가임기 전 계층에 걸쳐 보다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림 4-4] 경기도 부천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유출자 중 61.0%는 경기도 내 다른 자치구로 이동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로 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천시 주민의 경기도 내 이동 관계를 살펴보면, 상당수(74.6%)는 시내 이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김포시(4.4%), 시흥시(3.0%), 고양시(2.4%), 수원시(2.0%)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a).

〈표 4-2〉 경기도 부천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단위: 명)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부천시)	전출지별 인구이동 (부천시→타 시·도)	순이동
계	117,954	130,320	-
서울	20,097	17,757	+
부산	719	836	-
대구	514	519	-
인천	13,326	19,201	-
광주	541	641	-
대전	692	833	-
울산	285	403	-
세종	103	469	-
경기	73,868	79,450	-
강원	1,207	1,519	-
충북	873	1,335	-
충남	1,660	2,379	-
전북	1,049	1,169	-
전남	1,047	1,254	-
경북	843	1,064	-
경남	773	893	-
제주	357	598	-

자료: 경기도 부천시(2016a). 2015년 기본통계.

〈표 4-3〉 경기도 부천시의 경기도 내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단위: 명, %)

	계	시내	김포시	시흥시	고양시	수원시
이동인구	79,450	59,245	3,529	2,370	1,880	1,571
비율	-	74.6	4.4	3.0	2.4	2.0

자료: 경기도 부천시(2016a). 2015년 기본통계.

□ 국제 이동

- 부천시 주민 중 4.0%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3.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 중 33.9%는 외국인 근로자, 16.3%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4-4〉 경기도 부천시외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855,586	34,207	4.0	2,987	10,334	6,759	358	5,448	1,991	2,619	3,711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 인구 규모

- 부천시 총인구는 2015년 기준 84만 9,000명으로 2010년 이래 감소하고 있음.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6.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3.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4.7%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17.3%, 30~34세 48.3%로 전국과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표 4-5〉 경기도 부천시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단위: %)

구분	총인구 중 15~49세 비율	15~49세 중 비율		기혼 비율		
		25~29세	30~34세		25~29세	30~34세
전국 수준	25.1	11.7	14.5	전국	22.7	62.5
전국 평균	21.9	11.3	13.9	-	-	-
중소도시 평균	23.7	10.6	13.8	중소도시	26.5	57.8
경기 부천시	26.9	13.1	14.7	부천시	17.3	48.3

자료: 1) 여성 연령 구조는 통계청(2016d). 2015 주민등록연앙인구

2) 결혼율은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편.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9.7%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전국 수준 12.8%), 노인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전국(2.5명)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3.3%(전국 27.2%)이며, 이들의 절반은 가임기 연령층에 해당(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중상동 신시가지의 성공적인 개발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짐(경기도 부천시, 2016b).
- 부천시 동쪽은 서울특별시, 서측 및 북측은 인천광역시와 접하고 있음.
- 부천시 면적의 31.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1990년대 초 수도권 일대에 대한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짐.¹⁵⁾
- 동 사업은 부천시 춘의동, 삼정동, 심곡3동, 상동, 중동, 송내동의 6개 동에 걸치는 약 165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는 당초 17만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1995년 전후 26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부천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였음.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 수는 5만 9,150개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c).
- 사업체의 22.6%는 도매 및 소매업, 17.8%는 제조업, 15.9%는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79.8%는 1~4명의 소규모 사업체이며, 50인 미만의 사업체가 99.1%를 차지하고 있음.
- 종사자는 27만 5,521명이며,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제조업(26.4%), 도매 및 소매업(15.0%), 숙박 및 음식점업(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c).
- 경제활동참가율은 2014.2/4분기 기준으로 59.6%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a).
- 경기도 부천시의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은 50.9%로 경기도 내 다른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여성 고용률이 높은 순으로 10위)임(경기도청, 2016).
-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17.4%로 경기도 내 다른 시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많을 가능성이 있음(경기도청, 2016).

15) 부천시청 홈페이지. 부천소개-부천의 역사. <http://www.bucheon.go.kr>

- 청년고용률은 36.9%로 경기도 내 다른 시에 비해서도 낮은 편에 속함(경기도청, 2016).
- 다만, 이는 부천시 관내에 전문대학, 대학 등이 소재하고 있어 학생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취업자의 직종은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가 23.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사무종사자(19.2%), 판매종사자(14.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d).

□ 주택

- 부천시는 1990년대 5개 신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95년부터 입주하였으므로 현재 도시가 개발된 후 30년 정도가 지난 상태임.
- 부천시에 2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가구는 32.3%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d).
- 주택은 아파트 46.3%, 단독주택 25.7%, 다세대주택 22.2% 등의 순으로 나타남(경기도 부천시, 2016a).
- 2010년을 기준으로 주택의 절반 정도는 1995년 이전에 건립.

〈표 4-6〉 경기도 부천시의 주택 현황,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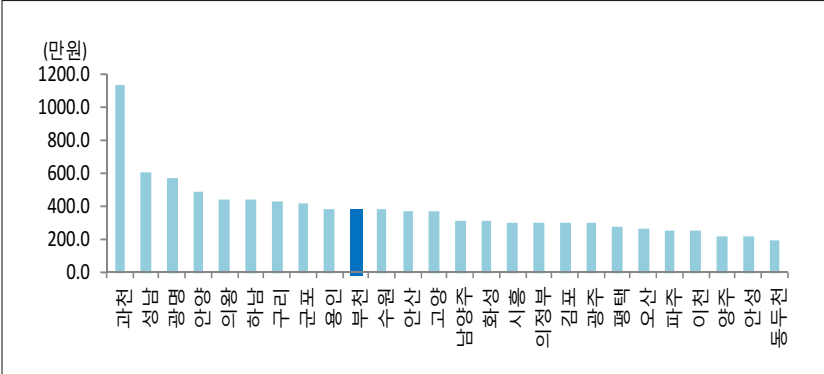
(단위: 호, %)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가구 수	294,002	75,580	136,236	16,818	65,368	94.5
%	100.0	25.7	46.3	5.7	22.2	

자료: 경기도 부천시(2016a). 2015 부천시 기본통계.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79만 3,000원으로 인근 인천, 시흥, 김포 등에 비해 집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민은행, 2016).

[그림 4-5] 경기도 기초지자체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m²당)



자료: 국민은행(2016). KB 주택가격동향_시계열(2016. 9.).

□ 교육

- 관내에 전문대학 2개, 대학(교) 2개가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과 보건의료사업으로 구분됨.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대책들로는 부천체육관, 소사국민체육센터, 오정레포츠센터 등 이용료 감면.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료, “행복한 엄마 되기” 임신부출산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대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막달검사 등.

〈표 4-7〉 경기도 부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출산지원금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부천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0만 원 지급
셋째아 이상 신생아 보험료	부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 또는 입양아	1인 월 2만 원 이내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 보장)
“행복한 엄마 되기” 임산부 출산교실	등록임부(부천시민)	3~10월, 출산과정 이해, 호흡법, 산전 체조, 신생아 관리 등
모유수유 클리닉	등록임부(부천시민)	3~11월,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 교정 등
유축기 대여	출산부(부천시민)	2주, 무료
기형아검사	등록 임부(부천시민)	임신 16~20주, 쿼드 무료검사
산전검사	등록 임부(부천시민)	임신 초기(12주까지) 무료 검사
막달검사	등록 임부(부천시민)	임신 말기(35주 이후) 무료 검사
부천체육관 이용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부천체육관 스포츠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임산부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오정레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3자녀 이상 가족 중 청소년 및 어린이	오정레포츠센터 운영프로그램 이용료 50% 감면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부천시에는 2016년 9월 부시장 직속으로 ‘2030인구정책추진단’을 신설하여 ‘아기환영정책(2017~2020)’을 2017년부터 추진할 계획

- 2017년도 3개 과제, 36개 세부추진사업(예산 126억 2,500만 원)
- 2017년 대표 사업 3개, 프로젝트 5개 사업
 - 출산지원 프로젝트(아기탄생 출산용품 지원, 북 스타트 사업)
 - 돌봄 프로젝트(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 다자녀 프로젝트(출산지원금 확대 등)

바. 합의

- 경기도 부천시는 1990년대에 개발된 오래된 주거 중심의 도시로 주택 가격은 인근 지역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관내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작은 규모로 나타남.
- 그 결과 가임기 여성은 주로 미혼층으로 결혼 후 정주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임.
 - 결혼 부부의 경우에도 둘째 이상 다출산 경향이 낮게 나타남.
 - 경기도 관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데다가 전문직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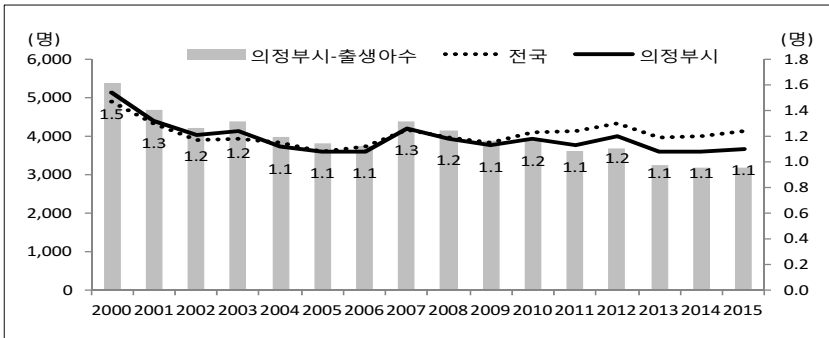
2. 경기도 의정부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2015년 기준 5.1%로 전국(5.9%)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최근으로 올수록 조혼인율의 감소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짐.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 5,000명 수준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 현재 3,178명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104명(통계청, 2016b).

- 2010년까지는 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격차가 미세하나마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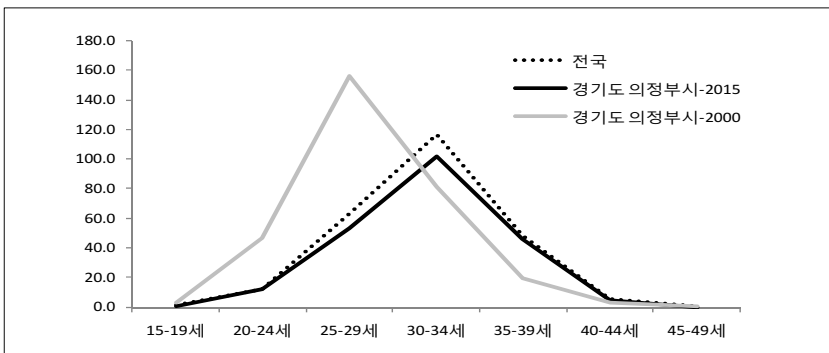
[그림 4-6] 경기도 의정부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전 연령대에서의 출산율이 전국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패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저출산 기조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림 4-7] 경기도 의정부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0.1%로 전국 수준(9.7%)에 비해 높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중소도시 평균(11.8%)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둘째아 비율은 38.8%로 전국(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에 비해 다소 높으나,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표 4-8〉 경기도 의정부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시 평균	78	49.0	39.2	11.8
경기도 의정부시	-	51.1	38.8	10.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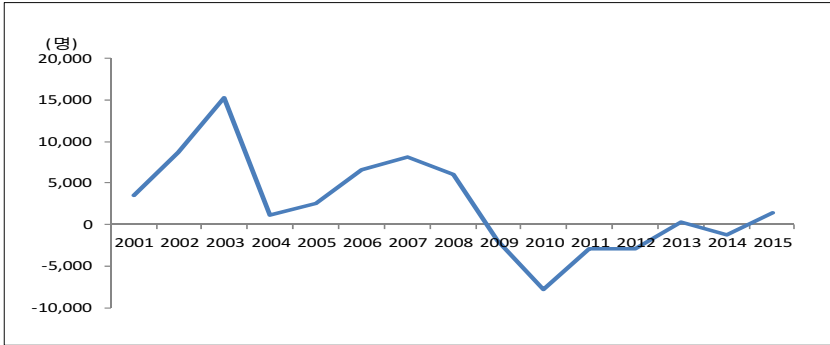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2000년대 초반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아 인구의 순유입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아 순이동자 규모가 마이너스로 나타남.
- 2010년 저점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순이동이 미세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남.
- 최근 민락지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환 공여지 개발로 행정타운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속될 전망.¹⁶⁾

16) 이뉴스투데이(2015. 10. 23.). 의정부시 내년부터 '책임동계' 단계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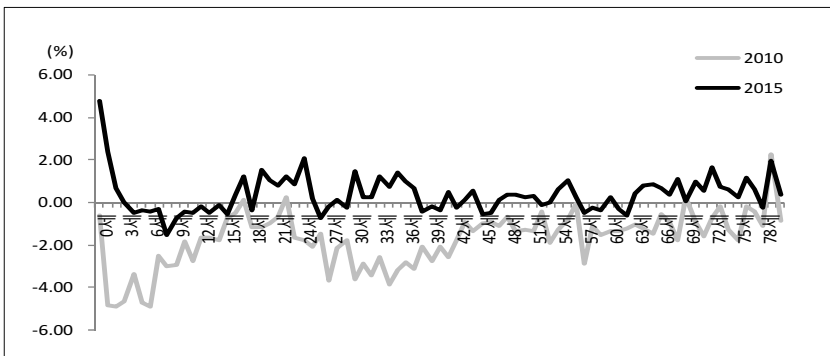
[그림 4-8] 경기도 의정부시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인구 유출이 많았던 2010년에는 거의 전 연령층에서 유출이 있었으며, 특히 가임기 인구와 영유아 인구의 유출이 가장 컸음.
- 그러나 2015년에는 가임기 연령층 일부와 유아의 유입이 유출보다 큰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 외 중장년층에서도 인구의 순유입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그림 4-9] 경기도 의정부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0,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경기도로 유입하는 인구는 주로 서울과 경기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남.

〈표 4-9〉 경기도 의정부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3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의정부시)	전출지별 인구이동 (의정부시→타 시·도)	순이동
계	65,548	65,014	0
서울	15,231	12,500	+
부산	370	329	+
대구	283	265	+
인천	981	1,291	-
광주	225	226	-
대전	248	354	-
울산	121	163	-
세종	32	68	-
경기	44,689	45,461	-
강원	938	1,108	-
충북	354	513	-
충남	495	761	-
전북	338	442	-
전남	353	444	-
경북	410	475	-
경남	357	383	-
제주	123	231	-

자료: 경기도 의정부시(2015a). 제52회 2014년 의정부통계연보.

- 의정부시의 주간인구지수는 87.7로 주로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통계청, 2011).

□ 국제 이동

- 외국인 주민은 의정부시 주민의 1.7%로 전국 수준(3.4%)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29.1%는 결혼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으로 외국국적 동포(22.2%), 외국인 근로자(21.2%)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경기도 의정부시의 총인구는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43만 4,000명임(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6.2%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2%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3.1%로 전국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22.0%로 전국 및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낮음.
 - 30~34세의 경우에는 60.2%로 전국보다는 낮고,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서는 높음.

□ 인구고령화

- 2015년 기준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2.3%로 전국 수준(12.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d)

□ 가구

- 경기도 의정부시의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전국 평균(2.5명)과 유사하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1인 가구는 23.5%로 전국 평균(27.2%)보다 낮은 수준임.
 - 가임계층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4-10〉 경기도 의정부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5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경기도 의정부시	86.5	61.4	49.5	30.3	20.9	17.8	16.4
전국	91.9	79.3	63.0	36.2	23.3	19.5	17.8

주: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편.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의정부시는 남쪽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도봉구, 북쪽으로는 양주시 양주1동, 서쪽으로는 양주시 장흥면, 동쪽으로는 포천시 소흘읍과 경계를 이룸(경기도 의정부시, 2010).
- 의정부시는 분지형 도시로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산악에 둘러싸여 있음.

□ 산업 및 직업

- 경기도 의정부시 내 사업체수는 2만 4,936개이며, 종사자는 10만 7,340 명임(경기도 의정부시, 2015b).
 - 사업체의 25.4%는 도매 및 소매업, 19.5%는 숙박 및 음식점업, 13.1%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 사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체가 99.1%(1~4인 사업체 82.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4개가 있음.
 - 전체 종사자의 7%가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74.0%가 5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경기도 의정부시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은 49.1%이며,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21.6%로 나타남(경기도청, 2016).

〈표 4-11〉 경기도 의정부시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2013

(단위: 개, 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남	여
2013	24,936	107,340	51,730	55,610

자료: 경기도 의정부시(2015b), 2014년도 사업체기초통계.

□ 주택

- 아파트 건립은 2011~2012년 대량으로 이루어진 후 감소.

〈표 4-12〉 경기도 의정부시의 아파트 건립 현황

(단위: 동, 호)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13	25	-	89	83	15	10
가구 수	806	1,440	-	8,087	8,333	3,014	1,131

자료: 경기도 의정부시(2016). 제53회 2015년 의정부통계연보.

- 주택은 아파트가 60.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 26.6%로 나타났다.

〈표 4-13〉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단위: 호, %)

	일반 가구 수	계	주택					주택 보급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의정부시 비율	155,452	150,217 100.0	39,913 26.6	91,235 60.7	2,731 1.8	16,338 10.9	- -	96.6

자료: 경기도 의정부시(2016). 제53회 2015년 의정부통계연보.

- m²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04만 8,000원으로 서울 지역에 비해 저렴하고, 인근의 남양주(313만 2,000원), 구리(432만 3,000원), 고양(369만 5,000원)에 비해서도 낮음(국민은행, 2016).

마. 정책적 요소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건의료사업, 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지원금을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 한해 1회 50만 원 지원하고 있음.
 - 출산지원금을 출산 전 1개월 전부터 거주 조건 충족 시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보건의료사업으로 출산준비교실 및 이유식 교육, 출생아 건강보험 등 실시.
 -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영아북스타트 지원.

〈표 4-14〉 경기도 의정부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영아북스타트	- 관내 영유아(6~18개월) 동반 보호자	- 책꾸러미 선물, 독서 프로그램 운영
출산장려금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다만, 다른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함)	- 출산장려금 50만 원(1회) - 키움수당 5만 원(12회, 201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임산부 책배달제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회원 가입 - 임신 8개월 이상, 자녀 생후 12개월 이하(최장 14개월)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경기도 의정부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서울 도시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으며(경기도 의정부시, 2010), 경기 북부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주택 가격도 인근의 경기도나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임.

-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주거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아 베드타운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 이와 같은 인구흡입 요인이 있음에도 출산율은 낮은 이유로는 결혼과 첫째 출산 이후에 자녀 보육과 교육 등을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기 때문일 것임.
- 실제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첫째아 출산 비율은 높으나, 둘째와 셋째 이상의 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을 보면 대체적으로 만 3세~초등학교 취학기 아동과 이들의 부모 세대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3. 충청남도 공주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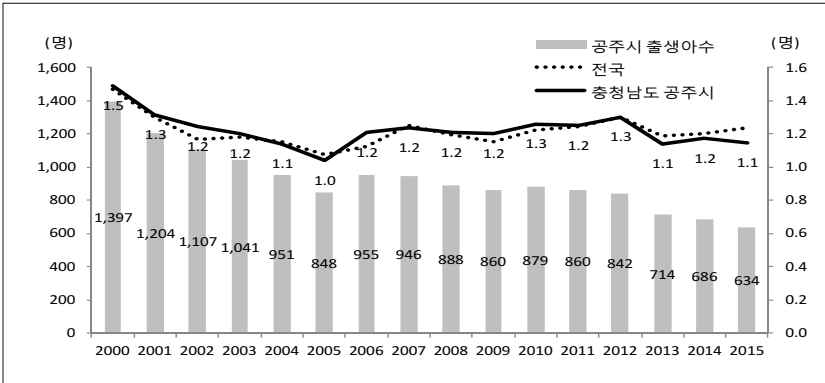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4.3%로 전국 수준(5.9%)보다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 1,400명 수준에서 2015년 640명 수준으로까지 감소.
-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합계출산율은 1.1~1.2명 수준에서 등락 반복.
 - 2000년대 중반에는 출생아수는 감소하나 출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임.

- 2012년 이후에는 출생아수 및 출산율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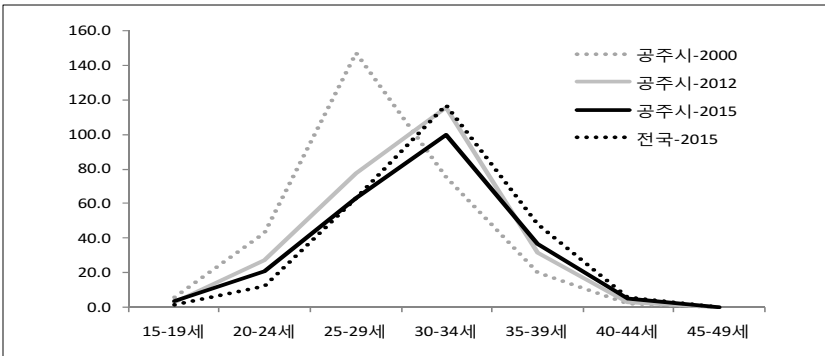
[그림 4-10] 충청남도 공주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공주시의 25~29세 출산율은 63.4로 전국 수준(63.1명)과 유사하며, 30~34세 출산율은 99.6명으로 전국 수준(116.7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30~34세 출산율이 낮아 전체 출산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4-11] 충청남도 공주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0, 2012,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6.7%로 전국 수준(9.7%), 중소도시 평균(11.8%) 및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그러나 둘째아 비율은 36.8%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공주시에 머무르고 있는 가임기 인구는 농촌 기반으로 다자녀를 출산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2자녀 출산 가정들이 대거 인근 도시(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해 간 효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4-15〉 충청남도 공주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충남 공주시	-	46.4	36.8	16.7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공주시에서의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4년부터 더욱 강화됨.

〈표 4-16〉 충청남도 공주시의 순이동자(전입자-전출자) 규모 추이

(단위: 명)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이동자	-599	-54	-18	-1,382	-682	-2,489	-2,07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유출된 인구의 대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충청남도 공주시의 인구 전출 및 전입 현황,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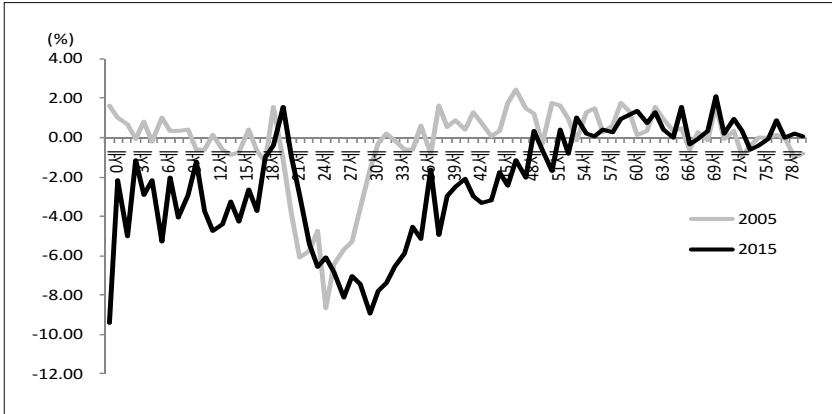
(단위: 명)

	전출자	전입자	순이동자수(전입-전출)
계	15,518	13,486	-2,032
서울	780	855	75
부산	93	115	22
대구	79	89	10
인천	215	286	71
광주	80	93	13
대전	1,598	1,593	-5
울산	91	64	-27
세종	3,396	905	-2,491
경기	1,178	1,492	314
강원	128	160	32
충북	379	400	21
충남	6,781	6,673	-108
전북	219	225	6
전남	104	126	22
경북	223	233	10
경남	134	143	9
제주	40	34	-6

자료: 공주시 내부 자료.

- 공주시 연령별 순이동자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10대 후반과 20대의 젊은 층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20대 이상 가임기 전체 연령에서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인구 순유출은 주된 가임기 연령층인 25~34세에서 강하게 나타남.
 - 이동 이유는 대체적으로 자녀 교육, 주거환경(대단위 주택 입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그림 4-12] 충청남도 공주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공주시 주민 중 2.8%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보다 다소 낮음.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31.8%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 28.2%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8〉 충청남도 공주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13,621	3,167	2.8	439	654	212	384	279	299	52	848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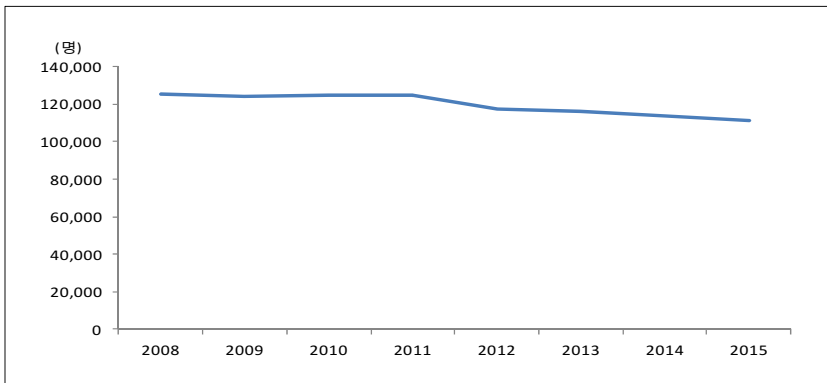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기준 11만 1,000명으로 2012년 이후 빠르게 감소.

* 공주시 인근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

[그림 4-13] 충청남도 공주시의 인구 규모 추이, 2008~2015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9.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4%로 전국 수준에 비해 낮고,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2.3%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25.5%)로 전국에 비해 높고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낮음.

- 30~34세는 59.6%로 전국에 비해 낮고,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1.4%로 인구고령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며(전국 수준 12.8%)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빠르게 진척되고 있음(통계청, 2016d).

〈표 4-19〉 충청남도 공주시의 노인인구 규모 및 비율 추이, 2008~2015

(단위: 명,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5세 이상 인구	21,676	22,203	22,548	22,774	21,894	22,474	23,092	23,779
총인구 대비 비율	17.3	17.9	18.0	18.3	18.7	19.3	20.3	21.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공주시 총면적은 충청남도의 10.5%를 차지하여 도내 15개 시·군들 중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
- 공주시는 동쪽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일부 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서구, 북쪽으로는 아산시·천안시와 인접하고 있음.¹⁷⁾
- 공주시를 중심으로 5개의 국도 노선이 남북으로 아산, 천안, 부여 그리고 동서로는 대전, 조치원, 청양 등과 연결되어 있어 충청남도의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하고 있음.¹⁸⁾

17) 충청남도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소개-위치/자연환경. <http://www.gongju.go.kr>

18) 충청남도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소개-위치/자연환경. <http://www.gongju.go.kr>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 수는 2013년 기준 8,437개인데 이들의 79% 정도가 개인 사업체에 해당(충청남도 공주시, 2016).
- 사업체 규모로 보면 전체의 83.1%가 1~4인의 개인 영세사업장이며,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4개임.
- 전체 근로자의 11.3%가 5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67.6%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 관내 농공단지가 2013년 기준 11개이며 입주업체는 94개(가동률 72.0%)임.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2/4분기으로 59.6%로 나타남.

□ 주택

- 주택은 단독주택이 67.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 26.4% 등으로 나타남(충청남도 공주시, 2016).

〈표 4-20〉 충청남도 공주시의 주택 현황, 2013

(단위: 호, %)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규모	54,892	37,294	1,4491	1,805	1,302	111.4
%	100.0	67.9	26.4	3.3	2.4	

자료: 충청남도 공주시(2016). 2015년도 통계연보.

□ 교육

- 관내에 2개 대학(공주교대, 사대)이 소재하고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공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등 저출

산대책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임.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금을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적(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으로 지원
 - 부부 중 1인 이상이 관내 거주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을 일부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 중임.
- 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으로 출생축하카드 전달, 출산장려시책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4-21〉 충청남도 공주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출생축하카드 전달	출생신고 시 출산가정	출생 축하카드 전달(출생신고 시 부모),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일정표 등 건강관리정보 제공
출산양육지원	부부 중 1인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출생하여 신고)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출산축하금	공주시 거주자로 출생한 자	출산축하금(상품권 10만 원)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월평균 소득 65% 이하	산모도우미(본인부담금 20만 원)
출산친화 프로그램 운영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매주 수요일, 성공적인 모유수유, 임신부요가, 동화태교, 분만호흡법, 육아용품 만들기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충청남도 공주시의 경우 충남 총면적의 10.5%를 차지하여 도내 시·군들 중 가장 넓은 도농복합도시로 동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북쪽으로는 아산시·천안시와 인접.

- 국도의 여러 노선과 고속도로 계획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
- 공주의 입지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인구 유출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화되어 출생아수가 급감.
- 세종특별자치시의 흡입 요인(주택, 교육 등)과 공주시의 배출 요인(일자리 미흡 등)들로 인하여 공주시 젊은 층 및 이들의 자녀 세대의 유출 심화.
- 실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전부터 인구 유출 및 출생아수 감소 시작.

4. 강원도 춘천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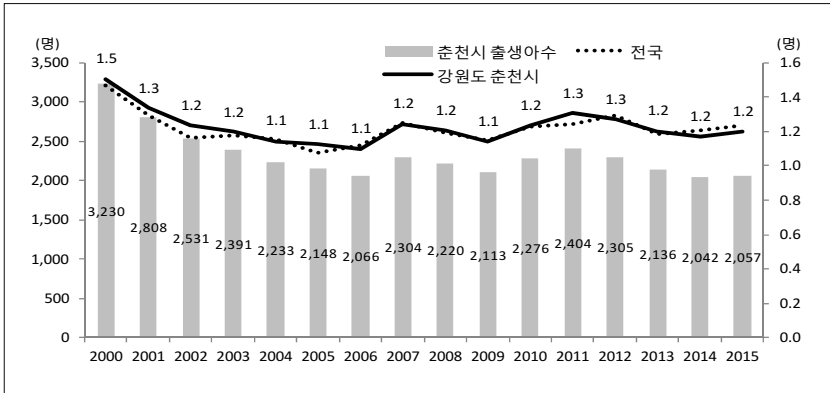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5.1%로 전국 수준(5.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전국 수준(1.24명)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b).
 - 2001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합계출산율은 1.1~1.3명 수준에서 등락 반복.
 - 최근 1.2명 수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67.5로 전국 수준(63.1)과 유사하며,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09.8로 전국 수준(116.7)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춘천시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국 수준보다 다소 낮으나 전체적인 연령별 패턴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전국의 출산 수준과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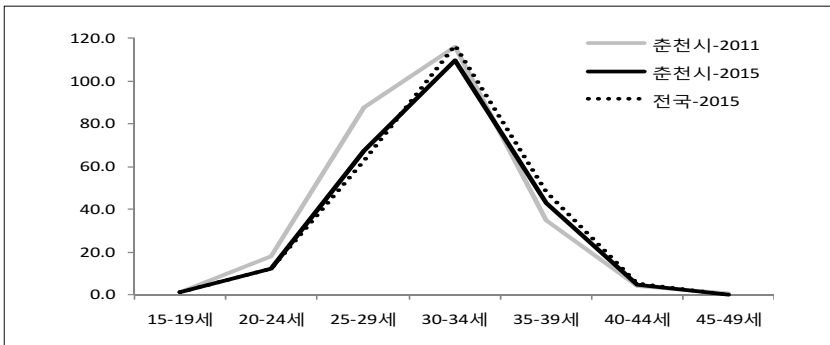
하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4] 강원도 춘천시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KOSIS(인구동향조사-출생).

[그림 4-15] 강원도 춘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1,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춘천시의 2015년 전체 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1.1%로 전국 수준(9.7%)보다는 높으나 중소도시 평균(11.8%)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둘째아 비율은 38.1%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38.2%)과 유사하나,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남.

〈표 4-22〉 강원도 춘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강원 춘천시	-	50.8	38.1	11.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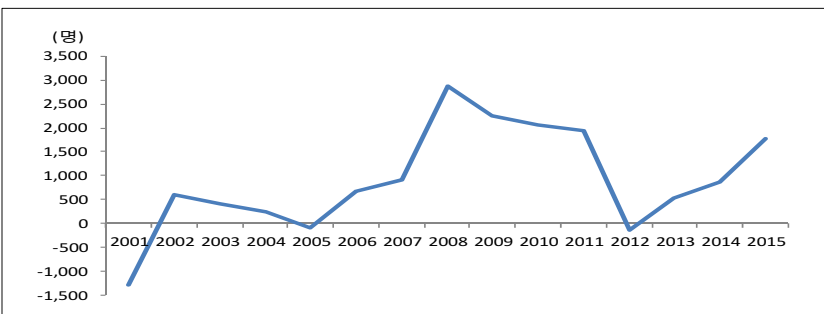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은 순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2년에 미세하나마 순이동이 마이너스(-)였으나, 이후에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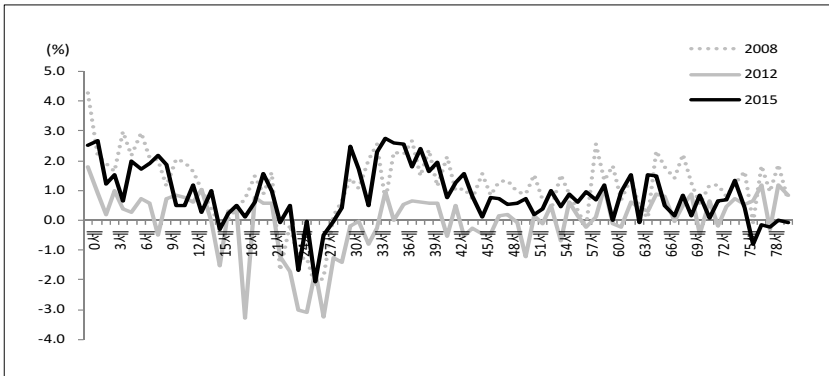
[그림 4-16] 강원도 춘천시의 순이동자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춘천시의 경우 20대 중반에서 다소의 인구 유출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서는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20대 초반에서의 순유입은 관내에 대학(3개), 대학교(2개), 교육대학(1개) 등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임.
- 그러나 20대 중반에서 순이동자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데, 이는 졸업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해 나가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20대 후반~30대 후반 사이에서는 순유입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1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도 순유입이 나타남.
- 이는 일부지만 직업 군인 등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장년층에서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4-17] 강원도 춘천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8, 2012,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춘천시로 순유입하는 인구의 원 거주지는 주로 강원도 내 타 기초지자체이며, 이외에 서울, 경기, 충북, 대구, 인천, 광주 등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에서의 순유입이 발생하는 것은 주요 이동 계층들이 학생과 군인이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음.

〈표 4-23〉 강원도 춘천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춘천시)	전출지별 인구이동 (춘천시→타 시·도)	순이동
계	49,629	48,767	+
도내	37,225	36,584	+
서울	3,984	3,791	+
부산	219	297	-
대구	211	191	+
인천	753	699	+
광주	139	128	+
대전	289	350	-
울산	109	109	0
세종	29	74	-
경기	4,726	4,409	+
충북	424	374	+
충남	437	505	-
전북	210	224	-
전남	150	179	-
경북	399	411	-
경남	237	291	-
제주	88	151	-

자료: 강원도 춘천시(2016). 2015 통계연보.

□ 국제 이동

- 춘천시 주민 중 1.8%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수준(3.4%)에 비해 낮은 수준임(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30.3%는 유학생, 25.4%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 17.0%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4-24〉 강원도 춘천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275,791	5,067	1.8	644	680	514	1,144	580	370	68	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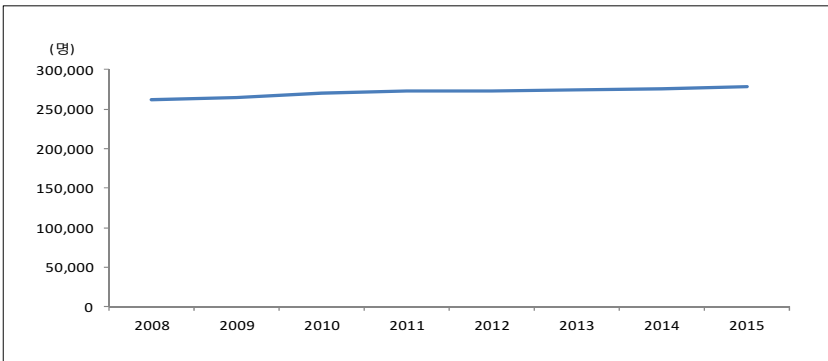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춘천시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약 27만 6,000명에 이르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b).

[그림 4-18] 강원도 춘천시의 인구 변동 추이, 1997~2015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4.3%로 전국 수준보다는 낮고,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0%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고,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3.0%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가 23.8%로 전국보다 높으나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서는 낮음.
- 30~34세는 64.8%로 전국과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14.8%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전국 평균 수준(12.9%)을 다소 상회함(통계청, 2016d).

□ 가구

- 춘천시의 평균 가구원 수는 평균 2.4명으로 전국 평균(2.5명)과 유사하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9.9%로 전국 수준(28.2%)에 비해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에서의 미혼율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e).
 - 관내 대학(교) 등의 영향에 기인.

〈표 4-25〉 강원도 춘천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5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국	91.9	79.3	63.0	36.2	23.3	19.5	17.8
강원도 춘천시	92.2	86.6	66.8	38.4	23.5	19.5	18.7

자료: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표본편.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강원도 춘천시는 전 면적의 76% 이상이 산악 지대에 속하며 평지가 협소 (강원도 춘천시, 2016).
- 관내 수도권 식수로 사용되는 댐이 3개 있음.
 - 댐으로 인해 개발에 제한이 있어 산업단지 등이 제한이 있고, 주로 관광 산업이 발달함.
-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2010년 12월 춘천역까지 수도권 전 철 개통으로 춘천과 수도권 간 1시간 거리.
- 춘천시는 구도심 지역, 신도심 지역, 도농복합지역, 기타 읍·면으로 구분 할 수 있음(강원도 춘천시, 2015).
 - 신도심 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택지개발에 의한 신축아파트 단지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강원도 춘천시, 2015).

□ 산업 및 직업

- 관내에 총 2만 1,169개의 사업체가 있고, 총 10만 1,443명이 종사하고 있음(강원도 춘천시, 2016).
 - 산업대분류로 보면 전체 사업장의 24.9%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22.8%)임.
 - 사업체 규모로 보았을 때 전체 근로자의 79.1%가 100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31.1%는 1~4인 기업)하고 있음.
- 관내에 지방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5개가 있음(강원도 춘천시, 2016).
 - 가동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남.

〈표 4-26〉 강원도 춘천시의 산업단지 현황, 2014

(단위: 개, %, 명)

	단지수	입주업체 수	가동률	종업원 수
산업단지 전체	11	336	95	5,853

자료: 강원도 춘천시(2016). 2015 통계연보.

□ 주택

- 주택은 아파트가 43.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단독주택 36.5%, 다가구주택 18.0% 등으로 나타남.
- 주택보급률은 126%으로 주택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7〉 강원도 춘천시의 주택 현황, 2014

(단위: 호, %)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주택	주택보급률
주택 수	142,532	51,960	25,665	61,385	2,071	1,451	0	125.99
구성비	100.0	36.5	18.0	43.1	1.5	1.0	0.0	

자료: 강원도 춘천시(2016). 2015 통계연보.

□ 기타

- 춘천시 관내에 군부대가 입지해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춘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대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출산축하금, 셋째아 고교 학비 지원, 셋째아 이상 대학입학금 지원 등임.

- 이 외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건강 강화 사업 추진.

〈표 4-28〉 강원도 춘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출산축하금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로서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	- 셋째아 이상 3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춘천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 중 둘째 이상 자녀로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 춘천시와 협약된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가입 지원 (5년 지원, 10년 보장)
셋째아 고교 학비 지원	-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소득, 재산과 무관)	- 해당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셋째아 이상 대학 입학금 지원	-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 이상의 만 24세 이하 대학 입학생(소득, 재산과 무관)	- 1인당 10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산지가 많고, 수도권 상수도보호지역이자 개발제한지역으로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한이 있음.
 - 관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교육과 관광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고 군부대들이 입지되어 있는 특성을 가짐.
- 대학, 군부대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관내에서 결혼하여 정주하는 경향은 낮음.
 - 실제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율은 전국에서 낮은 실정
 -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다출산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출생아수와 출산율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2절 고출산 중소도시 지역

1. 충청남도 당진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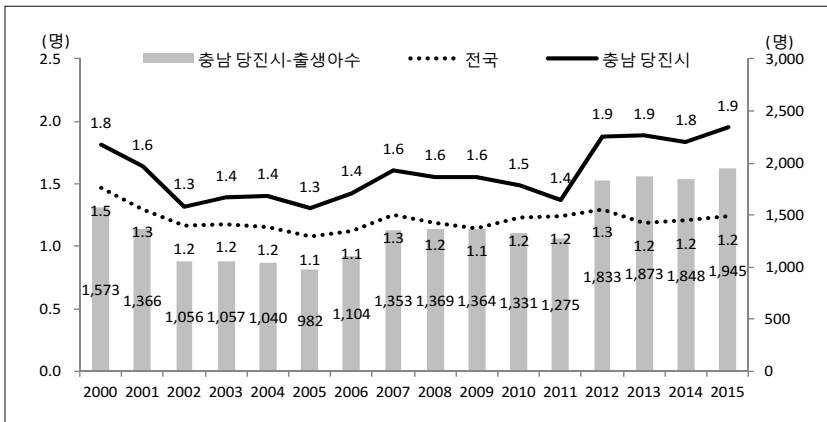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7.5%로 전국 수준(5.9%)에 비해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5년 982명(당진군)까지 감소하였다가 2012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 기준으로 약 2,000명 수준임.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95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2011년 1.4명(당진군)을 기록한 이후 1.8~1.9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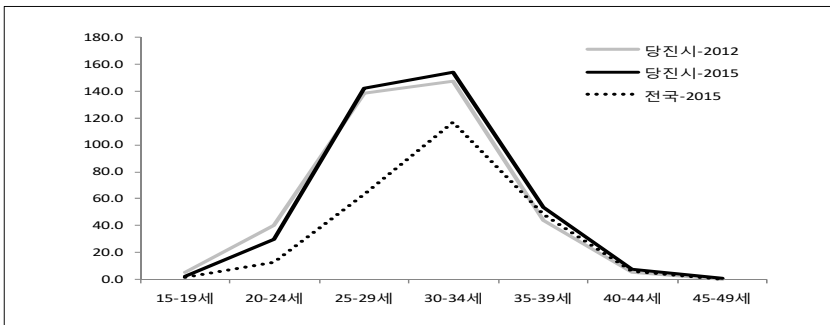
[그림 4-19] 충청남도 당진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142.3(전국 기준 63.1), 30~34세 출산율은 153.8(116.7)로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특히, 25~29세 출산율이 아주 높아 30~34세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림 4-20] 충청남도 당진시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 2012,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2.1%로 전국 수준(9.7%)과 중소도시 평균(11.8%)에 비해서는 높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39.4%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그리고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4-29〉 충청남도 당진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 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충남 당진시	-	48.5	39.4	12.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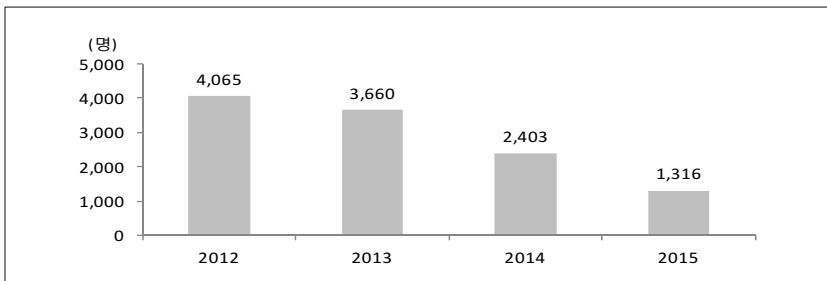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2012년 당진시로 승격한 이후 인구는 순유입하고 있으나 점차 그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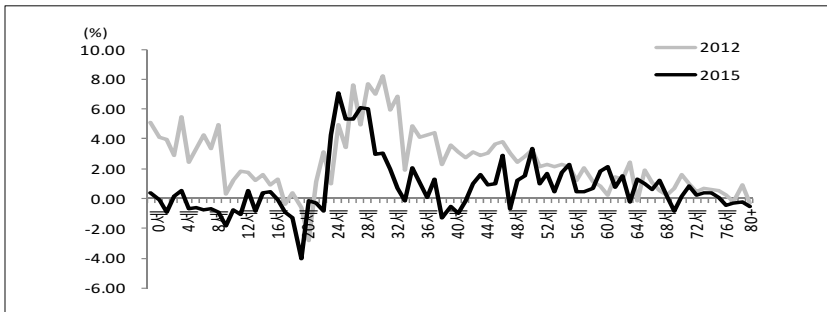
[그림 4-21] 충청남도 당진시의 순이동자수 추이, 2012~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연령별 순이동 규모를 살펴보면, 20대~30대 초반에서 인구 순유입자 수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중장년층에서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4-22] 충청남도 당진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2,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4.8%로 전국 수준(3.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의 54.6%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17.5%는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0〉 충청남도 당진시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62,844	7,739	4.8	722	3,606	1,020	35	676	434	106	1,140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16만 5,000명을 기록함.
-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폭은 둔화되고 있음.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1.4%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2%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6.8%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43.1%, 30~34세 82.4%로 전국 및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인구고령화 수준은 16.1%로 전국 수준(12.9%)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4명으로 전국(2.5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8.8%로 나타남.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당진시는 당초 군이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해 2012년 시로 승격하였음.
- 대체로 산악과 구릉이 연결된 평야지대로서 기존 농업 지역과 더불어 최근에 철강산업이 발전.¹⁹⁾
- 지리적으로 당진시의 3분의 2는 바다에 접하고 있으며, 평택시, 서산시, 아산시와 접해 있음.

19)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소개-일반현황-역사와 유래. <http://dangjin.go.kr>

[그림 4-23] 충청남도 당진시 지리적 위치



자료: 당진시청 홈페이지.

□ 산업 및 지역

- 총사업체 수는 1만 1,240개이며, 종사자는 7만 1,801명임(충청남도 당진시, 2016).
 - 전체 종사자의 16.4%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종사자의 산업분포를 살펴보면, 37.8%는 광·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관내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등 3개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총 14개 산업단지가 있음(충청남도 당진시, 2016).

□ 고용

- 2016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69%로 나타남.²⁰⁾

□ 주거

- 당진시의 주택은 단독주택이 55.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

20) 당진시 통계. www.dangjin.go.kr

35.2% 등의 순임(충청남도 당진시, 2016).

- 주택보급률은 107.9%로 나타남.

〈표 4-31〉 충청남도 당진시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단위: 가구, 호, %)

	일반 가구 수	주택 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보급률
		합계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2014	70,502	76,048	41,958	16,253	26,758	2,833	2,790	1,709	107.9

자료: 충청남도 당진시(2016). 2015년 당진시 통계연보.

- 가구의 거주 종류로는 단독주택 48.5%, 아파트 38.9% 등으로 나타남.

〈표 4-32〉 충청남도 당진시의 거주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당진시								
가구 수	62,697	60,102	30,402	24,373	1,779	2,616	932	2,595
구성비	100.0	95.9	48.5	38.9	2.8	4.2	1.5	4.1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마. 정책적 요소

□ 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저출산대책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음.

- 관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부터 지원하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표 4-33〉 충청남도 당진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정책명	대상	정책 내용
신생아 출산지원금 및 육아용품	관내 출생 신생아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 육아용품 구입상품권(3만 원 상당) 및 출산 축하카드 등기발송
임산부 공영 유료 주차장 요금감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산업단지가 많고 특히 철강 산업이 발전하여 일자리가 풍부하고 고용률도 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산업단지와 함께 주거단지도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 중에 있음.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당진시로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이들 젊은 층 중 기혼 비율도 높음.
- 이들 영향으로 20대~30대 초반에서의 출산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서 셋째아 이상의 다출산 경향도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당진시의 경우 미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만큼 출산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출산으로의 이행 정도도 높아 출생아수가 증가하고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경상남도 거제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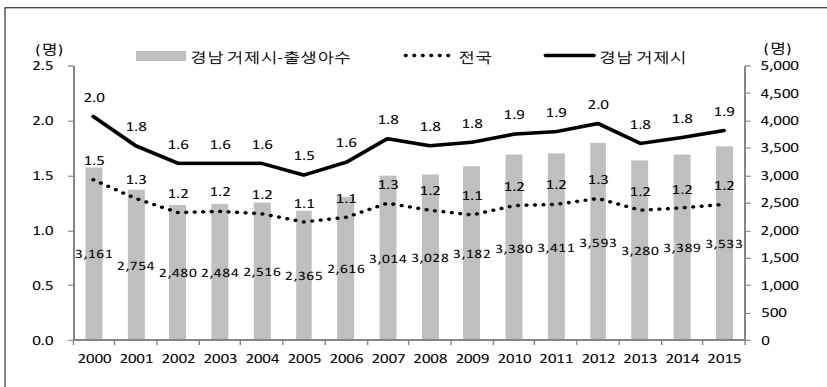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9.1%로 전국(5.9%)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대 중반 2,000여 명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5년 3,533명으로 나타남.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91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통계청, 2016b)
 - 합계출산율은 2007년 이래 1.8~2.0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4-24] 경상남도 거제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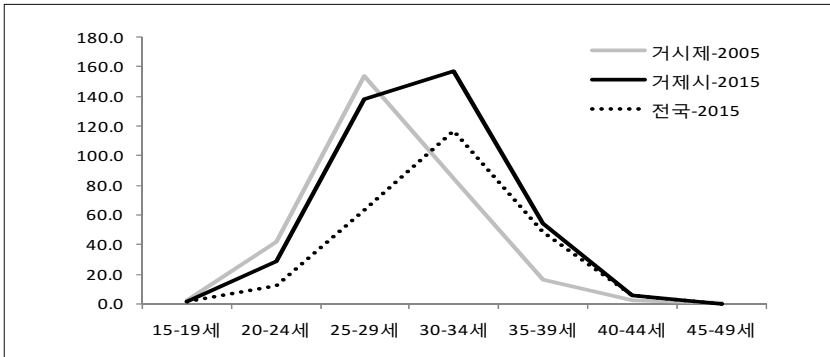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경상남도 거제시의 높은 출산율은 20대~30대 초반의 높은 출산율에 기인
 - 25~29세 출산율은 138.2(전국 63.1), 30~34세 출산율은 157.4(전국

116.7)로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특히, 25~29세 출산율이 높아 30~34세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림 4-25] 경상남도 거제시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0.1%로 전국 수준(9.7%)에 비해 다소 높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과 중소도시 평균(11.8%)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40.0%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그리고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4-34〉 경상남도 거제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경남 거제시	-	49.9	40.0	10.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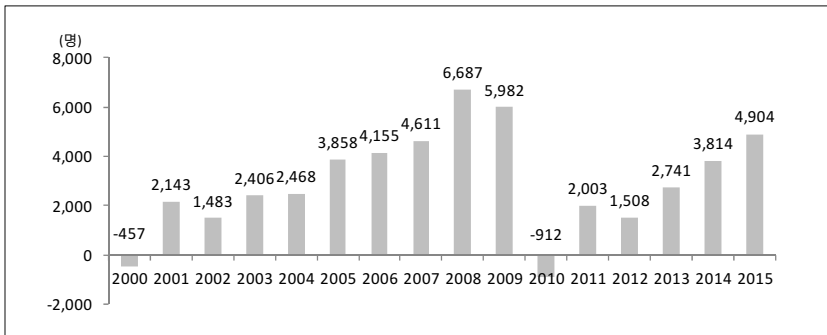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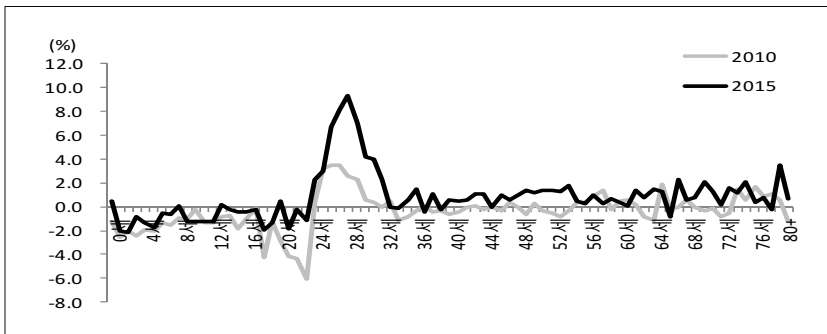
[그림 4-26] 경상남도 거제시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2015년 기준 총인구의 순이동률은 2%로 나타남(통계청, 2016c).

[그림 4-27] 경상남도 거제시 연령별 순이동률, 2005,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특히, 20대~30대 초반에서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영유아기 아동과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작게나마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유출은 보육, 교육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의 6.6%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 중 46.0%는 기타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외국인 근로자 39.5%,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9.1% 등의 순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표 4-35〉 경상남도 거제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248,287	16,352	6.6	852	5,935	679	23	6,905	519	98	1,341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기준 25만 6,000명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5.8%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0.7%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중소도시 평균과는 유사.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7.6%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44.8%), 30~34세(82.8%)로 전국과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7.9%로 인구구조는 전국 수준(12.9%)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함(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으로 전국(2.5명)과 유사(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7.8%로 전국(27.2%)과 유사(통계청, 2016e).
 - 미혼율은 전국에 비해 낮으나, 일자리로 인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1인 가구의 비율은 전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1971년 거가대교로 인해 육지와 연결이 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섬의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²¹⁾
- 관광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거가대교 개통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경상남도 거제시, 2014).

21) 거제시청 홈페이지. 블루시티 거제-기본현황-거제시지-제1편 자연.
<http://www.geoge.go.kr>

□ 산업 및 직업

-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1만 4,962개, 종사자는 13만 5,206명임(경상남도 거제시, 2016).
 - 종사자들의 절반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거제시 내에는 총 7개 산업단지(국가 3, 일반 3, 농공 1)가 있으며, 경상남도 내에서는 창원 다음으로 지정 면적이 넓은(경상남도 거제시, 2014).
- 임해산업단지 중심의 조선도시로서 대기업(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이 있으며, 115만 평의 해양플랜트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이며,²²⁾ 이를 통해 약 1만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경상남도 거제시, 2014).
 - 정부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 인프라 기반, 지역특화업종(조선)과의 연계성 및 전후방 연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플랜트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

□ 고용

- 거제시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64.4%임(경상남도 거제시, 2016).
 - 전체 취업자 12만 3,800명 중 남성이 8만 4,300명, 여성이 3만 8,500명으로 남성 취업자가 많음.
 - 주요 업종이 조선업 등으로 남성 위주의 업종이기 때문.
-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80.4%이며, 비임금근로자가 19.6%임(경상남도 거제시, 2016).
 - 임금근로자의 86.0%는 상용근로자에 해당.

22) 거제시청 홈페이지. 주요시정-투자유치사업. <http://www.geoge.go.kr>

〈표 4-36〉 경상남도 거제시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14

(단위: 천 명, %)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규모	115.4	92.8	79.8	13	22.6
구성	100.0	80.4	86.0	14.0	19.6

자료: 경상남도 거제시(2016). 제20회 거제통계연보.

□ 주택

- 아파트 건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표 4-37〉 경상남도 거제시의 아파트 건립 현황, 2008~2014

(단위: 동, 호)

	동 수	주택 수	규모별 가구 수				
			40㎡ 이하	40~60㎡ 이하	60~85㎡ 이하	85~135㎡ 이하	135㎡ 초과
2008	72	4,798	-	465	3,616	673	44
2009	26	1,700	304	211	706	331	148
2010	14	867	-	1	806	60	-
2011	7	336	70	266	-	-	-
2012	21	1,479	134	368	977	-	-
2013	48	2,146	-	560	1,550	36	-
2014	30	2,083	-	403	1,680	-	-

자료: 경상남도 거제시(2016). 제20회 거제통계연보.

- 가구의 처처 종류는 아파트(54.0%), 단독주택(35.9%) 등의 순(통계청, 2016e).

〈표 4-38〉 경상남도 거제시 가구의 처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처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거제시								
가구	93,981	91,193	33,693	50,755	2,832	1,922	1,991	2,788
구성비	100.0	97.0	35.9	54.0	3.0	2.0	2.1	3.0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마. 정책적 요소

- 거제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금이 있음.
-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 건립을 계획하고 있음(2018년 1월 준공 및 개소 예정).

〈표 4-39〉 경상남도 거제시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출산장려금	-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및 입양으로 구성되는 가구 중 셋째 자녀 이상 되는 세대	- 셋째아 115만 원(일시금) - 넷째아 315만 원(115만 원 일시금, 첫째 출하금 100만 원, 둘째 출하금 100만 원) - 다섯째아 515만 원(115만 원 일시금, 첫째 출하금 200만 원, 둘째 출하금 200만 원)

자료: 거제시 보건소 홈페이지, 의료비 지원-출산장려금.

바. 합의

- 경상남도 거제시는 조선도시로서 대기업과 여러 산업단지 등이 입지하고 있고 주거지 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취업자의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이면서 상용직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안정되어 있음.
- 주요 업종이 조선업으로 취업자는 주로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의 취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맞벌이부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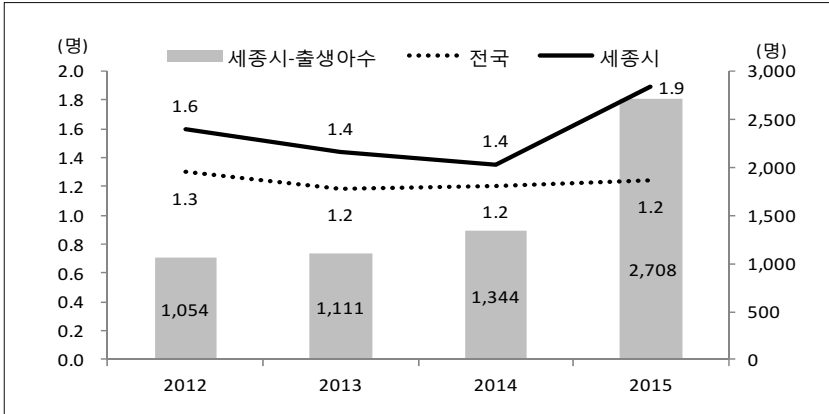
- 20대~30대 초반을 포함한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동 연령층 여성 중 결혼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이는 일자리와 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으로 관내에서 결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부부 단위의 이주도 많이 오기 때문으로 사료.
- 타 지역의 경우 과거에 비해 20대에서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30대에서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나, 거제시의 경우 주된 출산이 30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20대 출산율의 감소 폭이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은 것으로 보임.

3. 세종특별자치시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2012년 6.1%이었으나 2015년 현재 8.2%로 전국 수준(5.9%)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12년 1,054명에서 2015년 2,708명으로 증가.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893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b).
 - 2012~2014년 출산율은 1.5~1.6명 수준에서 변동하였으나, 2015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여 1.9명 수준에 근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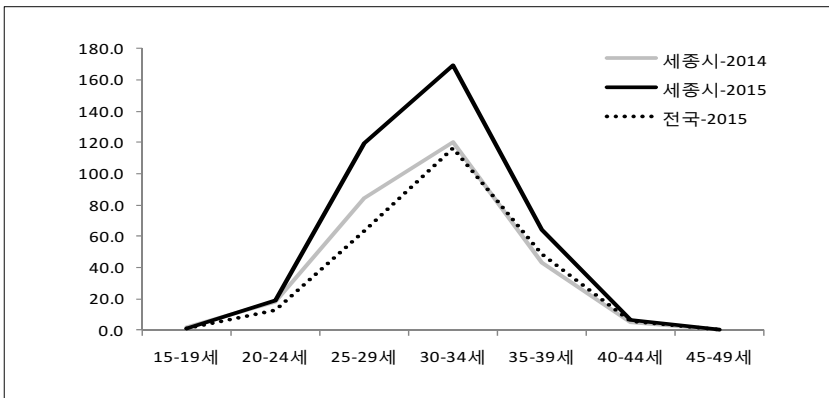
[그림 4-28]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12~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거의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 25~29세 출산율은 119.7(전국 63.1), 30~34세 출산율은 169.7(전국 116.7)임.
- 특히, 30~34세 출산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림 4-29]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4,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0.1%로 전국 수준(9.7%)에 비해 높으나, 중소도시 평균(11.8%)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둘째아 비율은 37.4%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4-40〉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세종특별자치시	-	52.5	37.4	10.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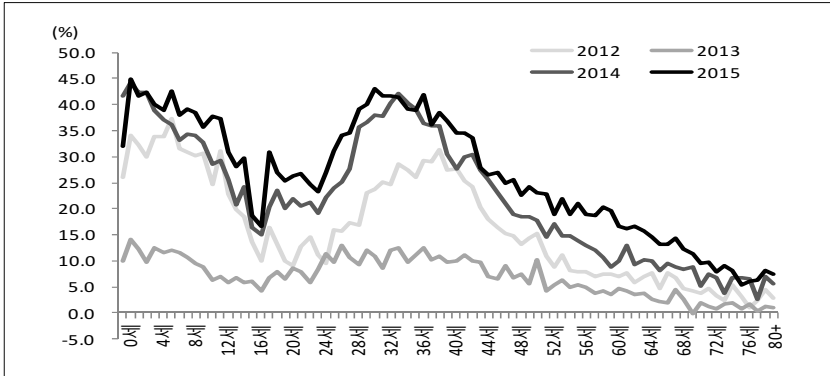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2015년 한 해에 세종시로 순유입한 인구는 53,044명에 이르며, 순이동률은 251.5에 이름(통계청, 2016c).
-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령층은 20대 후반~40대 중반과 이들의 자녀세대이며, 이들의 유입은 최근으로 갈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음.

[그림 4-30] 세종특별자치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2~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매년 세종시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의 규모가 더 커 인 구 순이동은 정적(+) 방향으로 나타남.
- 세종시 인구의 전출 지역은 시내를 제외하면, 대전, 충남, 경기도 순으로 나타남(세종특별자치시, 2016b).
 - 전출 사유는 주택(31.8%), 직업(28.4%), 가족(24.0%) 등의 순임.
- 세종시로 유입하는 인구는 시내를 제외하면 대전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 로 경기, 충북, 충남 등의 순으로 나타남(세종특별자치시, 2016b).
 - 이들의 전입 사유는 주택(37.6%), 직업(30.4%), 가족(18.2%) 등의 순임.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의 2.8%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에 비해 낮은 것으 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49.5%는 외국인 근로자, 16.3% 는 결혼이민자, 9.8%는 유학생임(행정자치부, 2016a).

〈표 4-41〉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56,125	4,302	2.8	414	1,771	481	228	355	239	88	726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기준 21만 1,000명으로 2012년 출범 이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음(행정자치부, 2016b).
- 2012년 15개 중앙행정기관 5,800여 명, 2013년 16개 중앙행정기관 4,800여 명과 2개 국책연구기관 600여 명, 2014년 3개 중앙행정기관 2,300여 명 및 12개 국책연구기관 2,500여 명의 이전 등에 의한 결과.²³⁾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5.3%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0.9%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으나 중소도시 평균보다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7.6%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보다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7.4%, 30~34세 78.2%로 전국 및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2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통계. <http://www.sejong.go.kr>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1.4%로 전국 수준(12.9%)에 비해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d).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으로 전국(2.5명)과 동일(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9.1%로 전국(27.2%)에 비해 높고, 1인 가구의 68.3%는 가임기 연령층에 해당함(통계청, 2016e).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 및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 1일자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였음(세종특별자치시, 2016a).

〔그림 4-31〕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리적 위치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쪽은 충청남도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청남도 천안시와 인접.²⁴⁾

□ 산업 및 직업

-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9,124개, 종사자는 7만 661명임(세종특별자치시, 2016a).
 -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25.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9.7%, 교육서비스업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수를 살펴보면 5~99인 사업체 종사자가 40.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8.0%), 1~4인 사업장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종시 내 산업단지는 2015년 기준 14개이며, 분양률은 95.8%에 달함(세종특별자치시, 2016a).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59.9%로 나타남(세종특별자치시, 2016a).
 - 남성은 70.7%, 여성은 48.8%임.

□ 주택

- 세종시 가구의 62.4%는 아파트에, 31.1%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16e).
-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음.

24) 세종시청 홈페이지. 세종소개-세종의 현재-기본현황.

〈표 4-42〉 세종특별자치시의 거처 현황,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세종시								
가구	75,219	72,811	23,366	46,921	726	940	858	2,408
구성비	100.0	96.8	31.1	62.4	1.0	1.2	1.1	3.2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 4-43〉 세종특별자치시의 아파트 건립 동향, 2012~2014

(단위: 동, 호)

	2012	2013	2014
동 수	280	61	229
가구 수	20,830	4,076	17,001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16a). 제3회 2015년 세종통계연보.

마. 정책적 요소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대책들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 분위기 조성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자녀 1명당 120만 원 지원.
 - 보건의료사업으로 엄마건강 아가사랑 프로젝트, 임신부 기형아검사 및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아빠랑~육아 서포터스, 세종맘 카페와 함께하는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표 4-44〉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출산대책(자체 주요 사업 기준) 현황, 2015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엄마건강, 아가사랑 프로젝트	고위험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임부 또는 분만 8주 이내 산부, 출생 4주 이내의 신생아	- 고위험 및 이주여성 가구 선정 방문간호(가구당 5회) • 신생아 목욕법 교육, 제대, 눈곱, 배꼽, 황달 관리, 피부관리(발진, 땀띠 등), 모유수유 지도, 산모 산후 부종관리, 출산 후 가족계획 상담, 자궁암 검진안내 등
아빠랑~육아 서포터스	25~45세 이하 결혼 예정 및 결혼한 남성	- 육아서포터스 선발, 전문교육 실시 후 가정에서는 육아를 분담하고 세종시 저출산 관련 서포터스로 활동
출산장려금 지원	세종시 부모 모두 주소 두고 출생신고 하는 자	- 자녀의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1회 120만 원 지급
임산부 기형아검사 및 초음파 검사비 지원	임신 5개월 이상 된 임산부	- 가임기간 중 1회 검진 실시(관내 산부인과 의원에 검진 의뢰) - 기형아 검사비(본인 부담금) 및 초음파 검진비 중 1회 지원 - 임산부 건강검진과 병행
세종맘 카페와 함께하는 출산장려 프로그램	세종시 주민 전체	- 세종맘 카페를 활용한 육아나눔코너 및 임신, 출산, 육아 상담코너 운영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자로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해 오고, 대규모 택지와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연구원들이 대거 유입하였음.

○ 여기에 더해 주택, 교육 등을 이유로 인근 대전광역시와 충북 및 충남 지역에서도 20대 중반~30대 중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순유입 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이들과 함께 영유아 인구의 유입도 큰데 이는 가구 단위로 유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 혼인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1인 가구의 비율도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혼인 발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직장 이전에 따른 기러기 가구, 주말 가구 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음.
-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 높는데 이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특성상, 민간 기업 종사자에 비해 일-가정양립제도 이용이 용이하고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예상.
 - 실제 공무원의 출산율은 다른 직종 종사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이삼식 등, 2014).
 -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 출산이 비교적 많고, 둘째아 이상에서의 출산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이는 이주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어 아직 출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4. 전라남도 광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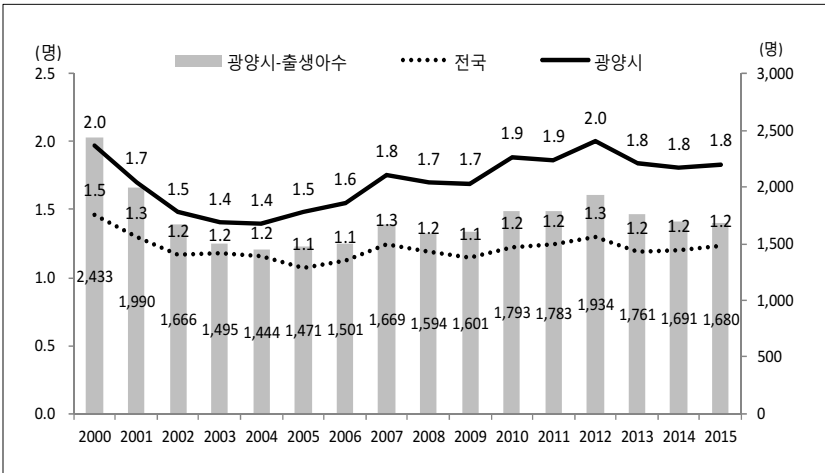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2015년 5.8%로 전국 수준(5.9%)과 유사하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 2,433명에서 2004년 1,444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통계청, 2016b).
 - 2012년 1,934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1,680명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1.84명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2001년 이래 1.7~2.0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8명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음.
- 2015년 출생아수는 2002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출산율의 경우에는 2002년 1.479명, 2015년 1.835명으로 0.356명의 차이가 나타남.
 - 이는 그간 가임기 여성 인구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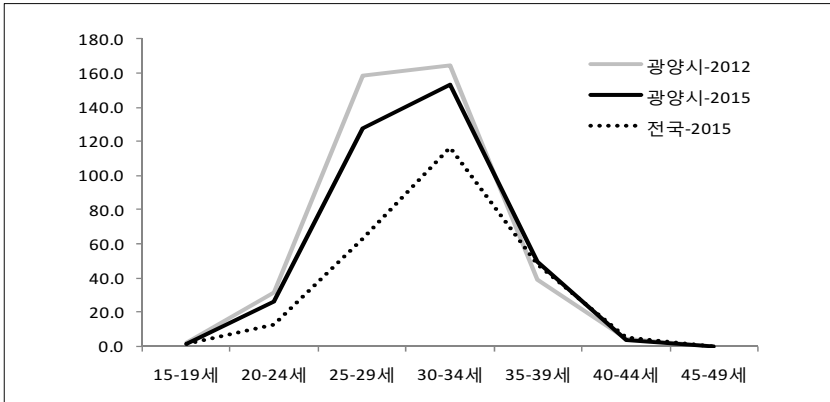
[그림 4-32] 전라남도 광양시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127.9(전국 63.1), 30~34세 출산율은 169.7(전국 116.7)로 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b).
 - 특히, 25~29세 출산율이 전국 수준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그림 4-33] 전라남도 광양시의 연령별 출산율, 2012,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2.1%로 전국 수준(9.7%)과 중소도시 평균(11.8%)에 비해 높으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과는 유사한 수준임.
- 둘째아 비율은 39.7%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중소도시 평균(39.2%)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4-45〉 전라남도 광양시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 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중소도시 평균	78	49.0	39.2	11.8
전남 광양시	-	48.2	39.7	12.1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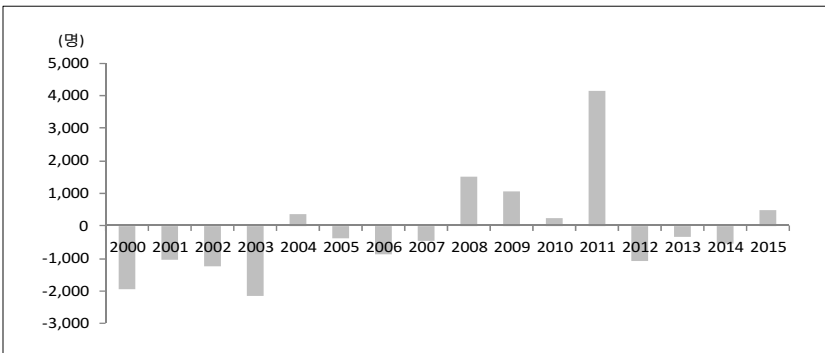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전라남도 광양시의 순이동률은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순이동률은 2008~2011년 사이에 정(+)의 방향이었고 2011년에는 2.8%로 2000년대 들어 최고 수준을 보였으나, 2012년 -0.7%로 감소하였음.
 -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2015년 기준으로 0.3%로 나타남.

[그림 4-34] 전라남도 광양시의 순이동자수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주로 경상남도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 연령별 순이동자 규모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가임 계층의 순유입 규모가 컸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규모가 감소하였음.
 - 가임 계층에서는 인구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영유아와 학령기 인구의 경우 유입보다 유출이 더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양육 환경 및 교육 인프라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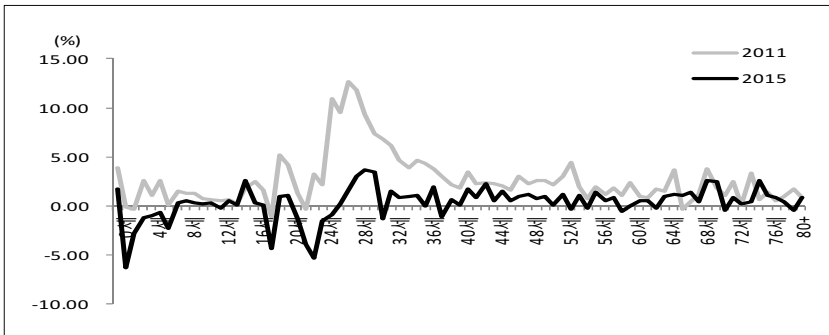
〈표 4-46〉 전라남도 광양시의 전입 및 전출지별 인구이동, 2014

	전입지별 인구이동 (타 시·도→광양시)	전출지별 인구이동 (광양시→타 시·도)	순이동
계	12,058	12,210	-
서울	807	1,009	-
부산	422	457	-
대구	133	110	+
인천	205	177	+
광주	839	785	+
대전	118	147	-
울산	109	87	+
경기	780	800	-
강원	81	93	-
충북	94	87	+
충남	205	253	-
전북	368	333	+
전남	6,743	6,869	-
경북	256	240	+
경남	848	695	+
제주	40	50	-

주: 통계연보 내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별도로 구분해 두지 않음.

자료: 전라남도 광양시(2016a). 2015년 통계연보.

〔그림 4-35〕 전라남도 광양시의 연령별 순이동률, 2011,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의 2.0%(전국 3.4%)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 중 40.4%는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31.1%는 외국인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 광양시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와 산업단지 와 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표 4-47〉 전라남도 광양시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152,097	3,021	2.0	531	648	181	19	360	310	35	937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2015년 기준 15만 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25.4%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 도시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9.5%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3.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중소도시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7.4%, 30~34세 76.7%로 전국과 중소도시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10.7%로 인구구조는 아직 전국 수준(12.9%)에 비해 젊은 편에 속함(통계청, 2016d).
- 광양시의 2016년 11월 기준 평균 연령은 38.9세(전국 41.0세, 전남 44.4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해당(전라남도 광양시, 2016b)

□ 가구

- 평균 가구원 수는 2.6명(전국 2.5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5.3%(전국 27.2%)임(통계청, 2016e).
 - 특히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

〈표 4-48〉 전라남도 광양시의 가구주(15~49세) 연령별 1인 가구, 2015

(단위: %)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남 광양시	86.7	73.2	48.5	28.1	21.3	19.9	16.7
전국	91.9	79.3	63.0	36.2	23.3	19.5	17.8

자료: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표본편.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입지한 물류 중심의 항만도시로 1989년 광양군의 일부가 동광양시로 분리되었으나 1995년에 통합하여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짐.²⁵⁾

- 지리적으로 순천시와 인접함.

□ 산업 및 직업

- 2014년 기준으로 사업체는 1만 871개, 종사자는 6만 9,097명임(전라남도 광양시, 2016a).
 - 종사자들의 3분의 1 정도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업단지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전라남도 광양시, 2016c)

□ 주택

- 광양시 가구의 61.8%는 아파트에, 28.9%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음(통계청, 2016e).
 -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9%(전국 수준 3.7%)로 나타남.

〈표 4-49〉 전라남도 광양시의 거처 종류, 2015

(단위: 가구, %)

	전체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0.0	96.3	35.3	48.1	2.2	8.9	1.7	3.7
광양시								
가구	54,018	53,018	15,617	33,398	2,391	565	1,047	1,000
구성비	100.0	98.1	28.9	61.8	4.4	1.0	1.9	1.9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 아파트 건립은 지속되어 왔음.

〈표 4-50〉 전라남도 광양시의 아파트 건립 추이, 2010~2014

(단위: 동, 세대)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12	16	15	28	16
세대 수	937	1,256	1,300	2,113	1,645

자료: 전라남도 광양시(2016a). 2015년 통계연보.

□ 의료 인프라

- 광양시 내에 산부인과는 2개가 운영되고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광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출산대책으로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방식으로는 출생 시와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연도별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음.
- 총액 기준으로,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 200만 원, 셋째아의 경우 500만 원, 넷째아의 경우 1,000만 원, 다섯째 이상의 경우 2,000만 원임.

〈표 4-51〉 전라남도 광양시의 저출산대책 현황(자체 주요 사업 기준), 2015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둘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 첫째아 및 둘째아: 200만 원 (출생 시 100만 원, 둘 100만 원) - 셋째아: 500만 원 (출생 시 100만 원, 매년 100만 원 4년간) - 넷째아: 1,0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매년 200만 원 4년간) - 다섯째 이상: 2,0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매년 200만 원 9년간)

자료: 광양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복지정보-출산장려시책. <http://www.gwangyang.go.kr>

바. 함의

□ 전남 광양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3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음.

- 광양시의 경우 일자리가 풍부하고 아파트 건립도 지속되는 등 젊은 층에

대한 흡입 요인은 있으나, 산부인과는 2개에 그치는 등 일부 정주 여건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30~40대의 주간인구지수는 110을 상회하는데 이는 인근 지역에 주거지를 두고 광양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경향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광양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임기 인구의 비중은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30대에서의 인구 순유입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감소하였음.

□ 그 결과 출산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출생아수 규모는 최근 들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는 광양시에 가임기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수 감소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경우에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임.

제 5 장

농촌 지역 출산 관련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 농촌 지역

제2절 고출산 농촌 지역

5

농촌 지역 출산 관련 모니터링 <<

제1절 저출산 농촌 지역

1. 경상남도 합천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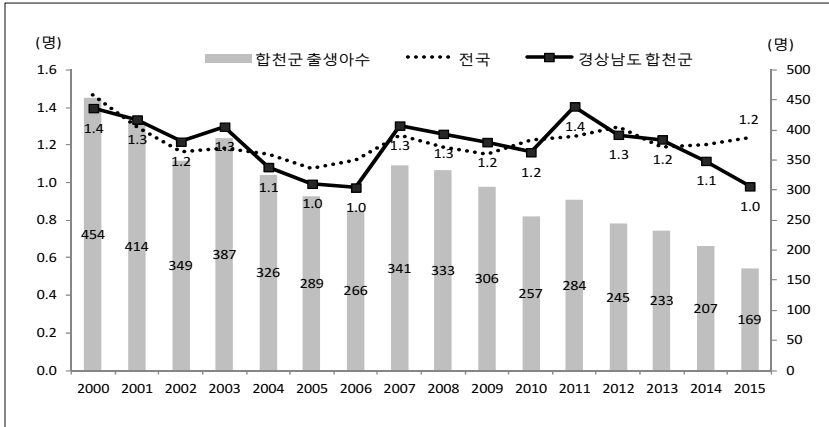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3.4%으로 전국 수준(5.9%)에 비해 낮은 수준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대 초반 400명 수준에서 2015년 현재 169명까지 감소하였음.
-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나타남.
 - 2005~2006년 1.0명 수준에서 2007~2008년 1.3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2011년에는 1.4명 수준까지 높아졌음.
 - 그러나 2011년 1.406명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2015년에는 1명 미만까지 낮아짐.
 - 과거에는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2년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 가임기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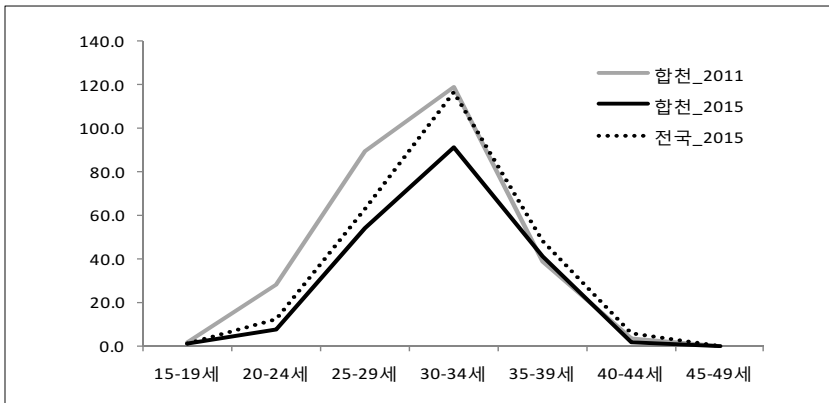
- 특히 25~29세(53.9)와 30~34세(91.3)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5-1] 경상남도 합천군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그림 5-2] 경상남도 합천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1,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9.6%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군 평균(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둘째아 비율은 36.3%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5-1〉 경상남도 합천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69	45.5	38.3	16.1
경남 합천군	-	44.0	36.3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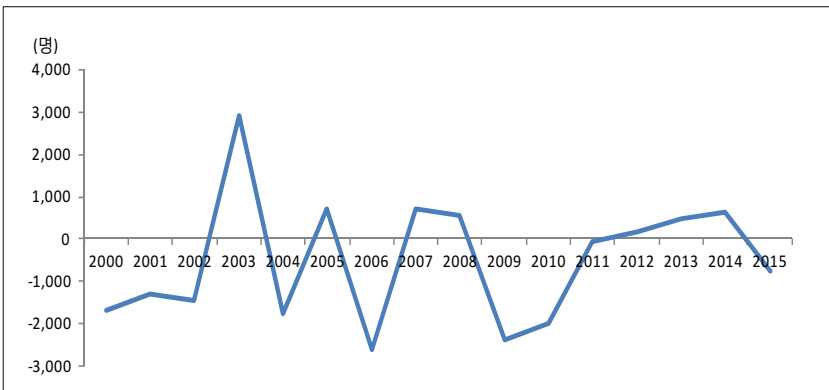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합천군 순이동 인구는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11년부터는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다가 2015년에 다시 순유출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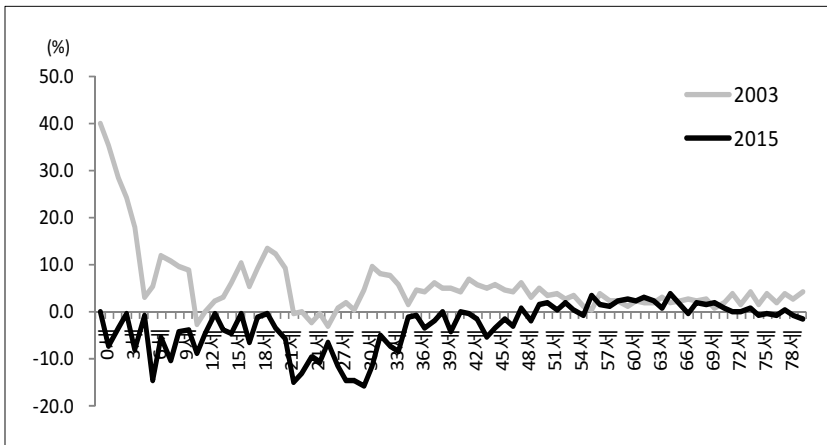
〔그림 5-3〕 경상남도 합천군의 순이동자수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인구의 순유입이 가장 컸었던 2003년에는 20~30대와 이들의 자녀세대의 유입이 컸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이들의 경우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2~3년간의 인구의 순이동은 젊은 층보다는 50~60대의 장년층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들마저도 최근 순유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그림 5-4] 경상남도 합천군 연령별 순이동률, 2003,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주간인구지수는 104로 나타남.
- 유입 인구(2,434명) 중 98.2%는 통근에 의한 인구이며, 유출 인구(566명) 중 64.0%는 통근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이동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 중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2.3%로 전국 수준(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41.5%는 외국인 근로자이며, 결혼이민 및 혼인귀화자는 37.6%로 나타남.

〈표 5-2〉 경상남도 합천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50,457	1,156	2.3	155	317	52	0	100	132	7	393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총인구는 1990년대 초반에 7만 명을 상회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 6만 명 수준 그리고 최근에는 5만 명을 하회하고 있음.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4.4%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0.2%,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2.8%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가 30.7%로 전국보다는 높고, 군 전체에 비해서는 낮음(통계청, 2016d).
 - 30~34세는 69.5%로 전국, 군 전체에 비해 높음.

〈표 5-3〉 경상남도 합천군의 여성 연령 구조 및 기혼 비율, 2015

(단위: %)

구분	총인구 중 15~49세 비율	15~49세 중 비율			기혼 비율	
		25~29세	30~34세		25~29세	30~34세
전국 수준	25.1	11.7	14.5	전국 수준	22.7	62.5
전국 평균	21.9	11.3	13.9	-		
군 평균	17.1	10.9	12.9	군 수준	33.7	56.1
경남 합천군	14.4	10.2	12.8	합천군	30.7	69.5

자료: 1) 가임기여성인구의 비율과 총인구 중 가임기여성 비율은 통계청(2016). 2015 주민등록연앙인구.

2) 미혼율은 통계청(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편.

□ 인구고령화

- 총인구 중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은 2015년 34.4%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함(통계청, 2016d).

□ 가구

- 경상남도 합천군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e).
-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37.4%로 전국(10.8%)보다 높은 수준임(통계청, 2016e).
- 1인 가구의 64.5%는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임.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합천군은 경상남도 총면적의 9.4%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가 많이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음.
- 지리적으로 합천군은 동남으로는 창녕군·의령군, 서쪽으로는 거창군·산청군, 북쪽으로는 고령군·성주군과 인접함.²⁶⁾

- 군 내에 광주~대구 간 88고속도로가 지나가며, 국도 24, 26, 30, 33호선이 통과하여 대구, 진주, 마산, 부산 등 지역 간 이동이 용이.
- 한편, 합천군은 지형 및 지세가 험준하고 협곡이 많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은 불리.

□ 산업 및 직업

- 군 내 사업체는 2014년 기준 3,626개이며, 종사자는 1만 2,957명으로 나타남(경상남도 합천군, 2016).
- 사업체 구성비는 도소매업(24.8%), 숙박·음식점업(21.8%), 제조업(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5인 미만의 사업체가 8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군 내에 3개의 농공단지가 가동 중에 있음(경상남도 합천군, 2016).
- 3개 농공단지 내 가동업체는 2014년 기준 총 43개(가동률 93.0%)이며, 종업원 수는 672명임.
-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비스 판매 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4〉 경상남도 합천군의 직업별 취업자, 2014 하반기

(단위: 천 명, %)

	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규모	29.2	2.0	2.1	4.8	14.5	3.4	2.4
비율	100.0	6.9	7.2	16.4	49.7	11.6	8.2

자료: 경상남도 합천군(2016). 2015년도 통계연보.

□ 주택

- 주택보급률은 110.36%로 나타남.
- 주택으로는 단독주택이 91.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5-5〉 경상남도 합천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4

(단위: 가구, 호, %)

	일반 가구 수	전체	종류별 주택수						주택 보급률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다가구주택					
2014	24,551	27,095	24,831	405	1,375	262	160	62	110.36
비율	-	100.0	91.6	1.5	5.1	1.0	0.6	0.2	

자료: 경상남도 합천군(2016). 2015년도 통계연보.

□ 인프라

- 경상남도 합천군은 분만취약지역에 해당(보건복지부, 2016.11.7.일자 보도자료)
 - * 분만취약지역 : 60분내 분만의료 이용율이 30% 미만이고, 60분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한 가임여성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마. 정책적 요소

□ 출산축하금은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첫째아는 5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표 5-6〉 경상남도 합천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출산 지원금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모와 자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70 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경상남도 합천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농업이 주요 직종이고, 인근 대도시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지리적인 특성을 가짐.
 -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생활환경 등이 열악한 데다가 인근 대도시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 관계로 젊은 층의 유출이 지속되어, 혼인율도 낮게 나타남.
- 그 결과 최근 들어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셋째아 이상의 다출산 경향은 높은 편이나 전체적인 출산 감소로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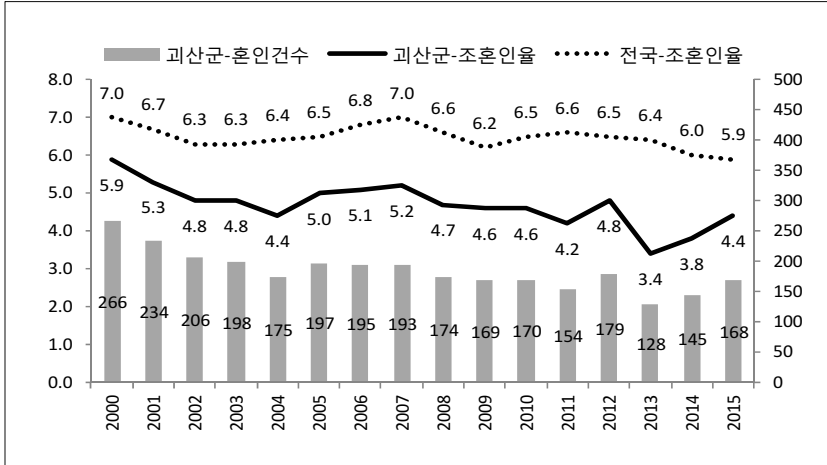
2. 충청북도 괴산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 혼인 건수는 2013년 128건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조혼인율은 2013년 3.4%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난 후 반등하여 2015년 기준 4.4%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국 수준(5.9%)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5-5] 충청북도 괴산군의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2000~2015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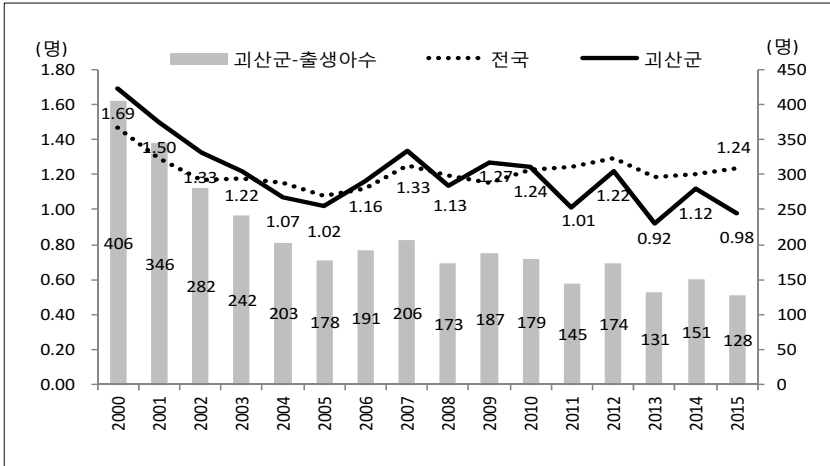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혼인). <http://kosis.kr>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128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합계출산율은 2010년까지 전국 수준과 유사하거나 높았던 반면, 이후에는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괴산군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은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11년에는 거의 1명 수준, 2013년과 2015년에는 1명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그간 전국적 현상으로서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괴산군의 출산율 감소 폭은 더 큰 경향을 보임.
- 많은 지자체들이 2005년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이후에는 다소나마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충청북도 괴산군의 경우에는 2005년에 비

해 최근의 출산 지표들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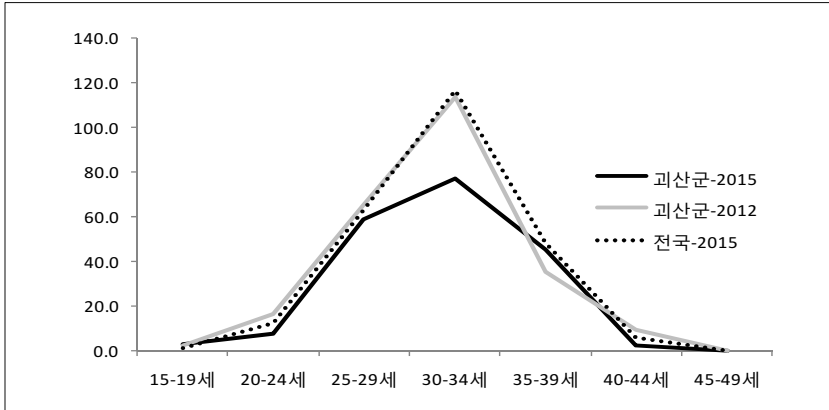
[그림 5-6] 충청북도 괴산군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25~29세 58.7(전국 기준 63.1), 30~34세 77.3(전국 기준 116.7)으로 낮은 수준.
-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12년 연령별 출산율과 비교하여 보면,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이 감소하였음.
 - 특히, 30~34세의 출산율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21.1%로 전국 수준(9.7%),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군 평균(16.1%)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첫째아나 둘째아 비율은 전국 수준,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군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5-7]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2,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표 5-7〉 충청북도 괴산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82	45.5	38.3	16.1
충북 괴산군	-	42.2	36.7	21.1

주: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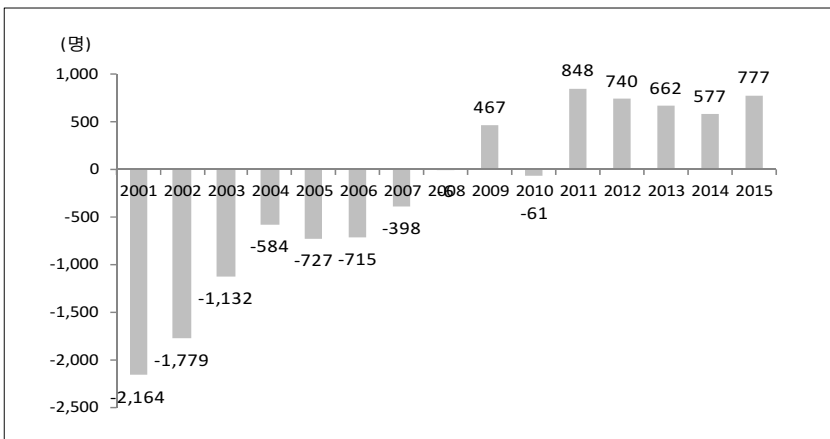
□ 국내 이동

- 대체적으로 2010년까지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지역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중원대 학생 수 증가,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전, 산막이 옛길, 발효식품농공단지, 괴산대제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 교육여건 개선, 생활권통합 시책장려,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등 정주기

반여건이 개선되면서 인구가 증가(괴산군 2016. 1. 13. 보도자료).

- 2001년부터 지난 10년간 귀농·귀촌한 가구는 1,201가구, 인구는 2,321명이며, 2015년 괴산군으로 보금자리를 옮긴 귀농·귀촌인은 477가구, 765명으로 2014년 대비 220가구, 434명이 증가(괴산군 2016. 3. 23. 보도자료).
- 괴산군으로의 전입은 지역별로 충북, 경기, 서울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인천, 대전이 높은 비율을 보임. 괴산군 내에서는 청천·청안면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많음(괴산군 2016. 3. 23.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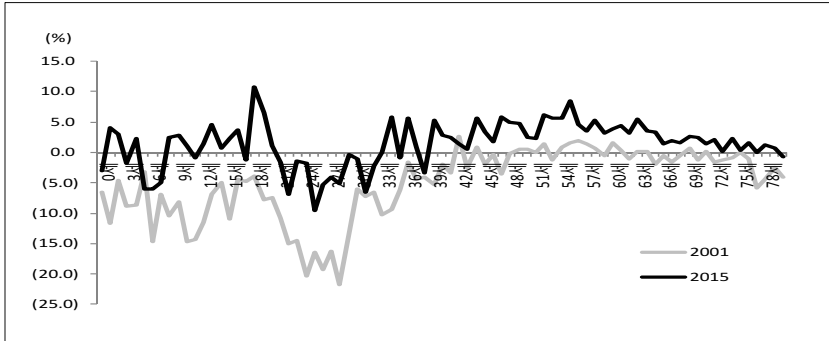
[그림 5-8] 충청북도 괴산군의 인구 순이동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과거 인구유출이 많았던 시기에는 유출이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유출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일부 연령층에서는 순유입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의 인구 순유입은 중장년층의 유입 증가에 기인.

[그림 5-9]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1,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괴산군의 주간인구지수가 111.2로 타 지역에서 통근을 목적으로 주간에 유입하는 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음(통계청, 2011).
- 특히 주간인구지수는 30대에서 140대 후반 수준으로 나타남.

〈표 5-8〉 충청북도 괴산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합계 ¹⁾	111.2	119.4	103.7
20~24세	104.6	105.0	104.2
25~29세	110.5	109.4	111.9
30~34세	145.7	159.7	129.5
35~39세	147.6	161.5	128.5
40~44세	138.2	163.5	111.6
45~49세	129.3	151.5	105.0
50~54세	118.4	130.8	104.9
55~59세	112.2	122.6	102.2

주: 1) 합계는 모든 연령층에 대한 값임.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국제 이동

- 전체 주민 중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3.1%(전국 3.4%)로 전국과 유사한 수준(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그 자녀 제외)의 구성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47.1%,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28.2% 등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다문화가족(베트남, 필리핀 등이 주 출신지)은 220가구 정도로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음.
- 전체 주민 중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의 비중은 약 0.9%로 나타나 전체 출산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할 것으로 판단됨.

〈표 5-9〉 충청북도 괴산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38,351	1,177	3.1	146	412	119	28	65	101	4	302

자료: 행정자치부(2016).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2015년 기준 총인구는 3만 9,000명으로 2008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행정자치부, 2016b).
 - 2008년 중원대학교가 설립되고 2009년 3월에 개교.
 - 인구 증가는 귀농·귀촌에 의한 것으로 젊은 층보다는 주로 50대에서 발생.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4.5%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4%로 전국보다는 낮고,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1.7%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낮음.
- 기혼 비율은 25~29세가 31.%로 전국에 비해서는 높으나, 군 전체에 비해서는 낮음(통계청, 2016d).
- 30~34세는 62.5%로 전국에 비해 다소 낮고, 군 전체에 비해서는 높음.

□ 가구

- 괴산군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으로 전국(2.5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d).
- 1인 가구의 비율은 34.3%로 전국(27.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
- 전체 1인 가구 중 48.4%는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에 해당.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괴산군의 총면적은 842.4km²로 충청북도의 11.3%를 차지하고 있음(충청북도 괴산군, 2015a).
- 괴산군은 충청북도 중앙에 위치하며, 증평, 음성, 충주, 문경, 상주, 보은과 인접해 있음(충청북도 괴산군, 2015a).
- 인근의 주요 도시는 청주시와 충주시가 있음.

- 괴산의 지형은 산지가 많고 평지가 적어 교통이 불편하고, 기업체 유치와 문화시설 확보도 미흡함(충청북도 괴산군, 2015a).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는 2014년 기준 2,830개이며, 종사자는 1만 2,363명으로 나타남(충청북도 괴산군, 2016a).
 - 사업체의 91.9%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임.
- 2014년 현재 농공단지 2개(임주업체는 13개)에 1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종업원은 809명임(충청북도 괴산군, 2016a).
 - 괴산대제산업단지와 괴산발효식품농공단지를 개발할 예정임.
 - 괴산첨단지방산업단지 진행 중.
- 2014년 하반기 기준 괴산군 전체 연령의 평균 고용률은 67.8%(전국 60.9%, 도내 평균 63.8%)로 도내에서 음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충청북도 괴산군, 2015b).
 - 15~64세 고용률은 77.1%에 달함.
 -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총 7개 사업 추진(877개 일자리 창출).

□ 주택

-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78.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11.6%), 다가구주택(4.7%) 등으로 나타남.
- 주택보급률은 130.5%임

〈표 5-10〉 충청북도 괴산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4

(단위: 가구, 호, %)

연별	일반 가구 수	주택수						주택 보급률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014	13,449	17,549	13,805	818	2,037	306	583	130.5
구성비	-	100.0	78.7	4.7	11.6	1.7	3.3	

자료: 충청북도 괴산군(2016a). 2015년 통계연보.

- 전체 가구의 83.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4.7%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음.

〈표 5-11〉 충청북도 괴산군 거처의 종류별 가구, 2015

(단위: 호, %)

	계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15	15,611	14,872	12,978	932	242	399	321	739
구성비	100.0	95.3	83.1	6.0	1.6	2.6	2.1	4.7

자료: 통계청(2016e). 2015 인구주택총조사.

- 2010년 이래 아파트 건립은 2012년 2개 동 170가구 규모로 건립되었음
(충청북도 괴산군, 2016a).

〈표 5-12〉 충청북도 괴산군의 아파트 건립 동향

(단위: 호)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	-	2	-	-
주택 수	-	-	170	-	-

자료: 충청북도 괴산군청(2016a). 2015년 통계연보.

- 그러나 괴산군은 최근 산업단지 조성, 중원대학교 수요,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에 힘입어 2018년까지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유
치, 주민행복공원 조성,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충청북도 괴산군, 2016b).

- 발효식품농공단지, 대제산업단지, 유기식품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입주와 중원대학교 수요에 맞추어 괴산읍 일원에 1,000 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립 예정(현재까지 254세대 준공).
- 하반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행복 마을권 사업 토지 보상을 실시하는 등 추가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
- 이와 함께 괴산군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괴산읍 동부리 일원에 1,650m²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 주민행복공원을 조성할 예정.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마을에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 재해, 안전, 위생, 노후주택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

□ 교육 및 인프라

- 교육시설은 대학교 1개, 고등학교 2개가 소재함.
- 괴산군의 경우 그간 산부인과가 개설되지 않았다가 2016년 보건복지부의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산부인과 운영 예정.

마. 정책적 요소

- 괴산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지원, 보건 의료사업, 결혼 지원,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적 지원 대책으로는 첫째아 출산 육아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모자건강교실 운영,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결혼 관련 지원으로는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예식장 비용 지원이 있음.
 - 현재 괴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결혼하는 경우 예식장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결혼장려금(부부 각각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 및 교복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표 5-13〉 충청북도 괴산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첫째아 출산 육아용품 지원	출산 6개월 전 출산아 부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 첫째아 1인 50만 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
모자건강교실 운영	관내 임신부 및 영유아	-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셋째 주 목요일 월 3회 대상군별로 임신부 요가, 영유아 이유식, 베이비 마사지, 유아 영양관리, 모유수유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내 어린이	- (5월 5일) 기념식 및 운동회 체험행사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 및 교복지원	한부모 가족 자녀	- 학용품 구입 및 교복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관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	- 1인당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	- 1인 월 2만 5,000원 건강보험료(암, 질병, 상해, 골절치료비 등)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예식장 비용 지원	관내에 주소지를 3개월 이상 두고 관내 결혼식장 이용 시	- 남녀 각각 100만 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합의

- 충청북도 괴산군은 농촌 지역이면서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음.
 - 관내에는 농공단지 2개와 영세 사업체들이 있음.
- 괴산군의 총인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의 순유입은 관내 위치한 대학의 영향으로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인구, 그리고 귀농·귀촌 등에 의한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음.
 -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는 대체적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
- 괴산군의 경우 농촌으로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정주 여건이 미흡한 경향이 있음.
 - 주간인구지수가 특히 3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정주 여건 등의 미흡으로 일자리를 괴산군에서 두터라도 생활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러한 경향이 어린 자녀를 둔 30대(특히 남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괴산군에서 생활,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여건이 미흡함을 의미함.
-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상 셋째아 이상의 다출산 경향은 높으나 출생아수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음.
 - 이는 괴산군의 가임기 인구 유출이 크고 출산 이행의 경향도 줄어들어 출산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3. 경상북도 청도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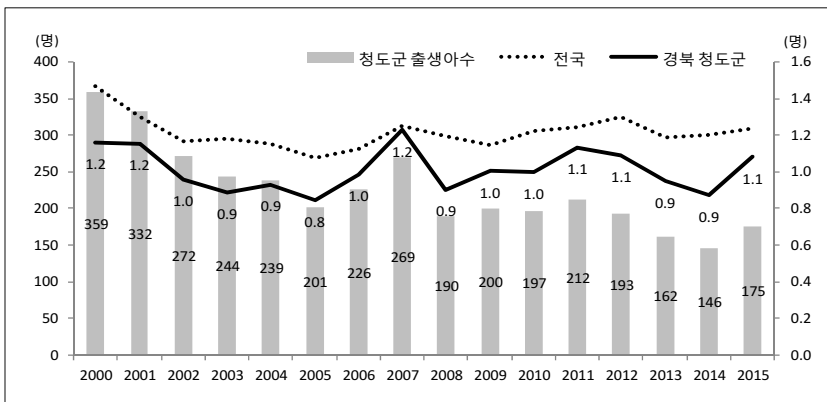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3.5%로 전국 수준(5.9%)에 비해 낮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통계청, 2016a).
-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48세(전국 32.57세), 여성 30.66세(전국 29.96세)로 만혼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음.

□ 출산 동향

- 총출생아수는 2004년 146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는 다소 상승하여 175명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모든 연도에서 전국 수준보다 낮고, 2015년에는 1.081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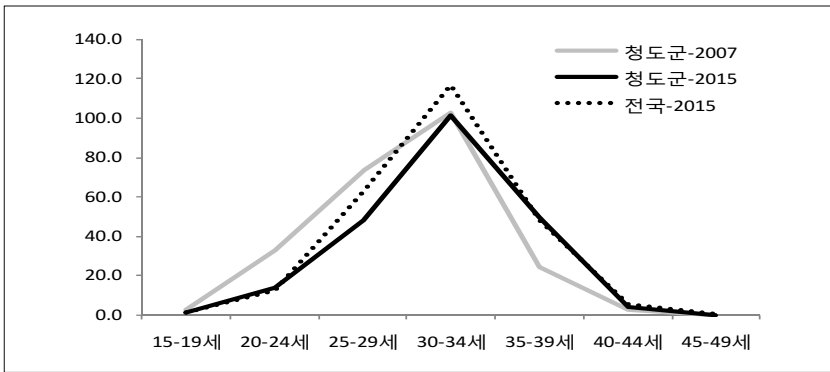
[그림 5-10] 경상북도 청도군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가임기 전 연령층에서 출산율이 전국보다 낮은 수준임.
- 특히 25~29세(47.9)와 30~34세(101.6)에서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그림 5-11] 경상북도 청도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7,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총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2.1%로 전국 수준(9.7%)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과 군 평균(1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둘째아 비율은 42.5%로 전국 수준(38.0%)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5-14〉 경상북도 청도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

구분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52.3	38.0	9.7
전국 평균	49.5	38.2	12.3
군 평균	45.5	38.3	16.1
경북 청도군	45.4	42.5	12.1

주: 1)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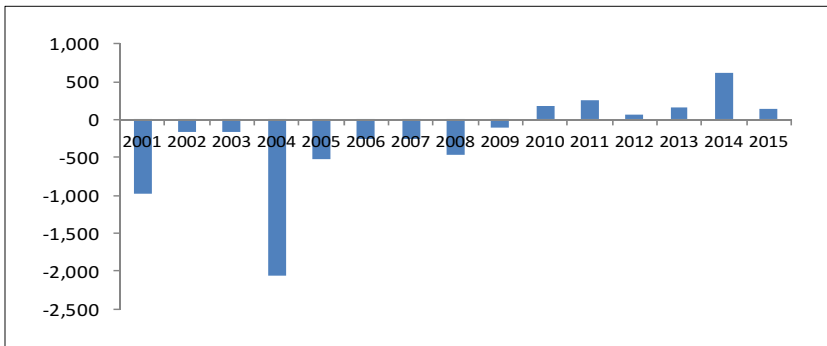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청도군의 인구이동을 보면 2010년부터 인구의 순이동이 정(+)의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그림 5-12] 경상북도 청도군 순이동자 추이, 2001~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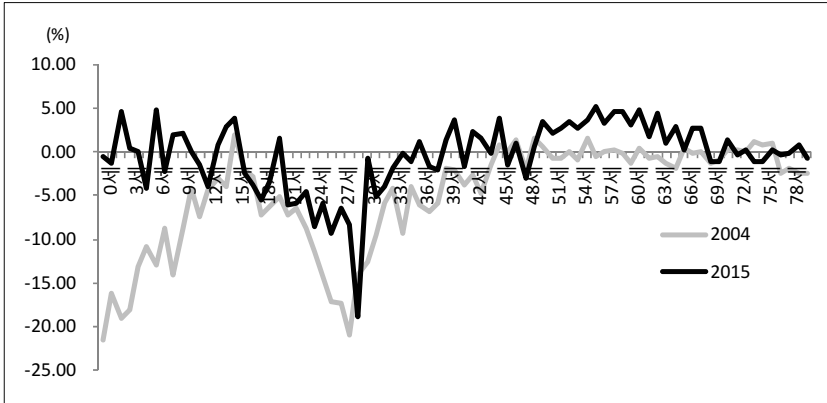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순유입이 있고, 20~30대 초반에 서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 장노년층의 유입이 지속되는 것은 귀농가구 증가에 기인.²⁷⁾
- 청도군의 주간인구지수는 107.7로 상주하는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1).
 - 특히 30~40대의 주간인구지수는 120~130 수준으로 이들의 경우 주간 에는 일자리로 청도군에 있으나, 실생활은 타 지역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7) 청도군은 경상북도 내에서 김천시, 의성군, 상주시, 영천시에 이어 귀농 유입가구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g).

[그림 5-13] 경상북도 청도군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2004,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표 5-15〉 경상북도 청도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07.7	111.0	104.9
20~24세	95.5	94.3	96.7
25~29세	114.0	111.1	117.1
30~34세	121.1	124.3	117.9
35~39세	122.7	131.4	113.8
40~44세	120.9	126.4	115.0
45~49세	123.0	133.8	113.1

주: 합계는 전체 연령 해당.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국제 이동

- 청도군 주민 중 3.0%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62.1%는 외국인 근로자, 22.8%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6〉 경상북도 청도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43,993	1,298	3.0	155	658	58	0	89	86	13	239

자료: 행정자치부(2016).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청도군 총인구는 2015년 기준 4만 3,724명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4.6%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0.9%로 전국과 기초지자체에 비해 낮고, 군 평균과 동일.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3.5%로 전국과 기초지자체에 비해서는 낮고, 군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가 23.8%로 전국에 비해 높고 군 전체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30~34세는 60.7%로 전국에 비해 낮고, 군 전체에 비해 높음.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31.8%로 고령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d).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지리적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경주시 등과 인접하고 있음.

[그림 5-14] 경상북도 청도군의 지리적 위치



자료: 청도군청 홈페이지. 군 소개-군 기본현황.
<http://www.dc.go.kr>.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3,704개이며, 종사자수는 1만 3,221명임(경상북도 청도군, 2016).
 - 사업체의 87%는 1~4인의 소규모 사업체이며 300인 이상 규모는 1개
 - 종사자들은 제조업(19.3%), 숙박 및 음식점업(15.1%), 도매 및 소매업(15.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1%) 등에 종사하고 있음.
- 청도군에는 청도농공단지과 풍각농공단지 2단지가 운영되고 있음(경상

북도 청도군, 2016).

- 청도 농공단지는 1989년 지정되었으며, 현재 10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풍각농공단지는 1990년 지정되었으며, 26개 정도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음.

□ 주택

- 주택은 단독주택이 88.7%로 압도적으로 높음(경상북도 청도군, 2016).

〈표 5-17〉 경상북도 청도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

(단위: 호, %)

	전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주택 수	21,923	19,445	428	1,675	276	527	103.4
%	100.0	88.7	-	7.6	1.3	2.4	

자료: 경상북도 청도군(2016). 제55회 청도기본통계연보.

- 아파트는 소규모로 건립되어 왔음.

〈표 5-18〉 경상북도 청도군의 아파트 건립 동향

(단위: 호)

	2010	2011	2012	2013	2014
동 수	7	-	2	-	3
주택 수	354	-	114	-	72

주: 사업승인 기준.

자료: 경상북도 청도군(2016). 제55회 청도기본통계연보.

□ 교육 및 인프라

- 청도군의 경우 산부인과가 없었으나, 2016년 3월 보건소에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

마. 정책적 요소

- 경북 청도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각종 저출산대책들을 실시하고 있음.
- 경제적 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공중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은 출산순위와 자녀연령을 결합한 기준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이외 대책들은 출산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청도사랑 산부인과 무료진료, 임신부 스케일링사업, 임신·출산·육아 건강도서코너 운영,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인식개선사업으로 대중매체 주민인식개선 출산장려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표 5-19〉 경상북도 청도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청도사랑 산부인과 무료진료	임신부, 임신 준비여성,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매월 1, 3주 수요일 대구 효성병원 진료 - 초음파진료, 산전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부인과 질환자 진료
임산부 스케일링 사업	임신부 및 출산부	관내 치과의원에서 임신부 및 출산부 스케일링시술 후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육아 건강도서코너 운영	임산부·영유아 부모 등	임신·출산·육아 건강도서, 태교음악 CD 무료 대여
출산장려지원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만 1세 50만 원, 만 2세 100만 원), 셋째아 이상(만 1세 100만 원, 만 2세 100만 원)
신생아 및 입양 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군내에 부모와 자녀가 청도군 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자	1인당 3만 원 이하(5년 지원, 18세까지 보장)
공중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군 내에서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족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이용료의 30% 할인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산후조리원 이용 후 산후조리원 영수증에 의거 100만 원 이하 지급
대중매체 주민인식 개선 출산장려 홍보	지역 주민	시내버스 10대에 임산부 전용 좌석 설치 운영 및 저출산 극복 홍보안 게시, 택시 12대에 저출산 대책 홍보안 게시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경상북도 청도군은 농업 기반 지역으로서 대도시와 인접해 있음.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도 주택, 생활 여건 등이 자녀 양육에 불편함이 없이 구성되어 있다면 관내에 정주하겠지만 청도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산업화 정도가 낮아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 주거 형태,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인근 대구시와 경산시의 생활권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를 나타내듯 30대에서의 유출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20~30대에서의 유출이 활발하며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높아 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음.

- 청도군의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셋째아 이상 다자녀출산 경향은 강하나(주로 고연령층의 경향), 출산이 보다 활발한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제2절 고출산 농촌 지역

1. 전라남도 해남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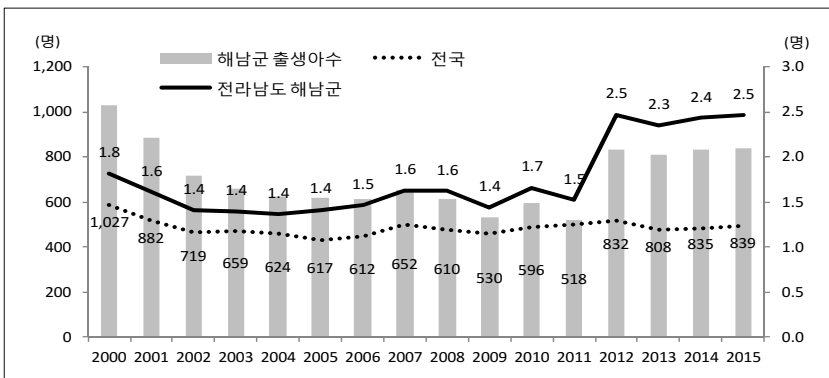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3.9%으로 전국 수준(5.9%)보다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00년 1,000명 수준에서 2011년 518명까지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매년 800명 수준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2.464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음.
 - 2001년 이래 2011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4~1.7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2012년에는 2.5명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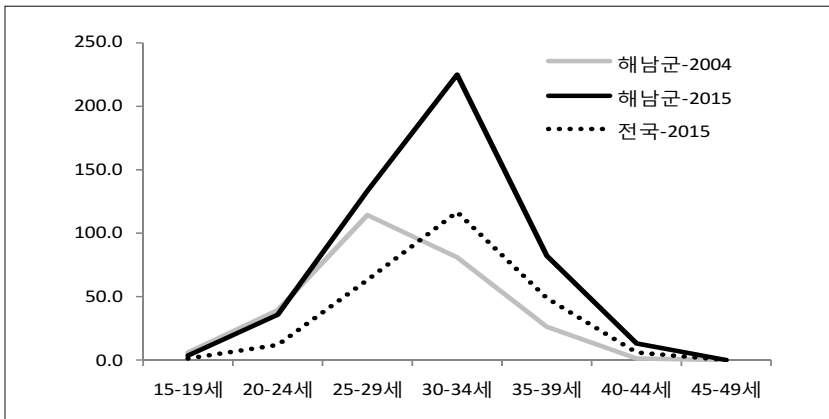
[그림 5-15] 전라남도 해남군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133.0으로 전국 수준(63.1명)을 두 배 이상, 30~34세 출산율도 224.5로 전국 수준(116.7명)을 두 배 정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층에서 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전체 출산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음.

[그림 5-16] 전라남도 해남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4,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전체 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6.1%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높으나 군 지역 평균(16.1%)과는 동일하게 나타남.
- 전체 출생아수 중 둘째아의 비율은 39.0%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요컨대, 해남군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도 전국 군 평균 수준이면서 둘째아 출생아수의 비율도 높아 다출산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진단됨.

〈표 5-20〉 전라남도 해남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82	45.5	38.3	16.1
전남 해남군	-	44.9	39.0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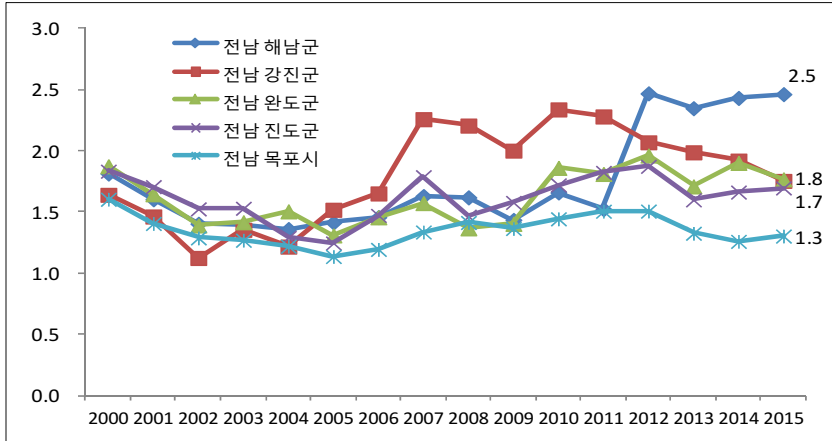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전남 해남군의 합계출산율이 2012년에 급격하게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인근 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남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2015년 1.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합계출산율이 2012년에 낮아지는 것은 이전 추이의 연장선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완도군과 진도군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까지 높아지다가 이후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완도군 1.8명, 진도군 1.7명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임.
 - 2012~2015년 사이 뚜렷하게 낮아지기보다 낮은 수준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남 목포시의 합계출산율은 2012년까지 높아지다가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015년 기준 1.3명).

[그림 5-17] 전라남도 해남군 인근 기초지자체들의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해남군은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하는 인구가 더 많은 경향을 보임.
- 순유출 인구가 2012년 104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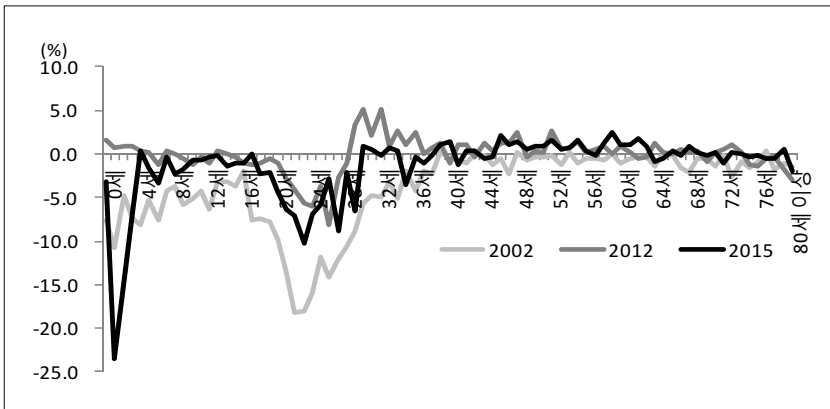
〈표 5-21〉 전라남도 해남군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단위: 명)	
연도	순이동자	연도	순이동자
2001	-2,522	2009	487
2002	-3,777	2010	-1,808
2003	-1,979	2011	-866
2004	-1,843	2012	-104
2005	-1,216	2013	-408
2006	-1,585	2014	-625
2007	-1,623	2015	-753
2008	-1,26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해남군 연령별 순이동자를 보면, 일부 연령층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핵심 가임 계층에서의 순유출 규모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음(특히 30대 초반에는 거의 0에 근접함).
- 한편, 이들의 자녀 세대인 영유아의 순유출은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8] 전라남도 해남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2, 2012,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국제 이동

- 해남군 주민 중 2.9%는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 수준(3.4%)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43.8%는 외국인 근로자, 36.5%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행정자치부, 2016a).
- 농업 및 수산업이 주된 업종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외국인 주민

중 3분의 1은 해남군에서 정착하는 다문화가족으로 나타남.

〈표 5-22〉 전라남도 해남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76,981	2,267	2.9	343	668	98	3	183	213	16	7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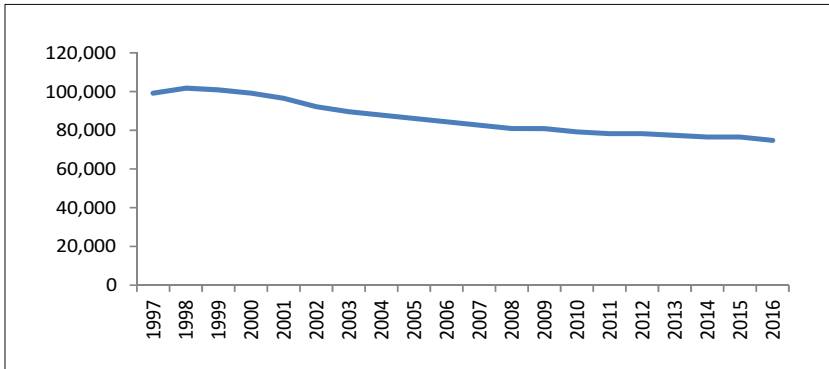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해남군 총인구는 2015년 기준 7만 6,000명으로 1998년 이래 감소 추세 (행정자치부, 2016b).

[그림 5-19] 전라남도 해남군의 총인구 변동 추이, 199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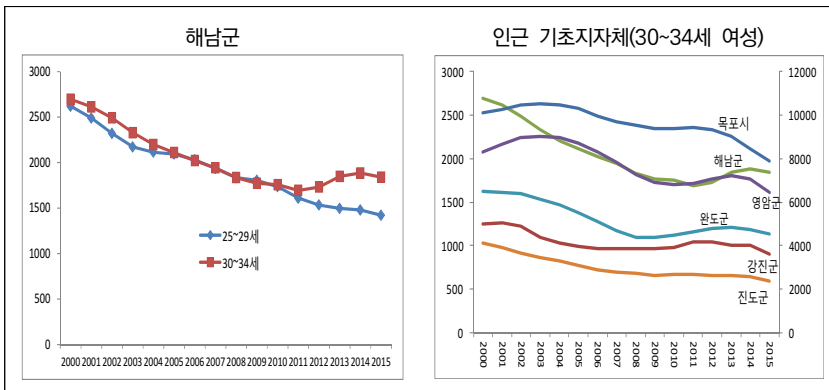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7.0%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자치구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0%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으나, 군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4.2%로 전국보다 낮고,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서는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9.4%, 30~34세 71.4%로 전국 및 군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해남군의 25~29세 여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30~34세 여성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근 기초지자체의 30~34세 여성은 해남군과 달리 대부분 2008년을 저점으로 다소 증가하다가 2012~2013년경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목포시의 경우 2012년부터 30~34세 여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그림 5-20] 전라남도 해남군과 인근 기초지자체의 여성 인구 추이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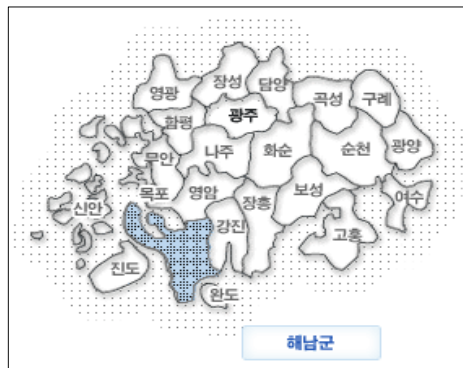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8.0%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전국 수준(12.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6d).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해남군은 동북쪽만이 강진, 영암과 연결된 육지이며 3면은 바다와 접하고 있음.²⁸⁾
 - 전라남도 군 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해양성 기후로 온화하여 농어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바다를 이용한 각종 수산양식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간척사업 등을 통해 많은 농경지가 확보되어 향후 수산업과 농업 분야에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

[그림 5-21] 전라남도 해남군의 지리적 특성



자료: 해남군청 홈페이지. 군정현황-위치.
<http://www.haenam.go.kr>

28) 해남군청 홈페이지. 땅끝해남-해남땅의 탄생-자연환경. <http://www.haenam.go.kr>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5,564개임(전라남도 해남군, 2016).
 - 업종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9.2%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20.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13.8%) 등으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로 보면 전체 사업체의 83.9%가 1~4인의 개인 영세사업장(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9.1% 차지)이며,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1개에 불과.
- 종사자들의 79.2%는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음.

□ 주택

- 주택은 단독주택이 8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 12.6% 등으로 나타남(전라남도 해남군, 2016).
- 가장 최근의 아파트 건립은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4개 동에 263가구가 입주한 것으로 집계됨.

〈표 5-23〉 전라남도 해남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단위: 호, %)

	주택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 보급률
규모	31,784	26,805	133	4,001	441	404	89.9
%	100.0	84.3	-	12.6	1.4	1.3	

자료: 전라남도 해남군(2016). 제55회 통계연보.

마. 정책적 요소

- 해남군은 보건소 전체 예산의 37.6%를 저출산대책에 투입하고 있음.

- 해남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저출산대책들은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환경(분위기) 조성 등으로 구분됨.
- 경제적 지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신생아양육비 지원금을 종래 30만 원에서 2012년부터 첫째아 3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부 산전 검사비 지원 등이 포함됨.
 - 지역사회 환경(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지역신문 게재, 신생아 작명, 땅 끝 아빠 캠프 등이 포함됨.
- 해남군에서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

〈표 5-24〉 전라남도 해남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 첫째아 300만 원(일시금 3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 - 둘째아 350만 원(일시금 80만 원, 매월 15만 원씩 18회 지급) - 셋째아 600만 원(일시금 120만 원, 매월 20만 원씩 24회 지급) - 넷째아 이상 720만 원(일시금 120만 원, 매월 25만 원씩 24회 지급)
지역신문게재	신문게재 참여를 원하는 신생아	- “축”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지역신문 게재하여 신생아 추억 만들기(연중)
산모·아기사랑 택배	관내 출산가정	- 출산가정 출산 축하물품(쇠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 등)
신생아 건강보험료	신생아 양육비지원 신청자 중 셋째아 이상	- 월 3만 원, 5년 납 10년 보장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지원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신청자	- 난임부부 시술의료비 지원 외 소요되는 의료실비, 교통비 등 경비 지원
신생아 작명	작명을 원하는 신생아	- 신생아 재능기부 무료 이름 지어주기

사업명	대상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대상자 및 셋째아 이상 소득초과자	- 전남도 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 원을 받을 시 본인부담금 지원(10만 원)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관내 산부인과 병의원 등 4곳과 협약하여 초음파 검진권 및 기형아 검진권 지급
땅콩 아빠 캠프	관내 주소 둔 만 5세 초 등학생 이하 자녀와 아빠	- 만 5세~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자녀 와 아빠의 1박 2일간 캠프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전라남도 해남군의 지역생태계, 지역 발전, 저출산대책, 공동육아 등
이 결합되면서 가임인구의 지역 정주화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 선호하는 출산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됨.

○ 전남 해남군은 인근에 (대)도시가 없어 출퇴근 및 통학 등 교류가 활발하
지 않고 생활권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관내에서 모든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짐.

-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주된 직종이 농업·수산업이고 산업화(산업단
지 등) 정도는 낮으나 일부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특성을 보임.

□ 미혼층(주로 20대)은 교육, 직업 등을 이유로 이주(순유출)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평균적인
수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생태적으로 일단 관내에서 결혼을 하면 정주화하
는 경향이 강하여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30~34세 여성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속적 감소)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여 가임기 여성의 비율이 평균 수준에 비해 높고, 이들의 결혼율 역시 전체 군 지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해남군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저출산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첫째아 300만 원으로 증액한 시기와 30~34세 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반등하기 시작한 시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아 이상 다출산 경향이 타 지역에 비해 우세하여 30~34세뿐만 아니라 35~39세의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2. 강원도 인제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 결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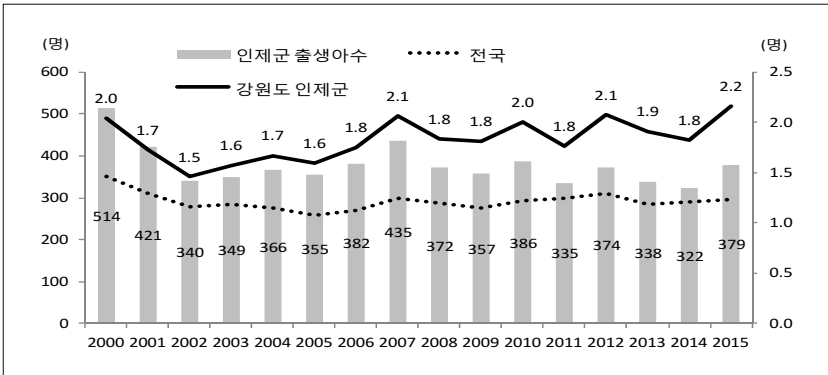
- 조혼인율은 7.5%으로 전국 수준(5.9%)보다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05세(전국 32.57세), 여성 28.49세(전국 29.96세)로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출생아수는 2014년 322명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불규칙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2.161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아주 높은 편임.
 - 2000년 이후에도 1.5명 미만으로 낮아진 적이 없이 1.5~2.2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불규칙하나마 최근에는 다소 상승 추세에 있음.

- 2015년의 합계출산율은 2.161명으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출생아수는 379명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임.
- 이는 인제군에서 과거에 비해 가임기 여성이 감소하였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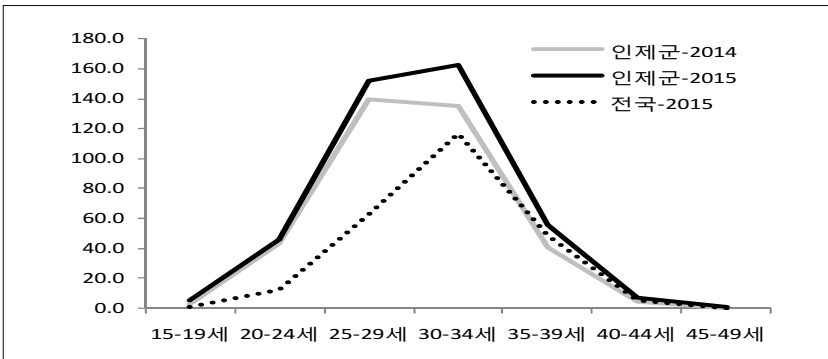
[그림 5-22] 강원도 인제군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152.1로 전국 수준(63.1)을 두 배 이상, 30~34세 출산율은 162.8로 전국 수준(116.7)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3] 강원도 인제군의 연령별 출산율, 2014,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4.5%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높으나 군 지역 평균(16.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의 비율은 37.2%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요컨대, 인제군은 다출산 경향이 도시보다는 높으나 군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5-25〉 강원도 인제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82	45.5	38.3	16.1
강원 인제군	-	48.3	37.2	14.5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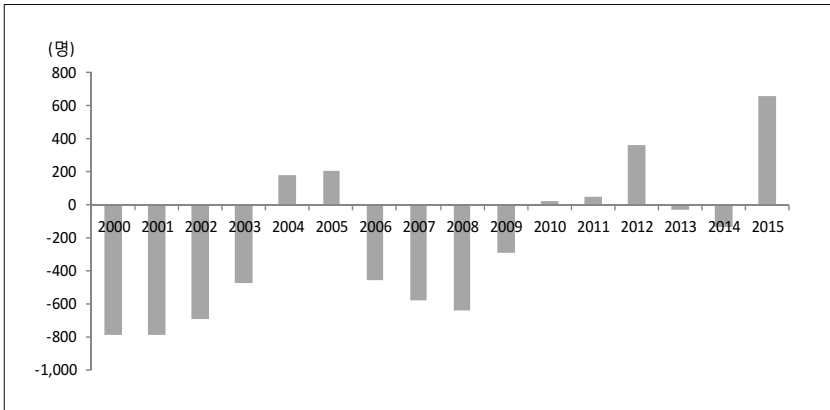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인제군의 인구 순이동 추이는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음.
- 인제군의 인구이동 패턴은 지역 특성상 일반 주민의 이동은 그리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군부대(군인 아파트)의 직업 군인들의 이동 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2015년 인구 순이동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 인구의 순유입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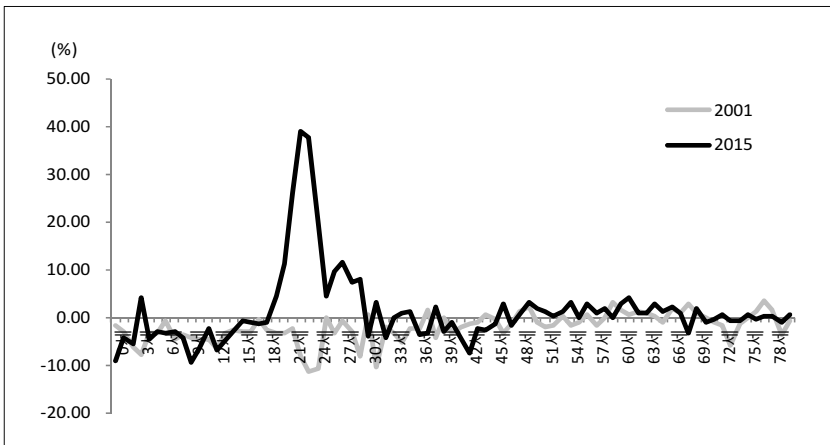
- 그 외 다른 연령층 특히 영유아, 10대, 20대 중반~30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림 5-24] 강원도 인제군의 순이동자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그림 5-25] 강원도 인제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추이, 2001,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인제군으로 유입하는 인구의 40.2%는 강원도 내에서 온 인구이며, 그 외에는 경기도(19.5%), 서울(14.3%) 등으로 나타남(강원도 인제군, 2016).
- 인제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의 45%는 강원도 내 타 시·군·구로 이동하였음.

□ 국제 이동

- 인제군 주민 중 2.2%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에 비해 낮게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38.6%는 외국인 근로자, 36.2%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5-26〉 강원도 인제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32,475	708	2.2	96	190	68	0	46	82	10	216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인제군 총인구는 2015년 기준 3만 3,000명으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증가 추세에 있음(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9.1%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낮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6.0%로 전국, 기초지자체, 군 평균보다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48.3%, 30~34세 86.2%로 전국 및 군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16.8%로 전국 수준(1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d).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위치상 동쪽으로는 속초시와 양양군, 서쪽으로는 춘천시와 양구군, 남쪽으로는 홍천군, 북쪽으로는 고성군·회양군과 인접해 있음.
-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발 800m 이상의 준령이 20여 개 있음.²⁹⁾
- 자연환경 보전구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백두대간 보호법 등의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음.

□ 산업 및 직업

- 관내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3,230개이며, 종사자수는 1만 787명임(강원도 인제군, 2016).
- 종사자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22.4%), 도매 및 소매업(15.5%), 건설업

29) 인제군청 홈페이지. 인제알림-인제소개-행정구역. <http://www.inje.go.kr>

(10.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7%) 등에 종사하고 있음.

- 인제군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1.2%로 높게 나타남(강원도 인제군, 2016).

□ 주택

- 주택은 단독주택이 76.7%로 높고, 그다음으로 아파트(17.1%) 등의 순임.

〈표 5-27〉 강원도 인제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4년

(단위: 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보급률
규모	13,511	10,367	2,310	393	441	125.53
%		76.7	17.1	2.9	3.3	

자료: 강원도 인제군(2016). 2015년 제53회 통계연보.

-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 소유가 64.8%이고 그다음으로 무상(관사, 사택 등)이 17.4%로 나타남.
- 군인 아파트 등의 영향으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

〈표 5-28〉 강원도 인제군의 주택 점유 형태, 2010

(단위: 호, %)

	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10	10,453	6,775	720	736	321	80	1,821
(비율)	100.0	64.8	6.9	7.0	3.1	0.8	17.4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마. 정책적 요소

-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저출산대책들은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구분됨.

- 경제적 지원으로는 출생장려금을 관내 출생월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후 30만 원씩 지원.
- 보건의료사업으로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비, 예비맘 산전 혈액검사비 등 지원.

〈표 5-29〉 강원도 인제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출생장려금지원	관내 출생월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후 30만 원씩 지원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관내 전입자로서 셋째아 이상 출산 자녀	3만 원/월(5년납, 10년 보장)
예비맘 산전 혈액검사비지원	관내 출산 예정 예비 맘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및 요검사 무료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이 외 인구증가시책으로 다음의 대책을 실시.

- 전입일 기준으로 2명 이상 세대당 CGV 영화관람권, 쌀 10kg들이 1부대, 상수도 요금 3개월 감면.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정착지원금(인제사랑상품권) 지원.

바. 함의

- 강원도 인제군은 강원도 동부의 속초시, 양양군, 춘천시, 양구군, 홍천군, 고성군, 회양군 등 산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구역, 국립공원 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
- 이러한 지형적 요인으로 정주공간은 분산·입지되어 있음(강원도 인제군, 2015).

□ 또한 관내에 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군 관련 시설 편중으로 개발에 제한이 있음(강원도 인제군, 2015).

- 남면의 경우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어 군인 세대가 주민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화전투훈련단이 있음(강원도 인제군, 2015).
 - 과거 3군단 이전, 군부대 훈련장 설치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어론리 군부대 주거시설 신축공사 완료 등으로 인구가 증가.
- 북면의 일부는 군용지로 쓰이고 있는데, 을지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음(강원도 인제군, 2015).
- 기린면은 군사요충지역으로 3군단사령부 외 8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강원도 인제군, 2015).

□ 인제군의 경우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어 인구이동, 출산 행태가 이들의 유입·유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

- 직업 군인들의 이동 등에 따른 순유입으로 실질적으로 출산을 이행하는 주된 가임기층의 기혼여성(25~29세, 30~34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결과 출산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젊은 층에서의 출산으로 다출산(둘째아 이상) 경향은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지역 특성상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젊은 층의 일자리가 풍부하지 않고, 생활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군인을 제외한 가임 계층의 경우에는 유출이 더 클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3. 전라남도 영암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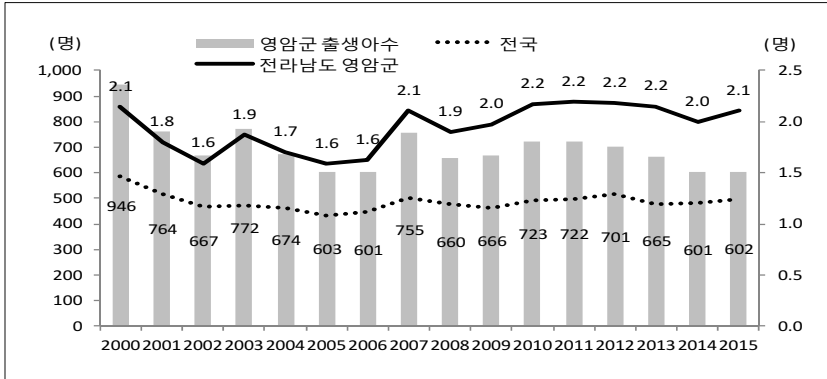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5.0%으로 전국 수준(5.9%)보다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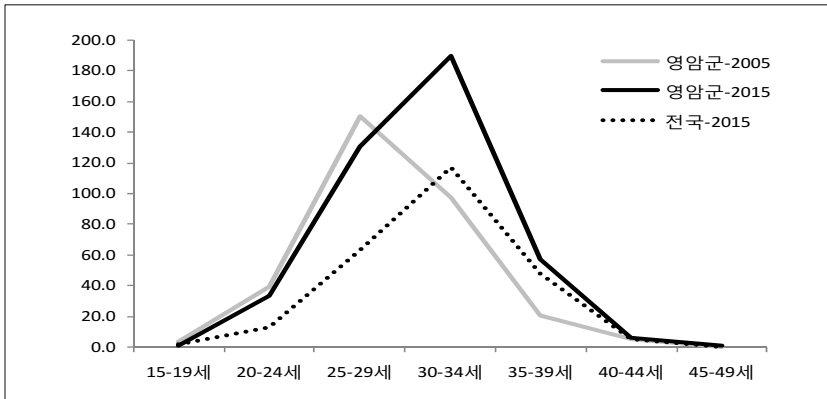
- 출생아수는 2010년 이래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출생아수는 602명으로 최저 수준에 거의 가까움.
-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2.107명으로 2014년(2.002명) 대비 다소 증가하였음(통계청, 2016b).
 - 2007년에 2.1명으로 2000년 수준으로 회복한 이래에 1.9~2.2명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대체적으로 2.1명 내외 수준 유지.
- 요컨대 출생아수는 지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출생아수 증가보다 가임기 여성 인구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모든 연령대에서 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5~29세 출산율은 130.9로 전국 수준(63.1명)을 두 배 이상, 30~34세 출산율은 189.5로 전국 수준(116.7명)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5-26] 전라남도 영암군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KOSIS(인구동향조사-출생).

[그림 5-27] 전라남도 영암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5, 2015



자료: 통계청, KOSIS(인구동향조사-출생).

-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5.8%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에 비해 높으나 군 지역 평균(16.1%)에 비해서는 미세하나마 낮게 나타남.
-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의 비율은 38.7%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영암군은 둘째아 이상 다출산 경향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0〉 전라남도 영암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82	45.5	38.3	16.1
전남 영암군	-	45.5	38.7	15.8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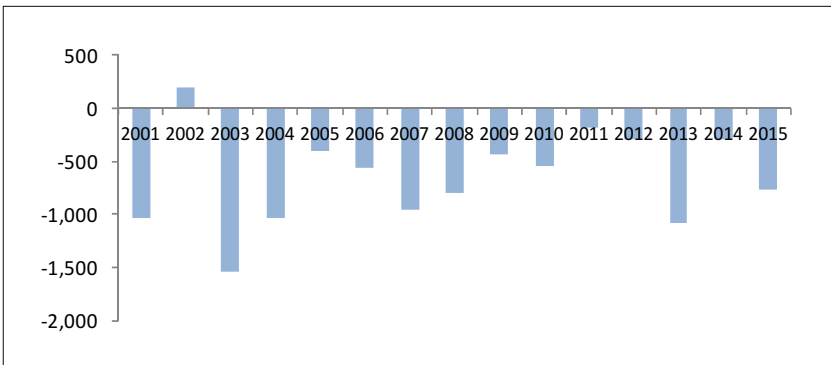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 영암군의 경우 거의 매년 들어오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 순이동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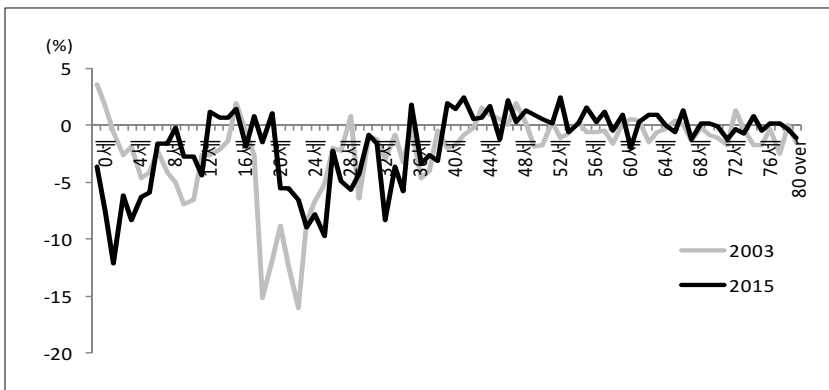
[그림 5-28] 전라남도 영암군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영암군의 경우 10대 후반을 제외하면 40대 이전의 모든 연령층에서 인구 유출(순이동자수가 마이너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30대 전반과 0~4세 아동인구의 순유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주로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등 입학 시 인근 도시로 유출하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영암군 삼호읍의 경우 산단 등의 영향으로 젊은 인구가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아파트, 병원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는 목포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5-29] 전라남도 영암군 연령별 순이동률, 2003,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영암군의 주간인구지수는 133.7로 높은 수준.
- 특히 20대 후반~40대 남성의 주간인구지수가 200이 넘게 나와 영암군에 일자리가 있더라도 여러 이유(주택, 자녀 양육 및 교육, 생활 인프라 등)로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11).

〈표 5-31〉 전라남도 영암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33.7	156.0	111.1
20~24세	129.4	135.2	125.4
25~29세	166.9	204.7	123.4
30~34세	176.1	220.2	112.5
35~39세	199.3	247.7	123.2
40~44세	185.5	222.1	137.5
45~49세	169.2	200.7	130.9
50~54세	151.0	173.4	123.5
55~59세	128.8	145.3	112.8

주: 합계는 전체 연령층의 주간인구지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국제 이동

- 영암군 주민 중 11.0%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64.7%는 외국인근로자, 9.3%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
- 영암군 내 3개 산업단지(1개 국가산업단지, 2개 농공단지) 및 현대중공업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가정은 479세대 정도임.

〈표 5-32〉 전라남도 영암군의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58,852	6,487	11.0	343	3,742	783	131	506	196	86	700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영암군 총인구는 2015년 기준 5만 8,137명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행정자치부, 2016b).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7.1%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고, 군 평균과는 동일(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0.9%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고, 군 평균과는 동일.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5.2%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36.9%, 30~34세 77.9%로 전국 및 군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3.2%로 전국 수준(1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d).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영암군은 목포시, 나주시 등 도시 지역과 인접해 있음.

[그림 5-30] 전라남도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



자료: 영암군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

- 영암군에 2개의 읍이 소재하고 있는데, 총인구 중 상당수가 삼호읍에 거주하고 있음.
- 삼호읍에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인근(산단에서 3km)에 인구 15만명, 450만 평의 남악 신도시(전남 무안군 소재)가 위치하고 있음.³⁰⁾

□ 산업 및 직업

- 관내에 3개 산업단지(대불국가산업단지, 군서농공단지, 신북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음.
-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불외국인투자 지역, 대불자유무역지구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인근(산단에서 3km) 목포시에 남악 신도시에서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4,476개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24.4%로 가장

30) 영암군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

많고,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9.6%), 제조업(18.2%) 등으로 나타남(전라남도 영암군, 2016).

- 사업체 규모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나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도 3개가 있음(전라남도 영암군, 2016).
- 근로자의 14.0%는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전라남도 영암군, 2016).

□ 주택

- 단독주택이 65.6%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 31.1% 등으로 군 지역으로서는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5-33〉 전라남도 영암군의 주택 현황 및 보급률, 2015

(단위: 호, %)

	주택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보급률
규모	25777	16,904	8,011	714	142	6	92.73
%	-	65.6	31.1	2.8	0.6	0.0	

자료: 전라남도 영암군(2016). 2015년 통계연보.

- 최근에 들어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음.

〈표 5-34〉 전라남도 영암군의 아파트 건립 현황

(단위: 동, 가구)

연도	동 수	가구 수
2009	6	554
2010	1	78
2011	-	-
2012	7	400
2013	3	130
2014	7	383
2015	-	-

자료: 전라남도 영암군(2016). 2015년 통계연보.

□ 인프라

- 영암군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어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마. 정책적 요소

□ 전남 영암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저출산대책들은 경제적 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사회 환경(분위기) 조성 등으로 구분됨.

- 대표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음.
 -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4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이후 출생 시마다 200만 원씩 증액 지원
 - 영암군의 출산축하금은 전남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
- 보건의료사업으로는 임신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모유수유 사진작품 공모,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 난임시술지원 등이 있음.
 - 영암군에서는 난임부부에 대하여 정부 지원과 별도로 추가 1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사업으로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표 5-35〉 전라남도 영암군의 저출산대책 현황, 2015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신생아 양육비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영암군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4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이후 출생 시마다 200만 원씩 증액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관내 거주한 등록 임산부	등록 임산부에게 1인당 검진쿠폰 2매(6만 원) 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교실	임신 1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연 2회(5, 10월), 여성의 몸관리, 산전·산후운동, 모유수유 등

사업명	대상	사업 내용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및 영유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모유수유 사진작품 공모	모유수유 하는 1~12개월 이하의 영유아 어머니	2015년 8월 1~31일 중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개최 우수작품 선정 실비시상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 난임시술지원	정부지원 난임시술 소진자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90만 원 범위 내
신생아 출산용품지원	관내 등록 임부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바. 함의

- 전라남도 영암군의 삼호읍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음.
-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삼호읍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인구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2003년부터 인근 무안군에 3단계로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영암군의 가임기 여성인구와 이들의 자녀들이 순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출생아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영암군의 주간인구지수는 주된 가임 계층을 중심으로 200이 넘는데, 이는 영암군에 직장이 있더라도 인근(목포나 무안군)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향도 있음을 의미.
 - 젊은 층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삼호읍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읍 주민 중 가임기(15~49세) 인구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삼호읍의 경우 유통업체, 문화시설, 의료 인프라 등 정주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의 출산율이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준에 정주한 젊은 층의 출산으로 인해 출생아수 감소 속도가 가임기 여성의 감소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 있음.

4. 전라남도 장성군

가. 결혼 및 출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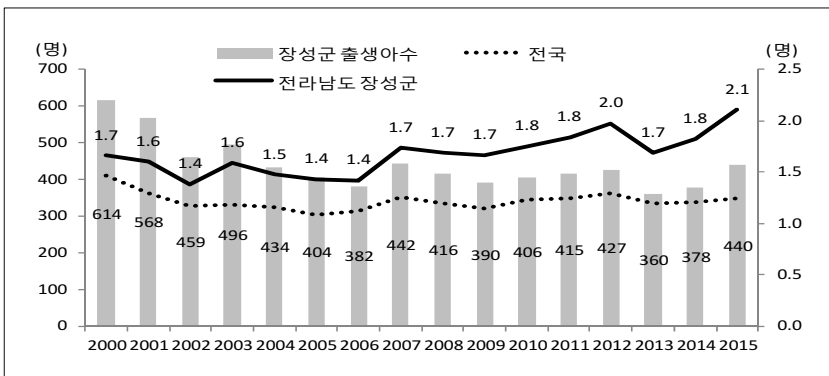
□ 결혼 동향

- 조혼인율은 4.1%으로 전국 수준(5.9%)보다 낮게 나타남(통계청, 2016a).

□ 출산 동향

- 장성군의 출생아수는 2013년 360명의 최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반등하여 2015년 기준 440명으로 나타남.
- 합계출산율은 2.101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높은 편(통계청, 2016b).
 - 2006년 1.4명에서 2007년 1.7명으로 급상승한 이후에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 2.0명, 2015년 2.1명 등으로 최근에 다소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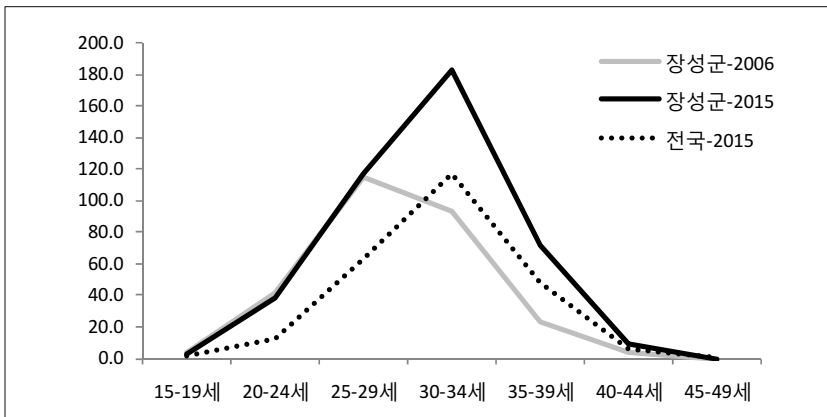
[그림 5-31] 전라남도 장성군의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2000~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 <http://kosis.kr>

- 25~29세 출산율은 116.6으로 전국 수준(63.1)을 두 배 정도, 30~34세 출산율은 182.2로 전국 수준(116.7)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층에서 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여 전체 출산 수준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음.

[그림 5-32]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출산율, 2006, 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출생). <http://kosis.kr>

-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의 비율은 18.7%로 전국 수준(9.7%)과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12.3%) 및 군지역 평균(16.1%)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대신, 전체 출생아 중 둘째아의 비율은 34.2%로 전국 수준(38.0%),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38.2%) 및 군 평균(38.3%)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요컨대, 장성군은 첫째아 출산 비율이 높으나, 다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셋째아 이상까지 출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표 5-36〉 전라남도 장성군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비율, 2015

(단위: 개, %)

구분	기초지자체 수	출산순위별 비율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전국 수준	-	52.3	38.0	9.7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	229	49.5	38.2	12.3
군 평균	82	45.5	38.3	16.1
전남 장성군	-	47.2	34.2	18.7

주: 1) 지자체 수는 2015년 기준.

2) 평균값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출산통계)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재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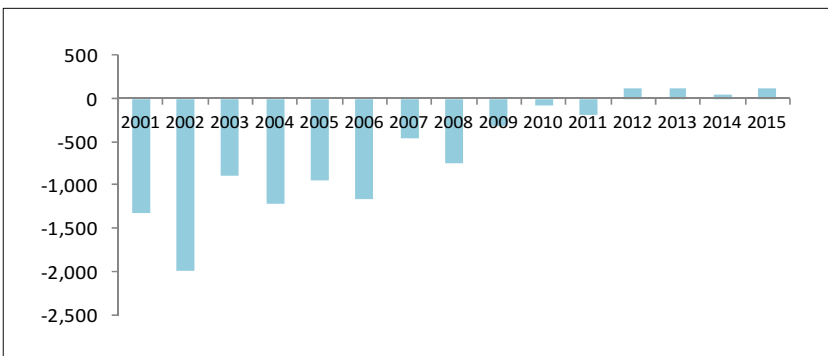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출생). <http://kosis.kr>

나. 인구이동

□ 국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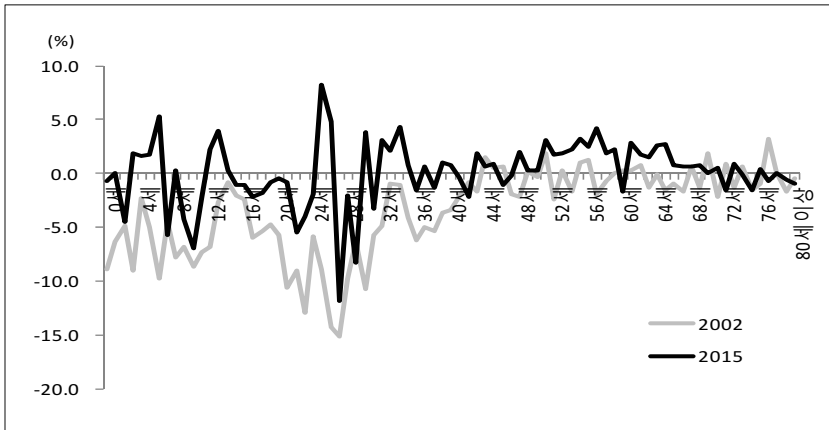
- 장성군의 경우 2006년까지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2007년부터 순유출 인구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2006년 시작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

[그림 5-33] 전라남도 장성군의 순이동자 규모 추이, 2001~201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 장성군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과거 20~30대에서 대량으로 발생 하였던 인구 유출이 최근으로 올수록 둔화되고 있으며, 그의 영향으로 영 유아의 유출도 둔화되고 있음.
- 중장년층에서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귀농·귀촌 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그림 5-34]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2, 2015



주: 연령별 순이동률은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령별 순이동자 규모)와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이동. <http://kosis.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 주간인구지수는 114.8로 주간에만 장성군으로 오는 인구가 상주하는 인 구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11).
- 특히 이러한 경향은 30~4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5-37〉 전라남도 장성군의 연령별 주간인구지수, 2010

	전체	남성	여성
합계	114.8	124.4	106.1
20~24세	89.8	89.9	89.7
25~29세	122.9	132.2	111.1
30~34세	137.4	155.4	119.1
35~39세	145.2	170.5	117.0
40~44세	142.5	166.2	118.4
45~49세	152.3	171.8	129.3
50~54세	130.9	148.2	114.5
55~59세	120.2	130.7	110.5

주: 합계는 전체 연령의 주간인구지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국제 이동

- 장성군 주민 중 3.8%는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 수준(3.4%)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행정자치부, 2016a).
- 외국인 주민(외국인 주민의 자녀 제외) 중 52.7%는 외국인 근로자, 28.6%는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어 있음.

〈표 5-38〉 전라남도 장성군 외국인 주민 현황, 2015

(단위: 명, %)

	주민 등록 인구	외국인 주민	비율	한국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재외 동포	유학생	기타	혼인 귀화	기타	
인구	46,273	1,753	3.8	228	684	64	0	168	143	11	455

자료: 행정자치부(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다. 인구 및 가구 상황

□ 인구 규모

- 장성군 총인구는 2015년 기준 4만 6,360명으로 큰 변화 없이 4만 6,000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행정자치부, 2016b).

- 인구의 자연증가는 마이너스(-)로 나타나나, 장성군의 총인구는 사회적 증가에 의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연령 구조 및 혼인 상태

- 총인구 대비 15~49세 여성의 비중은 17.2%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고, 군 평균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이들 중 25~29세 여성의 비중은 11.9%로 전국, 기초지자체 및 군 평균에 비해 높음.
- 30~34세 여성의 비중은 13.6%로 전국과 기초지자체 평균에 비해서는 낮고, 군 평균에 비해 높음.
- 기혼 비율은 25~29세 40.6%, 30~34세 68.9%로 전국과 군 전체에 비해 높음(통계청, 2016d).

□ 인구고령화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6.8%로 인구고령화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남(통계청, 2016d).
-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비율이 31.1명으로 충북 괴산군(42.1명), 경북 문경시(33.9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음(전라남도 장성군, 2016a).

라. 사회경제적 요소

□ 인문지리적 특성

- 장성군은 도로교통의 발달로 광주광역시의 영향권에 놓인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³¹⁾
- 장성군에는 군인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상무대가 있는 삼계면의 경우 1,500세대 정도의 군인 아파트에 3,000여 명의 군인가족이 상주하고 있음(광주일보, 2014).
- 진원면에는 산업단지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그림 5-35] 전라남도 장성군의 지리적 특성



자료: 장성군청 홈페이지. <http://www.jangseong.go.kr>

□ 산업 및 직업

- 관내에 3개의 농공단지(동화, 삼계, 동화전자)가 운영되고 있으며, 1개의 나노산업단지가 입주할 예정임.
- 3개 농공단지의 경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음.
- 사업체 수는 2014년 기준 3,117개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26.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17.6%), 제조업(15.2%) 등으로 나타남(전라남도 장성군, 2015).

31) 장성군사. <http://history.jangseong.go.kr>

- 사업체 규모로 보면 전체 사업체의 80.5%가 1~4인의 개인 영세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9.6% 차지)임.

〈표 5-39〉 전라남도 장성군의 산업단지 현황, 2014

(단위: 개, 명)

	준공일	업체 수	고용 인원
동화농공단지	1988. 2. 21.	20	559
삼계농공단지	1992. 3. 28.	14	162
동화전자농공단지	2010. 2. 25.	32	587

자료: 전라남도 장성군(2015). 2015년 장성군 통계연보.

〈표 5-40〉 전라남도 장성군의 사업체 규모 현황, 2014

(단위: 개, %)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	3,117	2,509	319	134	114	28	12	1	0
비율	100.0	80.5	10.2	4.3	3.7	0.9	0.4	0.0	0.0

자료: 전라남도 장성군(2015). 2015년 장성군 통계연보.

□ 주택

- 주택보급률은 92.1%로 나타남.
- 단독주택이 8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아파트 12.6% 등으로 나타남.

〈표 5-41〉 전라남도 장성군의 주택 현황 및 주택보급률, 2015

(단위: 호, %)

	주택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보급률
가구 수	19,881	14,690	62	3,556	403	34	1,136	92.12
%	100.0	73.9	0.3	17.9	2.0	0.2	5.7	

자료: 장성군청(2016c). 2016년 장성군 통계연보.

- 아파트 건립은 2010년 4개 동 456가구, 2013년 4개 동 228가구 등으로 나타남.

- 장성군의 경우 2006년 이래 공공임대아파트가 4차에 걸쳐 건립될 예정으로, 3차는 성산일원 지역에 150세대 규모로 201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4차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무대 군인가족 및 삼서·삼계·동화 지역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많은 서부지역에 150세대가 들어설 예정임(2020년 준공 목표).
- 이 외 2013년 농어촌 뉴타운 1호점인 장성드림빌 입주도 있었음(전라남도 장성군, 2016b).

□ 인프라

-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어 2017년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제공.

마. 정책적 요소

□ 장성군은 ‘인구늘리기 6대 시책’ 실시(전라남도 장성군, 2016b).

- 49개 기업 유치 및 희망일자리 개소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장년층 유출을 방지할 예정.
- ‘사계절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줘 전출 세대 감소와 인구 유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향후 3차 LH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대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인구 증가가 기대.

바. 합의

-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하여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이었음.

- 이에 출생아수도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합계출산율도 2000년대 중반 1.4수준까지 낮아짐.
- 그러나 2006년 시작된 공공임대아파트 유치, 광주·전남 최초의 공공 실버주택 건립 등으로 주거 여건 개선, 노인복지 정책, 귀농·귀촌 프로그램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군부대나 농공단지 인근에 조성하여 일자리와 주거에 대한 욕구가 모두 해결 가능하도록 하였음.
- 장성군의 경우 최근으로 올수록 인구 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임기 계층의 일부에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음.
- 낮은 미혼율과 가임기의 유출 감소 등에 힘입어 최근 들어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다만, 그간 가임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출생아수 증가에 비해 출산율이 더 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음.
- 20대의 미혼율이 낮아 젊은 층에서 출산이 이루어지는 만큼 첫째아 출산 비율이 높고, 여기에 더해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셋째아 이상의 다출산 경향도 공존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관내에 있는 상무대(군부대)도 출생아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

제 6 장

모니터링 결과 종합

제1절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의 특징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

모니터링 결과 종합 <<

제1절 저출산 지역과 고출산 지역의 특징

- 국가 차원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 간에 출산율 수준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기초 지자체(전라남도 해남군 2.464명)와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서울시 종로구 0.813명) 간 차이는 1.651명으로 나타남.
 - 같은 특성을 가진 기초지자체 간 합계출산율 차이도 크게 나타남.
 - 대도시(자치구)의 경우 서울 종로구(0.813명)와 부산 강서구(1.982명) 간 1.169명의 차이가 있음.
 - 중소도시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1.072명)와 충남 당진시(1.949명) 간 0.877명의 차이가 있음.
 - 농촌 지역(군)의 경우 경남 합천군(0.980명)과 전남 해남군(2.464명) 간 1.484명의 차이가 있음.
- 지역 구분(대도시 자치구, 중소도시, 군)별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기초 지자체들과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들을 3~4개 지역씩 각각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됨.

1. 대도시

- (저출산 지역) 대도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종로

구, 서울 강남구, 부산 동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대도시라도 구 도심 지역으로서 젊은 층의 유출이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주로 상업 등의 중심 지역으로 전환하여 생활 인프라 열악, 높은 주거비용, 교육 등의 자녀 양육 여건 미흡 등이 발생하기 때문임.
- 교육(대학 등)이나 상업 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젊은 층이 주로 교육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자치구)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의 미흡으로 결혼-정주로 이어지지 않아 가임기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미혼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여건이 좋을지라도 주택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대도시(자치구)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젊은 층이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하여 신혼집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이 지역에서 결혼-출산을 하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
 - * 한편, 다른 지역에서 출산을 완료한 후에 자녀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 지역으로 유입하는 경향이 있음.

□ (고출산 지역) 대도시 자치구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강서구, 울산 북구, 대전 유성구, 광주 광산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비교적 신흥 도시이거나 최근 재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일자리와 주거 및 자녀 양육 인프라 등이 결합된 도시의 경우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마련이 가능하여 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 대기업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복지 혜택도

많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출산 및 자녀 양육이 용이하기 때문.

2. 중소도시

□ (저출산 지역) 중소도시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 부천시, 경기 의정부시, 충남 공주시, 강원 춘천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주거 비용도 낮으나 교육 등 자녀 양육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도시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추가 출산을 중단하고 자녀 교육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아 다출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인근에 신흥 도시가 입지한 경우 그 지역의 흡입 요인으로 인하여 젊은 층이 유출되어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지역 간 교통이 편리하여 근무지(해당 중소도시)와 주거지(인근 도시) 간 공간적 분리 발생.
- 도시 개발이 과거에 완료되어 주택 가격이 비싼 중소도시의 경우 젊은 층의 주거 비용 및 자녀 양육 비용이 높아져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대학(교)이 위치한 중소도시의 경우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하나 이들은 대개 미혼층으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관내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졸업 후 취업-결혼-자녀 양육 등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

□ (고출산 지역) 중소도시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남 당진시, 경

남 거제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광양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대규모 중공업(철강, 조선 등)이 입지한 중소도시의 경우 일자리, 주거 등의 여건이 유리하여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주된 가임기 계층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관제로 가구소득 수준이 높고 기업복지 수준도 높아 출산에 유리하게 작용.
-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한 양육 인프라 등의 여건이 잘 갖추어진 신흥 중소도시의 경우 타 지역으로부터 젊은 층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하면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3. 농촌 지역(군)

□ (저출산 지역) 농촌 지역(군)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남 합천군, 충북 괴산군, 경북 청도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한 농촌 지역의 경우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 인근 (대)도시와의 교통 발달 등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순유출이 누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

□ (고출산 지역) 농촌 지역(군) 중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해남군, 강원 인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성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대규모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가 조성된 농촌 지역의 경우 젊은 층의 결혼 및 정주화가 용이하여 출산율 수준이 높게 나타남.
- 대도시에 인접하여 있어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저렴한 주택 마련의 용이

성이 높기 때문.

- 지역생태계(도시로부터 원거리 위치, 부모 세대와의 근거리 거주 등), 지역 소득 향상,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등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농촌 지역의 경우 가임기 인구의 정주화와 더불어 결혼·출산의 용이성이 높아져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대규모 군부대가 입지한 농촌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임기 인구의 규모가 작으나 직업군인들의 출산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 과거 가임기 인구가 누적되었으나 최근에 들어 순유출이 발생한 농촌 지역의 경우 출생아수 감소 속도에 비해 가임기 여성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도시 구분에 관계없이 일자리-주거-자녀 양육 환경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발전한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높고, 이중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음.
-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책(저출산대책)만이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 곤란
 - 정책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일자리와 주거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제대로 작동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일자리와 주거의 여건이 충족될지라도 자녀 양육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경우 출산율 증가에 한계성이 존재할 것임.

- 결국 지자체의 출산율은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정책이 동시에 개선 내지 발전될 경우 높아질 것임.
 - 궁극적으로 한 지자체에서 성장하여 교육, 결혼,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가 일자리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출산을 하는 경우에 비해 희망 자녀 수를 실제로 출산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 내에서 거시적 사회구조 개선과 정책적 지지가 중요.
- 한편, 일부 고출산 지역의 경우 출생아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출생아수 증감의 원인을 규명하여 지역사회구조 개선 및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제 3 부

기초지자체
저출산 대응 체계 모니터링

제 7 장

기초지자체 저출산 대응 체계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 대응 조직 체계

제2절 저출산 대응 인력

제3절 저출산 대응 예산

제4절 저출산 대응 법제적 노력

제5절 저출산 대응 교육·홍보

제6절 저출산 대응 관련 장애 요인

제7절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제언

7

기초지자체 <<
저출산 대응 체계 모니터링

제1절 저출산 대응 조직 체계

1. 총괄 조직

가. 총괄부서 설치 관련

□ 지자체 내 저출산 대책 관련 총괄부서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51.8%가 총괄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8.2%는 총괄부서가 없다고 응답.

- 저출산대책 총괄부서가 있는 비율은 구, 시, 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자치구 62.9%, 중소도시 52.5%, 군 41.0% 등

〈표 7-1〉 저출산대책 관련 총괄부서 여부

	있음	없음	전체	(단위: %, 개) (지자체 수)
전국	51.8	48.2	100.0	(114)
구	62.9	37.1	100.0	(35)
시	52.5	47.5	100.0	(40)
군	41.0	59.0	100.0	(39)

주: 1) 여기에서 총괄부서란 저출산대책 관련 지자체 고유 사업을 기획·관리·집행하면서 타 부서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취합하는 부서를 의미함.

2)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91.1%(매우 필요 51.3% 포함)로 나타남.
- 총괄부서 필요성 인식은 중소도시(95.0%), 군(92.3%), 자치구(85.3%) 등의 담당자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2〉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개)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지자체 수)
전국	51.3	39.8	8.0	0.9	100.0	(113)
구	38.2	47.1	11.8	2.9	100.0	(34)
시	60.0	35.0	5.0	-	100.0	(40)
군	53.8	38.5	7.7	-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나. 총괄부서 소속 관련

- 총괄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총괄부서의 소속을 질문한 결과, 75.9%는 본청, 24.1%는 보건소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청에 총괄부서를 두고 있는 비율은 구, 시, 군 순으로 높음.
 - 자치구의 경우 대부분(95.2%)이 본청에 총괄부서를 두고 있음.
 - 중소도시의 경우 66.7%가 본청, 33.3%가 보건소에 총괄부서를 두고 있음.
 - 군의 경우 62.5%가 본청, 37.5%가 보건소에 총괄부서를 두고 있음.

〈표 7-3〉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소속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단위: %, 개)

	보건소	본청	전체	(지자체 수)
전국	24.1	75.9	100.0	(58)
구	4.8	95.2	100.0	(21)
시	33.3	66.7	100.0	(21)
군	37.5	62.5	100.0	(16)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총괄부서의 소속은 본청 63.0%, 보건소 36.0%, 기타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청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시(70.3%), 구(63.0%), 군(5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건소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41.7%), 구(37.0%), 시(2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4〉 이상적인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소속에 대한 인식(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위: %, 개)

	보건소	본청	기타	전체	(지자체 수)
전국	36.0	63.0	1.0	100.0	(100)
구	37.0	63.0	0.0	100.0	(27)
시	29.7	70.3	0.0	100.0	(37)
군	41.7	55.6	2.8	100.0	(36)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다. 총괄부서 수준 관련

□ 총괄부서 수준

- 총괄부서를 주로 계(係)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係) 단위 75.4%, 과(課) 단위 21.1%, 국(局) 단위 3.5% 등
- 국 단위에 총괄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구 지역뿐이며, 과 단위에 총괄부서를 두고 있는 비율은 군, 시, 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5〉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단위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단위: %, 개)

	국(局) 단위	과(課) 단위	계(係) 단위	전체	(지자체 수)
전국	3.5	21.1	75.4	100.0	(57)
구	9.1	18.2	72.7	100.0	(22)
시	-	19.0	81.0	100.0	(21)
군	-	28.6	71.4	100.0	(14)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係) 단위에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과(課) 단위 41.0%, 국(局) 단위 11.0%로 나타남.

-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국 단위나 과 단위 그리고 군 담당자의 경우 계 단위에 총괄부서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중소도시 담당자의 경우에는 총괄부서 수준으로 계 단위 48.6%, 과 단위 40.5%, 국 단위 10.5%로 응답함.

〈표 7-6〉 이상적인 저출산대책 총괄부서의 단위에 대한 인식(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위: %, 개)

	국(局)단위	과(課)단위	계(係)단위	전체	(지자체 수)
전국	11.0	41.0	48.0	100.0	(100)
구	14.3	53.6	32.1	100.0	(28)
시	10.8	40.5	48.6	100.0	(37)
군	8.6	31.4	60.0	100.0	(35)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라. 총괄부서 담당 인력 규모 관련

□ 총괄부서의 인력은 1명인 경우가 43.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4명

(19.3%), 5명 이상(15.8%), 3명(14.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총괄부서 인력이 1명인 경우는 구 지역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총괄부서 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는 군(18.8%), 시(15.8%), 구(1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7〉 저출산대책 총괄부서 인력 규모 현황(총괄부서가 있는 경우)

(단위: %, 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43.9	7.0	14.0	19.3	15.8	100.0	(57)
구	54.5	-	4.5	27.3	13.6	100.0	(22)
시	36.8	5.3	31.6	10.5	15.8	100.0	(19)
군	37.5	18.8	6.3	18.8	18.8	100.0	(16)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총괄부서의 이상적인 규모로는 5명 이상이 34.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명 27.5%, 4명 20.9%, 2명 12.1%, 1명 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총괄부서의 규모를 5명 이상이나,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치구 담당자에게서 중소도시나 군 담당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8〉 이상적인 총괄부서의 규모에 대한 인식(총괄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위: %, 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5.5	12.1	27.5	20.9	34.1	100.0	(91)
구	7.7	3.8	30.8	11.5	46.2	100.0	(26)
시	6.1	12.1	27.3	21.2	33.3	100.0	(33)
군	3.1	18.8	25.0	28.1	25.0	100.0	(32)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2. 자문조직

- 2015년 한 해 동안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정례화된 전문가 자문회의나 협의체를 운영한 횟수를 질문한 결과 13.4%만이 1회 이상 자문회의나 협의체를 운영하였다고 응답함
- 정례화된 자문회의나 협의체를 운영한 횟수가 1회 이상인 비율은 시(17.6%), 군(12.1%), 자치구(1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9〉 저출산대책 관련 정례 전문가 자문회의/협의체 운영 현황, 2015년

(단위: %, 개)

	0회	1회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86.6	13.4	100.0	(97)
구	90.0	10.0	100.0	(30)
시	82.4	17.6	100.0	(34)
군	87.9	12.1	100.0	(33)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2절 저출산 대응 인력

1. 업무 분장

- 저출산대책 담당자가 업무 중 저출산대책 업무의 비율을 질문한 결과 10% 미만 7.1%, 10~50% 미만 49.6%, 50~100% 미만 31.0%, 100%가 12.4% 등으로 나타남.
- 100%로 저출산대책 업무를 전담한 비율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혀 없고, 시의 경우 23.1%, 군의 경우 12.8%로 나타남.

〈표 7-10〉 저출산대책 담당자의 전체 업무 중 저출산대책 업무의 비율

(단위: %, 개)

	10% 미만	10~50% 미만	50~100% 미만	100%	전체	(지자체 수)
전국	7.1	49.6	31.0	12.4	100.0	(113)
구	-	74.3	25.7	-	100.0	(35)
시	7.7	38.5	30.8	23.1	100.0	(39)
군	12.8	38.5	35.9	12.8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대책 전체 업무량 대비 실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한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의 16.5%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함.

-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83.5%(매우 부족하다 27.0%)로 나타남.
-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시 지역(90.0%)이 구(85.7%)나 군 (75.0%)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7-11〉 저출산대책 업무량 대비 투입 인력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현황)

(단위: %, 개)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지자체 수)
전국	-	16.5	56.5	27.0	100.0	(115)
구	-	14.3	54.3	31.4	100.0	(35)
시	-	10.0	62.5	27.5	100.0	(40)
군	-	25.0	52.5	22.5	100.0	(40)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2. 전문성

□ 현재 저출산대책 담당자 중 높은 업무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비율은 15.9%(전문성이 다소 높은 편)로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응답 비율은 자치구 담당자의 경우 11.4%, 중소도시 담당자의 경우 20.5%, 군 담당자의 경우 15.4% 등으로 나타남.

〈표 7-12〉 저출산대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개)

	전문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전문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전문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전문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	(지자체 수)
전국	-	15.9	57.5	26.5	100.0	(113)
구	-	11.4	57.1	31.4	100.0	(35)
시	-	20.5	51.3	28.2	100.0	(39)
군	-	15.4	64.1	20.5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3. 교육훈련

□ 2016년도 상반기 5개월(2016년 1월 1일~5월 30일) 동안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석한 횟수는 0회가 60.4%에 이르며, 1회 24.5%, 2회 이상 15.1%로 나타남.

- 교육훈련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담당자의 비율은 구 57.6%, 시 52.8%, 군 70.3%로 군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표 7-13〉 2016. 1. 1.~ 5. 30. 동안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한 횟수

(단위: %, 개)

	0회	1회	2회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60.4	24.5	15.1	100.0	(106)
구	57.6	30.3	12.1	100.0	(33)
시	52.8	30.6	16.7	100.0	(36)
군	70.3	13.5	16.2	100.0	(37)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저출산대책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의 92.2%(매우 필요하다 45.2%)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군(97.5%), 시(95.0%), 구(8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14〉 저출산대책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개)

	매우 필요하다	다소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지자체 수)
전국	45.2	47.0	7.8	-	100.0	(115)
구	48.6	34.3	17.1	-	100.0	(35)
시	45.0	50.0	5.0	-	100.0	(40)
군	42.5	55.0	2.5	-	100.0	(40)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의 주관기관으로 중앙정부(75.2%), 지방연수원(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부처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시(83.8%), 군(74.4%), 구(6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연수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구(24.1%), 군(23.1%), 시(16.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15〉 적합한 저출산대책 교육·훈련 주관 기관에 대한 인식(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위: %, 개)

	중앙부처	지방연수원	민간 교육기관	기타	전체	(지자체 수)
전국	75.2	21.0	1.9	1.9	100.0	(105)
구	65.5	24.1	3.4	6.9	100.0	(29)
시	83.8	16.2	-	-	100.0	(37)
군	74.4	23.1	2.6	-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 주기로는 반기가 48.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연(28.2%), 분기(15.5%),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기별 교육·훈련 수요는 군(54.1%), 시(45.9%), 구(44.8%) 등의 순으로 높음.
- 연별 교육·훈련 수요는 구(31.0%), 시(27.0%), 군(27.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수시 교육·훈련에 대한 욕구는 구(10.3%), 군(8.1%), 시(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16〉 적합한 저출산대책 교육·훈련 주기에 대한 인식(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단위: %, 개)

	분기별	반기별	연별	격년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체	(지자체 수)
전국	15.5	48.5	28.2	-	7.8	100.0	(103)
구	13.8	44.8	31.0	-	10.3	100.0	(29)
시	21.6	45.9	27.0	-	5.4	100.0	(37)
군	10.8	54.1	27.0	-	8.1	100.0	(37)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저출산 대응 예산

□ 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30.5%가 충분(매우 충분 7.6%), 69.5%는 부족(매우 부족 15.2%)하다고 응답함.

-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담당자의 비율은 군(58.3%) 지역에 비해 시(75.7%)나 구(75.0%)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7-17〉 저출산대책 예산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개)

	매우 충분하다	다소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지자체 수)
전국	7.6	22.9	54.3	15.2	100.0	(105)
구	6.3	18.8	50.0	25.0	100.0	(32)
시	5.4	18.9	64.9	10.8	100.0	(37)
군	11.1	30.6	47.2	11.1	100.0	(36)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4절 저출산 대응 법제적 노력

□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제정한 조례가 1개 있다고 응답한 지자체가 56.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2개(28.0%), 3개 이상(12.1%)으로 나타남.

○ 조례를 제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3.7%로 나타남.

- 조례를 제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구 지역(9.4%)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조례를 3개 이상 제정한 비율은 군 지역(15.4%)이 시(13.9%) 또는 구(6.3%)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7-18〉 저출산대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한 조례

(단위: %, 개)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3.7	56.1	28.0	12.1	100.0	(107)
구	9.4	53.1	31.3	6.3	100.0	(32)
시	-	61.1	25.0	13.9	100.0	(36)
군	2.6	53.8	28.2	15.4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5절 저출산 대응 교육·홍보

- 201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자원(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횟수를 질문한 결과, 0회가 4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10회 이상(17.2%), 1회(15.2%), 3~10회 미만(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 자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군(45.9%)이 시(40.6%)나 구(36.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0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군(18.9%)이 구(16.7%)나 시(15.6%)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19〉 2015년 지역사회 자원(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횟수

(단위: %, 개)

	0회	1회	2회	3~10회 미만	10회 이상	전체	(지자체)
전국	41.4	15.2	11.1	15.2	17.2	100.0	(99)
구	36.7	20.0	10.0	16.7	16.7	100.0	(30)
시	40.6	15.6	6.3	21.9	15.6	100.0	(32)
군	45.9	10.8	16.2	8.1	18.9	100.0	(37)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 횟수를 질문한 결과, 1~4회(25.0%), 5~9회(25.0%), 20회 이상(21.3%), 10~19회(20.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교육 및 홍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곳은 전체의 8.3%로 나타남.
 - 구 지역의 경우 연간 5회 미만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곳과 반대로 20회 이상 실시하는 지자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20〉 2015년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에 관한 교육홍보 실시 횟수

(단위: %, 개)

	0회	1~4회	5~9회	10~19회	20회 이상	전체	(지자체 수)
전국	8.3	25.0	25.0	20.4	21.3	100.0	(108)
구	-	38.2	20.6	11.8	29.4	100.0	(34)
시	11.4	25.7	25.7	22.9	14.3	100.0	(35)
군	12.8	12.8	28.2	25.6	20.5	100.0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6절 저출산 대응 관련 장애 요인

□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상 주된 장애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 부족이 2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지자체 내 추진 체계의 미흡(18.8%), 투입 인력 부족(14.3%), 주민의 인식/이해 및 참여 부족(9.8%), 기관장 등 지도자의 인식부족(8.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 담당자의 경우 재정 부족(37.1%), 투입인력 부족(22.9%) 순
- 시 담당자의 경우 재정 부족(34.2%), 추진 체계 미흡(26.3%) 순
- 군 담당자의 경우 추진 체계 미흡(23.1%), 재정부족(15.4%), 주민의 인식/이해 및 참여 부족(15.4%) 순

〈표 7-21〉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의 장애요인(1순위)

(단위: %, 개)

	전체	구	시	군
기관장 등 지도자의 인식부족	8.0	2.9	10.5	10.3
지자체 내 추진 체계의 미흡	18.8	5.7	26.3	23.1
투입인력 부족	14.3	22.9	13.2	7.7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3.6	5.7	2.6	2.6
재정 부족	28.6	37.1	34.2	15.4
관련 시설 및 서비스 부족	1.8	2.9	0.0	2.6

	전체	구	시	군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부족	4.5	2.9	0.0	10.3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 미흡	2.7	2.9	2.6	2.6
주민의 인식/이해 및 참여 부족	9.8	5.7	7.9	15.4
기타	8.0	11.4	2.6	10.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지자체 수)	(112)	(35)	(38)	(39)

주: 무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자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분석 결과.

제7절 종합 논의 및 정책적 제언

□ 기초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업무 현황과 담당자의 인식 내지 욕구(행정 수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

- 그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6개 지역인 51.3%만이 응답하여 전체적인 파악이 미흡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향후 지자체 관련 접근에서 매우 유익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모든 기초지자체들이 응답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표하는 통계자료로 간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1. 조직 체계

□ 응답 기초지자체 중 거의 50%가 저출산대책을 총괄할 부서가 없는 상황(구에 비해 군과 시에서 더 높음).

- 이는 실제 저출산대책 담당 인력 중 91.1%가 총괄부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임(필요성 인식은 시, 군, 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복잡한 저출산 원인 구조 및 대응 정책들의 속성과 관련하여 총괄부서의 설치가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 총괄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 본청 4분의 3, 보건소 4분의 1 수준(본청 비율은 구 90% 이상, 시와 군 3분의 2 수준).
 - 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속은 본청 63.0%, 보건소 36.0%, 기타 1.0% 등으로 실제와 이상 간 다소의 괴리가 발생함.
 - 본청과 보건소 중 어느 곳이 적합한 것인지는 기초지자체마다 저출산대응 업무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통한 판정이 필요.
- 총괄 부서를 두고 있는 경우 운영 단위로는 계(係) 75.4%, 과(課) 21.1%, 국(局) 3.5% 등(국 단위는 구에서만, 과는 군, 시, 구 순 등).
 - 실제 대부분 계로 운영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조직 수준은 계 48.0%, 과 41.0%, 국 11.0% 등으로 과나 국 단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구 담당자는 국/과, 시 담당자는 계/과, 군 담당자는 계 선호).
 - 복잡한 저출산 원인 구조 및 대응 정책들의 속성과 관련하여 보다 큰 조직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궁극적으로는 (대상) 인구 규모, 지자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총괄부서의 인력은 1명인 경우가 43.9%에 이르고 있음(특히, 구 지역에서는 54.5%).
 -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규모로 1명의 비율은 5.5%에 불과하고, 4명 이상이 55%인 것과 대조적임.
 -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치는 등 소수인 경우에는 취합이나 단순 행정기능만 가능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을 상시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긴요함.
- 1년 동안 저출산대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나 협의체를 전혀 개최한 적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86.6%에 이름.

- 1회 이상 운영 비율은 시 17.6%, 군 12.1%, 자치구 10.0% 등.
- 각 기초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 수립, 평가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축하여 수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인력

- 현재 담당자가 저출산대책 업무만을 전담한 비율은 12% 수준에 불과 (구는 전혀 없고, 시는 23%, 군은 약 13%).
- 담당자 중 83.5%(매우 부족 27.0%)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시, 구, 군 순).
- 저출산대책의 방대성, 복잡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긴요함.
- 현재 저출산대책 담당자 중 업무전문성을 갖추었다는 비율은 16%에 불과(시, 군, 구 순).
- 그러나 2016년도 5개월(2016년 1월 1일~5월 30일) 동안 교육 및 훈련 횟수가 0회인 비율이 60%로 높음(군, 구, 시 순).
-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수요)은 92%에 이름.
- 저출산대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및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 후, 순환제로 수시로 교육/훈련에 참가시키는 노력이 필요.

3. 예산(재정)

- 담당자 중 69.5%가 저출산대책에 투입된 예산이 부족(매우 부족 15.2%)하다고 인식(예산부족 인식비율은 시, 구, 군 순).
- 정책 대상 규모, 필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정 확보 및 투입이 필요.

4. 법제

- 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 관련 조례 제정은 1건 56.1%, 2건 28.0%, 3건 이상 12.1% 등임.
- 이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획한 정책들이 많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해 지역 특수성 및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실효성 높은 지역 밀착형 저출산대책의 개발 및 제도 마련이 필요.

5. 교육홍보

- 2015년 동안 지역사회 자원(시민사회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가 41.4%(군 45.9%, 시40.6%, 36.7%), 1회는 15.2%였음.
-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지자체는 8.3%였으며, 1~4회는 25.0%였음.
- 주민이나 지역사회 자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저출산대책은 그 실효성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각종 지역사회 자원들의 경우 초기에는 전문성 부족, 경험 미흡 등으로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중요한 정책동반자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6. 종합

-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상 주된 장애 요인으로 재정 부족, 추진 체계 미흡, 투입인력 부족, 주민의 인식/이해 및 참여 부족, 기관장 등 지도자의 인식부족 등의 순.
 - 재정 부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독립적인 저출산대응 재원을 개발하여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진 체계, 인력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전담 조직체(컨트론타워)를 구축하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동시에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
-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체계(인력 포함), 제도 마련, 재정 투입, 지역사회 참여 유도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사회주체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저출산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심에는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 밀착형 저출산 대응 정책 시행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 강원도 인제군. (2015). 2013~2014 군정백서.
- 강원도 인제군. (2016). 2015년 제53회 통계연보.
- 강원도 춘천시. (2015). 2014 춘천시 사회조사 분석보고서.
- 강원도 춘천시. (2016). 2015 통계연보.
- 경기도 부천시. (2016a). 2015년 통계연보.
- 경기도 부천시. (2016b). 2026 장기발전계획.
- 경기도 부천시. (2016c).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
- 경기도 부천시. (2016d). 제6회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
- 경기도 의정부시. (2010). 2020년 의정부비전.
- 경기도 의정부시. (2015a). 제52회 2014년 의정부통계연보.
- 경기도 의정부시. (2015b). 2014년도 사업체기초통계.
- 경기도 의정부시. (2016). 제53회 2015년 의정부통계연보.
- 경기도청. (2016).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 내용. 2016. 3. 31. 보도자료.
- 경상남도 거제시. (2014). 2014년 시정백서.
- 경상남도 거제시. (2016). 제20회 거제통계연보.
- 경상남도 합천군. (2016). 2015년도 통계연보.
- 경상북도 청도군. (2016). 제55회 청도기본통계연보.
- 경상일보. (2016). 광역시 승격 20주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한다: 인구·직장의 교외화, 울주군·북구 등 부도심 육성해야. 경상기획특집. 2016. 9. 28.
-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4). 2014-2018 광산구 중기구정운영계획: 신광산 비전과 전략.
-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5). 제25회 광산구 통계연보.
-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전2020 장기종합발전계획(2009-2020).
- 광주일보. (2014). 장성군-상무대 지역발전 협력 논의. 2014. 8. 13.
- 국민은행. (2016). 주택가격동향.
-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3). 2012 구정백서.

-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 2014년도 사업체기초통계결과.
- 보건복지부. (2016). 2015년도 지자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 17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기관 공모. 2016.11.7.일자 보도 자료.
-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a). 2015년 강서구 통계 연보.
-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5b). 2015 구정백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2016). 2015년 부산사회조사.
- 부산광역시 동구. (2006). 동구장기발전종합계획: 부산의 얼굴 세계의 관문 동구 재창조.
- 부산광역시 동구. (2015). 제46회 동구통계연보.
- 부산광역시 동구. (2016). 2015 사회조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a). 제30회 강남통계연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5b).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
-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2015 강남구 사회조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2). 2012 종로구 사회조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5). 제30회 2015 종로통계연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a). 2016년 통계연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b). 2016년 구정현황.
- 서울특별시. (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결과(서울지역 전수부분).
- 세종특별자치시. (2016a). 제3회 2015년 세종통계연보.
- 세종특별자치시. (2016b). 2015 세종의 사회지표.
- 울산광역시 북구. (2016a). 2015년 통계연보.
- 울산광역시 북구. (2016b). 2016년 구정백서.
- 이뉴스투데이. (2015). 의정부시 내년부터 '책임동제' 단계별 시행. 2015. 10. 23.
- 전라남도 광양시. (2016a). 2015년 통계연보.
- 전라남도 광양시. (2016b). 2016년 11월 말 기준 광양시 주요통계.
- 전라남도 광양시. (2016c). 2016 주요업무 시행계획.
- 전라남도 영암군. (2016). 2015년 통계연보.

- 전라남도 장성군. (2015). 2015년 장성군 통계연보.
- 전라남도 장성군. (2016a). 실버복지1번지 장성! 100세 이상 인구 호남에서 가장 많아. 2016. 8. 2. 보도자료.
- 전라남도 장성군. (2016b). 장성군, 인구 반등 반갑다!... 5년 만에 가장 많아. 2016. 1. 13. 보도자료.
- 전라남도 장성군. (2016c). 2016년 장성군 통계연보.
- 전라남도 해남군. (2016). 제55회 통계연보.
- 충청남도 공주시. (2016). 2015년 통계 연보.
- 충청남도 당진시. (2016). 2015년 당진시 통계연보.
- 충청북도 괴산군. (2015a). 2012-2013 군정백서.
- 충청북도 괴산군. (2015b). 2015. 3. 14. 보도자료.
- 충청북도 괴산군. (2016a). 2015년 통계연보.
- 충청북도 괴산군. (2016b). 괴산군 2016. 7. 22. 보도자료.
- 통계청. (20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2015). 2014년 기준 전국 사업체조사.
- 통계청. (2016a). 2015 혼인통계.
- 통계청. (2016b). 2015 출생통계.
- 통계청. (2016c). 2015 인구이동통계.
- 통계청. (2016d). 2015 주민등록연앙인구.
- 통계청. (2016e).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표본편.
- 통계청. (2016f).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구부문(전수).
- 통계청. (2016g). 2015년 귀농통계조사.
- 행정자치부. (2016a). 2015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조사.
- 행정자치부. (2016b). 2015 주민등록인구통계.
- 거제시청 홈페이지. <http://www.geoge.go.kr>
- 광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

당진시청 홈페이지. <http://dangjin.go.kr>.

부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www.bsdongguo.go.kr

서울특별시. 서울통계연보. <http://stat.seoul.go.kr>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http://data.si.re.kr/population-change>

영암군 홈페이지. <http://www.yeongam.go.kr>

장성군사. <http://history.jangseong.go.kr>

종로구청 홈페이지. <http://www.jongno.go.kr/>

청도군청 홈페이지. <http://www.dc.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종로 편.

<http://encykorea.aks.ac.kr>

합천군청 홈페이지. <http://www.hc.go.kr>

해남군청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부 록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조사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체계에 관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체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응답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대책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과정에서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 비밀의 보호조항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오직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리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시·도명	시·군·구명	소속부서
		()국()과()계
※ 응답자는 기입안함 	※ 응답자는 기입안함 	※ 응답자는 기입안함

※ 저출산대책에 대한 정의

본 조사에서 말하는 **저출산대책**은 **결혼, 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가정양립 제고, 자녀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가치관 등 교육 및 홍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문화 환경 조성, 결혼 장애요인 제거 또는 지원 등이 망라됩니다.

1

다음은 귀 지자체의 저출산대책 관련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고유사업을 기획, 관리·집행하면서 타 부서의 저출산 관련 업무를 취합하는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질문 2로 이동)

- 1-1. (총괄 부서가 있는 경우) 총괄 부서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내 용	
총괄 부서 소속	☐ ①보건소	☐ ②본청
총괄 부서 수준	☐ ①국(局) 단위	☐ ②과(課) 단위 ☐ ③계(係) 단위
총괄 부서 인력	_____ 명	

2. 귀하는 저출산대책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다소 필요하다

⇒ (질문 2-1로 이동)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질문 2-2로 이동)

- 2-1.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총괄 부서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기입하여 주십시오.

	내용		
총괄 부서 소속	☐ ①보건소	☐ ②본청	☐ ③기타(어디:)
총괄 부서 수준	☐ ①국(局) 단위	☐ ②과(課) 단위	☐ ③계(係) 단위
총괄 부서의 적정 인력	_____ 명		

- 2-2. (총괄 부서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 _____

3. 귀 지자체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2015.1.1.~2015.12.31.) 저출산대책과 관련하여 정례화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몇 회 운영하였습니까?

회

2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 인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가 맡은 전체 업무 중 저출산 대책 업무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업무 중 %

5. 귀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 전체 업무량에 비해 실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부족하다

☐④ 매우 부족하다

6. 귀하는 저출산 대책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문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② 전문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③ 전문성이 다소 낮은 편이다

☐④ 전문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7. 귀하는 2016.1.1.일부터 현재까지 저출산대책 관련 교육·훈련에 몇 회 참여하였습니까? 회

8. 귀 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에 대하여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다소 필요하다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질문 9로 이동)

- 8-1.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어디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앙부처 주관 교육·훈련

☐② 지방연수원

☐③ 민간교육기관

☐④ 기타(무엇: _____)

8-2.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훈련은 얼마를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기별

☐② 반기별

☐③ 연별

☐④ 격년별

☐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3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 재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9. 귀 지자체의 2016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저출산대책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예산의 %

10. 귀 지자체의 저출산대책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다소 충분하다

☐③ 부족하다

☐④ 매우 부족하다

4

다음은 저출산 대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 지자체에서는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는 몇 개입니까?

개

12. 귀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5년 한해(2015.1.1.~2015.12.31.) 동안 지역사회 자원(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교육·홍보를 몇 회 실시하였습니까?

회

13. 귀 지자체에서는 지난 2015년 한해(2015.1.1.~2015.12.31.) 동안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몇 회 실시하였습니까?

회

14. 귀 지자체에서 저출산대책 수립 및 추진의 주된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까지 번호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2순위: ▶ 3순위:

〈보 기〉	
① 기관장 등 지도자의 인식 부족	② 지자체 내 추진체계의 미흡
③ 투입인력 부족	④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⑤ 재정 부족	⑥ 관련 시설 및 서비스 부족
⑦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부족	⑧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 미흡(비협조 등)
⑨ 주민의 인식/이해 및 참여 부족	⑩ 기타()

15. 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②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③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④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⑤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⑥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⑦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⑧ 저출산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⑨ 기타 (무엇:)

16. 귀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실태파악 혹은 문제점 진단을 위해 조사사업이나 연구사업을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사업명 및 연구명	의뢰기관	의뢰연도

♠ 대단히 감사합니다 ♠

